

기본연구 2020-06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과 주요 업종 고용 변동 분석

김수현

KEIS

발간사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의 확산은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 중 하나였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이동 제한 등은 사람들의 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경제적인 충격도 컸다. OECD 회원국 통계에 따르면 2020년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 대부분의 실질 부가가치가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전년 대비 감소하였다.

한국 역시 마찬가지이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은 일상이 되었으며 재택근무가 늘어나는 등 일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가 발생했다. 경제적으로도 피해가 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2020년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은 계절조정계열 기준으로 전기 대비 1.3% 감소하였으며 2분기에는 전기 대비 3.2% 감소하였다. 2020년 3분기에는 계절조정계열 기준 전기 대비 실질 국내총생산이 회복되는 양상을 보였으나 여전히 전년 동기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노동시장에도 변화가 관측되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2020년 3월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하였다.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수가 감소한 것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취업자 수가 감소했던 2010년 1월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4월에는 취업자 수 감소 폭이 더욱 커졌으며 이후에도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는 가운데 취업자 수 감소세가 지속되었다.

본 연구는 아직 백신과 치료 약이 개발되지 않은 코로나19 확산 국면에서 노동시장의 변화를 살펴보고 주요 업종의 고용 변동 양상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코로나19 확산 국면에서의 노동시장에 대한 분석은 향후 노동시장에 대한

전망과 이와 관련된 정책 수립에 있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코로나19 확산과 같은 외부 충격이 왔을 때 노동시장이 받게 될 충격에 대한 정보를 축적함으로써 향후 이와 같은 충격이 다시 발생했을 때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한 기초 정보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연구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노동시장 전반의 변화를 분석하는 동시에 주요 제조 업종과 건설업,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취업자가 크게 감소한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의 고용 변화 양상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가 코로나19 확산 국면에서의 노동시장 동향 파악과 보다 개선된 고용 전망 연구 수행에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 기업과 근로자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주고, 관련 업종의 노동시장 정책 수립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20년 12월
한국고용정보원
원장 나 영 돈

[차례]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구성	2
제2장 코로나19 확산이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	4
제1절 서론	4
제2절 코로나19 확산과 국내 경제 상황 변화	6
제3절 코로나19 확산이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	14
제4절 코로나19 확산이 노동시장 임금 분배 구조에 미친 영향	32
제5절 소결	39
제3장 주요 제조업 고용 변동 양상 분석	42
제1절 서론	42
제2절 제조업 고용 변동 추이	43
제3절 주요 제조업종 고용 변동 양상 및 특성 분석	59
제4절 소결	81
제4장 건설업 및 주요 서비스업 고용 변동 양상 분석	83
제1절 서론	83
제2절 건설업 고용 변동 추이 및 특성 분석	85
제3절 도매 및 소매업 변동 추이 및 특성 분석	94
제4절 숙박 및 음식점업 변동 추이 및 특성 분석	102
제5절 교육 서비스업 변동 추이 및 특성 분석	111
제6절 소결	120

제5장 결 론	123
참고문헌	130
부록 : 일자리 및 노동력 변동 동향 분석	132

[표 차례]

〈표 2-1〉 주요국 2020년 1분기, 2분기 전기 대비 실질 국내총생산 성장률	9
〈표 2-2〉 2020년 1분기, 2분기 경제활동별 실질 국내총생산 성장률 추이	11
〈표 2-3〉 2020년 3분기 경제활동별 실질 국내총생산 성장률 추이	13
〈표 2-4〉 코로나19 확산이 개인의 취업 여부에 미친 영향	17
〈표 2-5〉 2020년 연령대별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변동	20
〈표 2-6〉 2020년 사업체 규모별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변동	24
〈표 2-7〉 2020년 산업별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수 변동	29
〈표 2-8〉 2020년 직업별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수 변동	30
〈표 3-1〉 제조업 및 주요 산업 실질 부가가치 연평균 성장률	44
〈표 3-2〉 2020년 성별 전년 동월 대비 제조업 취업자 변동	53
〈표 3-3〉 2020년 연령대별 전년 동월 대비 제조업 취업자 변동	54
〈표 3-4〉 2020년 종사상 지위별 전년 동월 대비 제조업 취업자 변동	55
〈표 3-5〉 2020년 사업체 규모별 전년 동월 대비 제조업 취업자 수 변동	57
〈표 3-6〉 2020년 직업별 전년 동월 대비 제조업 취업자 수 변동	58
〈표 4-1〉 2020년 성별 전년 동월 대비 건설업 취업자 변동	88
〈표 4-2〉 2020년 연령대별 전년 동월 대비 건설업 취업자 변동	89
〈표 4-3〉 2020년 종사상 지위별 전년 동월 대비 건설업 취업자 변동	91
〈표 4-4〉 2020년 사업체 규모별 전년 동월 대비 건설업 취업자 변동	92
〈표 4-5〉 2020년 직업별 전년 동월 대비 건설업 취업자 수 변동	93
〈표 4-6〉 2020년 성별 전년 동월 대비 도매 및 소매업 취업자 변동	97

<표 4-7> 2020년 연령대별 전년 동월 대비 도매 및 소매업 취업자 변동	98
<표 4-8> 2020년 종사상 지위별 전년 동월 대비 도매 및 소매업 취업자 변동	99
<표 4-9> 2020년 사업체 규모별 전년 동월 대비 도매 및 소매업 취업자 변동	101
<표 4-10> 2020년 직업별 전년 동월 대비 도매 및 소매업 취업자 수 변동 ..	102
<표 4-11> 2020년 성별 전년 동월 대비 숙박 및 음식점업 취업자 변동	106
<표 4-12> 2020년 연령대별 전년 동월 대비 숙박 및 음식점업 취업자 변동	107
<표 4-13> 2020년 종사상 지위별 전년 동월 대비 숙박 및 음식점업 취업자 변동	108
<표 4-14> 2020년 사업체 규모별 전년 동월 대비 숙박 및 음식점업 취업자 변동	110
<표 4-15> 2020년 직업별 전년 동월 대비 숙박 및 음식점업 취업자 수 변동	111
<표 4-16> 2020년 성별 전년 동월 대비 교육 서비스업 취업자 변동	114
<표 4-17> 2020년 연령대별 전년 동월 대비 교육 서비스업 취업자 변동	116
<표 4-18> 2020년 종사상 지위별 전년 동월 대비 숙박 및 음식점업 취업자 변동	117
<표 4-19> 2020년 사업체 규모별 전년 동월 대비 교육 서비스업 취업자 변동	118
<표 4-20> 2020년 직업별 전년 동월 대비 교육 서비스업 취업자 수 변동	119
<표 부록-1> 일자리 변동 주요 개념	133
<표 부록-2> 연도별 제조업의 일자리 및 노동력 변동 추이	136
<표 부록-3> 연도별 기계 업종 일자리 및 노동력 변동 추이	138
<표 부록-4> 연도별 조선 업종 일자리 및 노동력 변동 추이	139
<표 부록-5> 연도별 전자 업종 일자리 및 노동력 변동 추이	139
<표 부록-6> 연도별 섬유 업종 일자리 및 노동력 변동 추이	140
<표 부록-7> 연도별 철강 업종 일자리 및 노동력 변동 추이	140
<표 부록-8> 연도별 반도체 업종 일자리 및 노동력 변동 추이	141
<표 부록-9> 연도별 자동차 업종 일자리 및 노동력 변동 추이	141

[그림 차례]

[그림 2-1] 국내 코로나19 신규 및 누적 확진자 월별 추이	8
[그림 2-2] 실질 국내총생산 증가 추이	10
[그림 2-3] 취업자 수 변화 추이	15
[그림 2-4] 고용률 변동 추이	16
[그림 2-5] 성별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수 및 고용률 변동 추이	18
[그림 2-6] 교육 수준별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변동률 추이	21
[그림 2-7] 종사상 지위별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변동	22
[그림 2-8]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생산 및 취업자 변동 추이	32
[그림 2-9] 임금근로자 월 임금(만 원) 및 시간당 임금(원) 추이	33
[그림 2-10] 월 임금 기준 지니계수, P90/P10, P90/P50, P50/P10	34
[그림 2-11] 시간당 임금 기준 지니계수, P90/P10, P90/P50, P50/P10	35
[그림 2-12] 남성 대비 여성 임금근로자 임금 수준	36
[그림 2-13] 대규모 사업체 대비 중소기업 사업체 임금근로자 임금 수준	37
[그림 2-14] 대규모 사업체 대비 중소기업 사업체 임금근로자 임금 수준	38
[그림 3-1] 제조업 취업자 및 실질 부가가치 성장률 추이(1963~1990년)	45
[그림 3-2] 제조업 취업자 및 실질 부가가치 성장률 추이(1992~2000년)	46
[그림 3-3] 제조업 취업자 및 실질 부가가치 성장률 추이(2000~2008년)	47
[그림 3-4] 제조업 취업자 및 실질 부가가치 성장률 추이(2004~2017년)	48
[그림 3-5] 제조업 취업자 및 실질 부가가치 성장률 추이(2013~2019년)	49
[그림 3-6] 월별 제조업 취업자 수 추이(2016년 1월~2020년 10월)	50
[그림 3-7] 제조업 취업자 추세(2013년 1월~2020년 10월)	51

[그림 3-8] 제조업 취업자 수 변동 및 실질 부가가치 성장률 추이	52
[그림 3-9] 월별 기계 업종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추이	61
[그림 3-10] 월별 기계 업종 세부 산업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변동 추이 ...	62
[그림 3-11] 월별 조선 업종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추이	64
[그림 3-12] 월별 조선 업종 세부 산업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변동 추이 ...	65
[그림 3-13] 월별 전자 업종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추이	67
[그림 3-14] 월별 전자 업종 세부 산업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변동 추이 ...	68
[그림 3-15] 월별 섬유 업종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추이	70
[그림 3-16] 월별 섬유 업종 세부 산업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변동 추이	71
[그림 3-17] 월별 철강 업종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추이	73
[그림 3-18] 월별 철강 업종 세부 산업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변동 추이 ...	74
[그림 3-19] 월별 반도체 업종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추이	76
[그림 3-20] 월별 반도체 업종 세부 산업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변동 추이 ...	77
[그림 3-21] 월별 자동차 업종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추이	78
[그림 3-22] 월별 자동차 업종 세부 산업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변동 추이 ...	80
[그림 4-1] 연도별 건설업 취업자 수 및 실질 부가가치 성장률 추이	85
[그림 4-2] 월별 건설업 취업자 증가 추이	86
[그림 4-3] 건설업 취업자 추세(2013년 1월~2020년 10월)	87
[그림 4-4] 연도별 도매 및 소매업 취업자 수 및 실질 부가가치 성장률 추이 ...	95
[그림 4-5] 월별 도매 및 소매업 취업자 증가 추이	96
[그림 4-6] 도매 및 소매업 취업자 추세(2013년 1월~2020년 10월)	96
[그림 4-7] 연도별 건설업 취업자 수 및 실질 부가가치 성장률 추이	103
[그림 4-8] 월별 숙박 및 음식점업 취업자 증가 추이	104
[그림 4-9] 숙박 및 음식점업 취업자 추세(2013년 1월~2020년 10월)	105
[그림 4-10] 연도별 교육 서비스업 취업자 수 및 실질 부가가치 성장률 추이 ...	112
[그림 4-11] 월별 교육 서비스업 취업자 증가 추이	113
[그림 4-12] 숙박 및 음식점업 취업자 추세(2013년 1월~2020년 10월)	114
[그림 부록-1] 제조업 일자리 창출률, 소멸률, 순증가율	137

요약

제1장 서론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확산은 경제 성장과 생산 활동을 위축시켰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0년 들어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실질 국내총생산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악화된 경제 상황은 노동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2020년 3월부터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수가 감소하는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수가 감소한 것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로 취업자가 감소했던 2010년 1월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코로나19 확산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유럽 등과 같이 한국에서도 기온이 내려가면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면 이는 앞으로도 경제와 노동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확산 국면에서의 노동시장 변화를 살펴보고 주요 제조 업종과 건설업의 고용 변동 양상을 분석하였다. 또한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등 코로나19 확산으로 취업자가 많이 감소한 주요 서비스업의 고용 변동 양상을 분석하였다.

제2장 코로나19 확산이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

코로나19 확산 국면에서 국내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해 전체 취업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를 인구 특성별로 보면 여성과 청년층 취업자가 많이 감소

ii 요약

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상용직보다 임시직과 일용직 취업자가 더 많이 감소했으며,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소규모 사업체의 취업자가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감소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고용 취약계층이나 고용 안정성이 약한 일자리 종사자가 코로나19 확산의 충격에 더 취약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하지만 최근 상용직 취업자 역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장기화되면 고용이 안정적인 일자리에 종사하는 이들 역시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위험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별로는 숙박 및 음식점업의 취업자가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으며 도매 및 소매업, 교육 서비스업 등도 영향을 크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산업들의 취업자 감소는 대면 서비스와 관련된 인력수요 감소의 영향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도 역시 같은 이유로 최근 취업자가 감소한 것으로 사료된다. 제조업도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수출과 생산 활동이 위축된 데 따른 결과로 취업자가 감소했다. 직업별로 보면 대부분 직업에서 취업자 수가 감소했으나, 상대적으로 숙련 수준이 낮은 단순 노무 종사자는 전년 동월 대비 증가세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가 확산된 2020년 전반적인 임금 불평등은 완화되었으나 저임금층과 고임금층 간 임금 격차는 확대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8월 근로 형태별 부가조사 자료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0년 전년 대비 지니계수는 감소했지만 저임금층 근로자의 임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하락하면서 임금 10분위 대비 90분위 배율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별 임금 격차는 소폭 줄어들었지만 대규모 사업체와 중소기업 사업체 임금근로자 사이의 임금 격차와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사이의 임금 격차는 2019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이 상대적으로 고용이 불안정한 취약계층 근로자의 고용 수준에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저임금 근로자, 중소기업 임금근로자,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근로자의 임금 수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수 있음을 가리킨다.

제3장 주요 제조업 고용 변동 양상 분석

3장에서는 제조업과 주요 제조업종의 고용 변동 양상을 분석했다. 우선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이용해 전체 제조업의 고용 변동 양상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를 보면 제조업의 취업자 수는 2020년 들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취업자 수가 감소한 것은 2020년 이전부터 계속된 국내 제조업의 경기 침체와 함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전 세계 제조업의 경기 침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감소했던 제조업 취업자 수는 2020년 들어서도 감소세를 지속했다.

최근 제조업의 취업자 수 변동 양상을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남성보다는 여성 취업자가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60세 이상 연령대에서는 취업자가 증가했지만 다른 연령대에서는 취업자가 감소했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시직과 일용직 취업자의 감소 폭이 컸으며 사업체 규모별로는 3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체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취업자가 감소한 것을 확인하였다. 직업별로는 제조업의 경우 단순 노무직 종사자와 함께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가 코로나19 확산 국면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무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등은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수가 감소했다.

분석 결과를 보았을 때 코로나19는 제조업의 일자리 전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성 일자리나 임시직, 일용직과 같이 고용이 불안정한 일자리의 종사자는 상대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에 더욱 취약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직업별로 보면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중간숙련 일자리와 사무직 일자리가 감소한 데 반해 저숙련 일자리와 고숙련 일자리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취업자 감소가 상대적으로 적어 이와 같은 국면이 지속된다면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제조업종별로 고용 변동 양상을 분석한 결과 반도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주요 제조업종에서 고용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DB」를 이용한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업종은 최근 고용이 증가하였지만 기계, 조선, 전자, 섬유, 철강, 자동차 업종은 전년 동월 대비 고용이 감소했다. 이 중 기계, 전자, 섬유 등의 업종은 최근 고용 감소세가 다소 완화되었으나 조선, 철강 업종은 고용이 여전히 감소세를 지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4장 건설업 및 주요 서비스업 고용 변동 양상 분석

4장에서는 고용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건설업과 코로나19 확산 국면에서 고용이 크게 감소한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의 최근 고용 변동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코로나19 확산이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을 고찰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건설업은 코로나19 확산 국면 초기에는 취업자 수가 감소했다. 건설업의 취업자 수는 2020년 1월 전년 동월 대비 증가했으나 2월 들어 전년 동월 대비 0.5% 줄어들었으며 3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1.0% 감소했다. 이후에도 6월까지 건설업의 취업자 수는 감소하였다. 그러나 2020년 9월과 10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가 증가하면서 최근 다른 고용 변동 양상을 보였다. 전체 취업자 수는 코로나19 확산 국면에서 전년 동월 대비 감소세를 지속했다.

취업자 수 변동 양상을 살펴보면 코로나19 확산 국면에서 건설업은 여성보다 남성 취업자가 더 많이 감소했다.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건설업의 취업자가 감소했던 시기 남성 취업자는 감소했지만 여성 취업자는 증가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60세 이상 고연령층과 함께 20세 이상 30세 미만 청년층의 경우 상대적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취업자 감소가 적었다. 종사상 지위와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고용이 불안정한 임시직과 일용직 취업자와 소규모 사업체의 종사자가 코로나19 확산의 충격을 크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가 코로나19 확산 국면에서 많이 감소했다. 그러나 단순 노무 종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종사자 등은 코로나19 확산 국면에서 오히려 취업자 수가 증가했다.

도매 및 소매업은 코로나19 확산 국면에서 취업자 감소 폭이 더욱 증가했다. 2020년 3월 이전에도 도매 및 소매업의 취업자 수는 감소세를 지속했는데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도매 및 소매업의 취업자 수 감소 폭이 더욱 커진 것이다. 2020년 3월 도매 및 소매업의 취업자 수는 352만 7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6만 8천 명 감소했다. 이후 감소 폭은 더욱 확대되었는데 2020년 9월과 10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20만 7천 명과 18만 8천 명의 취업자가 감소했다.

도매 및 소매업의 취업자 변동 양상을 살펴보면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여

성 취업자와 남성 취업자가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소 규모는 남성과 여성이 비슷했으나 감소율은 여성이 더 컸다. 연령대별로는 50세 이상 60세 미만 연령대의 취업자가 많이 줄어들었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시직 취업자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감소 폭이 컸으나, 최근에는 상용직 취업자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사업체 규모별로는 소규모 사업체 취업자가, 직업별로는 도매 및 소매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판매 종사자가 많이 감소했다.

숙박 및 음식점업은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산업 중 취업자가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숙박 및 음식점업의 취업자는 2020년 1월과 2월에는 증가했으나 3월 들어 전년 동월 대비 10만 9천 명이 감소했으며 4월에는 감소 폭이 더욱 커졌다. 숙박 및 음식점업의 취업자 수는 코로나19 확산세 속에 계속해서 감소했는데 2020년 10월에도 전년 동월 대비 22만 7천 명의 취업자가 줄어들었다.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는 여성 취업자가 더 많이 감소했다. 남성 취업자도 감소했으나 상대적으로 여성 취업자의 감소 폭이 더 컸다. 연령대별로 보면 60세 이상 연령대를 제외하고 모든 연령대에서 취업자가 줄어들었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임시직과 일용직의 일자리가 코로나19로 인해 많이 줄었다. 2020년 7월 이후에는 상용직 취업자 역시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수가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는데 이는 기존의 안정적인 일자리 역시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장기화한 영향으로 실직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졌음을 의미한다. 사업체 규모별로는 소규모 사업체에서 취업자가 많이 감소했다. 직업별로는 서비스 종사자가 큰 폭으로 감소했으며 다른 산업과 달리 단순 노무 종사자 역시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서비스업 역시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취업자 수가 많이 줄어들었다. 2019년 1월 이후 전년 동월 대비 증가세를 보였던 교육 서비스업 취업자 수는 2020년 2월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이후 감소세를 이어갔다.

교육 서비스업에서는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상대적으로 여성 취업자가 더 많이 감소했다. 연령대별로는 20세 미만, 20세 이상 30세 미만, 30세 이상 40세 미만, 40세 이상 50세 미만 연령대의 취업자는 감소했지만 50세 이상 60세

미만, 60세 이상 연령대의 취업자는 증가했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임시직과 일용직 취업자가 많이 감소했다. 비임금근로자 중에서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모두 감소했는데 오히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더 많이 감소했다는 점은 다른 산업과는 다른 특성이라 할 수 있다. 사업체 규모별로는 소규모 사업체의 취업자가 더 많이 줄어들었으며, 직업별로는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가 많이 감소했다.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특정 치료제가 없는 전염병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의 확산은 국민의 삶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마스크 착용은 일상이 되었으며 과거에는 당연했던 행동이 이제는 하지 않아야 할 일이 되었다. 경제적으로 미친 영향도 크다. 여행을 비롯한 소비의 제약은 관련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줄였으며,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한 영향으로 제조업의 수출과 생산이 위축되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계절조정계열 기준으로 2020년 1분기와 2분기의 실질 국내총생산이 전기 대비 감소했으며 원계열 기준으로는 2020년 2분기와 3분기의 실질 국내총생산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다.

코로나19의 확산과 함께 노동시장에서도 변화가 관측되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2020년 3월 취업자 수는 2,660만 9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9만 5천 명 감소했다.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수가 감소한 것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취업자가 감소했던 2010년 1월 이후 처음이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적 충격이 노동시장에도 영향을 준 것이

다. 4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감소 폭이 더욱 확대되었다.

코로나19의 확산은 2020년 10월까지 계속되고 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2020년 1월 20일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계속 증가해 2020년 10월에는 2만 6,511명까지 늘어났다.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노동시장에서의 취업자 감소도 계속되고 있다. 2020년 3월 시작된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감소는 10월까지 이어졌다. 하지만 이후에도 코로나19 확진자는 당분간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유럽 등 다른 국가에서는 기온 하강과 함께 이미 코로나19의 재유행이 시작되었으며 지난겨울과 봄에 비해 더욱더 빠른 속도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역시 기온 하강과 함께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코로나19 확산세의 지속은 노동시장에도 계속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는 코로나19 확산 국면에서 노동시장의 변화를 살펴보고 주요 업종의 고용 변동 양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전례 없는 코로나19 확산 국면에서 노동시장의 변화를 분석하는 것은 향후 노동시장에 대한 전망과 관련한 정책 수립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또한 코로나19와 같은 외부 충격이 왔을 때 노동시장이 어떻게 변화하는가에 대한 정보를 축적함으로써 향후 이러한 충격이 다시 발생했을 때 노동시장 변화에 대한 기초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연구라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변화를 전반적으로 분석하는 한편, 주요 제조 업종과 건설업, 그리고 코로나19 확산 국면에서 취업자가 많이 감소한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의 고용 변화 양상을 고찰한다.

제2절 연구의 구성

본 연구는 코로나19 확산 국면에서 전반적인 노동시장의 변화를 살펴보고 제조업의 주요 업종에 나타난 고용 변동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또한, 고용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건설업과 코로나19 확산으로 최근 취업자가 감소한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등 주요 서비스업의 고용 변동 양상에 대해 살펴본다. 이와 같은 분석을 위한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2장에서는 코로나19 확산이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코로나19 확산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국내 경제와 노동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코로나19 확산 국면과 국내 경제 상황의 변화를 살펴보는 한편, 2020년 국내 노동시장에서의 고용 변동을 분석함으로써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노동시장의 변화를 고찰하였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충격이 노동시장 내 임금 분배 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해 임금 분배 구조 변화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노동시장에서의 고용 변동 양상은 주로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이용했으며, 임금 분배 구조의 변화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8월 근로 형태별 부가조사 자료를 이용해 분석하였다.

3장에서는 국내 경제성장과 고용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 변동 양상을 고찰하였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이용해 전체 제조업의 고용 변동 양상을 살펴보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용 변동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수출과 생산, 고용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기계, 조선, 전자, 섬유, 철강, 반도체, 자동차 등 7개 주요 제조업종의 고용 변동 양상에 대해 「고용보험 피보험자 DB」를 이용해 살펴보았다.

4장에서는 고용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설업과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취업자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던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등 주요 서비스업의 고용 변동 양상을 분석하였다. 이 산업들은 모두 최근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고용 감소를 경험했거나 여전히 고용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는 산업이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이 건설업 및 주요 서비스업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해 고찰하였다.

제2장

코로나19 확산이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

제1절 서론

2020년 코로나19의 확산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화두이다. 2020년 1월 11일 중국에서 처음 확진자가 발표된 이후 코로나19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양상을 보였다. 현재는 아시아, 유럽,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등 모든 대륙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미 지난 2020년 3월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전염병의 세계적인 대유행 현상을 의미하는 팬데믹(Pandemic)을 선언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그 이후에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2020년 10월 31일 기준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전 세계적으로 약 4,554만 6천 명까지 증가했으며 사망자는 118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된다.¹⁾

한국 역시 2020년 1월 20일 코로나19 확진자가 최초로 발생한 이후 빠른 속도로 확진자가 증가했다. 3월에는 대구와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1) 세계보건기구 코로나19 상황관(covid19.who.int) 참조.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사이트별, 관측 시점별 차이가 존재함.

신규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4월에는 누적 확진자 수가 1만 명을 넘어섰다. 8월 14일부터 하루 신규 확진자가 1백 명 이상으로 다시 증가하면서 9월에는 누적 확진자가 2만 명 이상으로 증가했다. 8월 27일에 1일 기준으로 441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1일 신규 확진자가 감소세를 보였지만 이후로도 지속해서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2020년 10월 31일 기준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2만 6,511명까지 늘어났다.²⁾

전염성이 강하고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은 코로나19의 확산은 국민의 생활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마스크 착용은 일상이 되었고 이동과 소비 패턴도 변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국내 거시적 경제 상황도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변화가 관측되었다.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와 함께 경제성장률이 하락세로 전환된 것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2020년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은 계절조정계열 기준으로 전기 대비 1.3% 감소하였으며 2분기에는 전기 대비 3.2% 감소하였다. 2020년 3분기 들어 계절조정계열 기준으로 전기 대비 실질 국내총생산은 회복되는 양상을 보였으나 여전히 전년 동기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 상황의 악화는 노동시장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가 본격적으로 증가한 2020년 3월에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19만 5천 명 감소하였으며 4월에는 감소 폭이 47만 6천 명으로 증대되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취업자가 감소했던 2010년 1월 이후 처음으로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가 감소한 것이다.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감소세는 4월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4월 이후 취업자 감소 폭이 줄어들면서 8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27만 4천 명의 취업자가 감소하였으나 9월부터 취업자 감소 폭이 다시 확대되어 10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42만 1천 명의 취업자가 감소했다.

본 장에서는 이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노동시장의 변화를 관측함으로써 코로나19가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코로나19의 확산은 개인의 삶과 생활뿐만 아니라 국내 경제와 노동시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이에 코로나19 확산과 그에 따른 국내 경제 상황의 변화를 살펴보는 한편,

2) 통계청의 코로나19 통계 정보(kosis.kr/covid/covid_index.do) 참조.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한 3월부터 노동시장에서의 고용 변화 양상을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이 고용 수준뿐만 아니라 임금 분배 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해 「경제활동인구조사」 8월 근로 형태별 부가조사 자료를 이용해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임금 분배 구조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에 대해 살펴보았다.

제2절 코로나19 확산과 국내 경제 상황 변화

공식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를 처음 발표한 국가는 중국이다. 2020년 1월 9일 중국 우한 위생건강위원회는 우한 수산시장에서 발생한 폐렴의 원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라고 발표했으며, 이어 1월 11일에 코로나19 확진자가 41명이라는 공식 발표를 했다. 발표 이후 중국에서는 우한 지역 외 다른 지역에서도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이에 중국 정부는 우한 지역의 출입을 봉쇄하는 조치를 했으나 이후 확진자는 폭발적으로 증가하였고 2월 13일에는 누적 확진자 수가 5만 명 이상으로 늘어났다.³⁾

하지만 중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증가세는 2월 중순 이후 점차 누그러지기 시작했다. 2월 13일 하루 기준으로 1만 5천 명 이상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누적 확진자 수가 크게 늘어났지만, 이후 확진자 수 증가 규모가 점차 축소되는 양상을 보인다. 세계보건기구 코로나19 상황판에 따르면 중국은 3월 1일 신규 확진자가 5백 명 이상 발생한 이후 10월 31일까지 신규 확진자 증가세는 큰 변화가 없는 상황을 유지한다. 10월 31일 기준 중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약 9만 2천 명이다.

미국에서는 2020년 1월 21일 코로나19 최초 확진자가 확인되었다. 워싱턴에 거주하던 30대 남성으로 1월 15일 중국 우한에서 입국하였다. 이에 미국은 2월 2일 중국으로의 여행을 제한한다. 여행 제한 조치와 함께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2월 29일까지 70명 미만 수준을 유지했다. 하지만 3월 들어 코로나19 사망자 발생과 함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기 시작했다

3) 세계보건기구 코로나19 상황판(covid19.who.int) 참조.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사이트별, 관측 시점별 차이가 존재함.

는데 세계보건기구 코로나19 상황판에 따르면 3월 31일 기준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4만 명 이상으로 증가했다.

3월 이후에도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는 계속되었다. 4월 30일 100만 명을 넘었으며 6월 13일에는 200만 명 이상으로 증가했다. 이후에도 증가세는 계속되어 8월 12일 500만 명을 넘어섰으며 10월 31일까지 885만 3천 명 수준으로 증가했다.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기온이 하강하면서 더욱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10월 31일 이후 하루 10만 명 이상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코로나19 확산세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유럽에서도 2020년 1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유럽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공식적으로 처음 발생한 곳은 프랑스이다. 프랑스에서는 2020년 1월 24일 중국 여행 후 귀국한 자국민이 코로나19 확진자 판정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이후 다른 국가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는데 독일에서는 1월 27일, 스웨덴과 이탈리아에서는 1월 31일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유럽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2월 말이 되자 빠른 속도로 증가하기 시작했다. 이에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이 시행되었다. 3월 들어 코로나19 확진자가 10만 명 이상을 기록한 이탈리아의 경우 3월 10일 전국 폐쇄 조치를 하였으며 스페인, 독일, 프랑스, 스웨덴 등 다른 유럽 국가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외출을 금지하고 지역 간, 국경 간 이동을 막는 다양한 방식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시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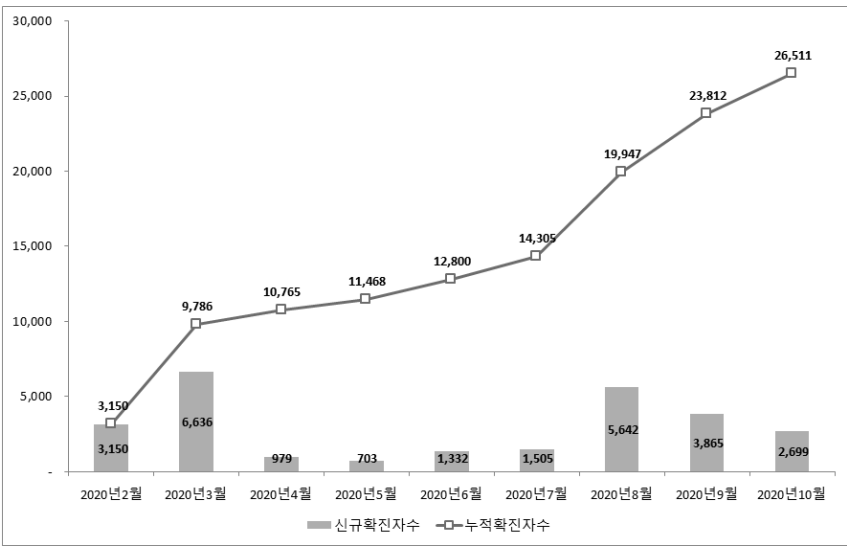
5월 이후 유럽의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는 이전과 비교해 약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의 국가에서는 5월 들어 이전과 비교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크게 줄어들었으며 스웨덴도 6월 이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이전보다 감소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유럽에서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기온 하강과 함께 유럽 대부분의 국가에서 지난봄보다 더 빠른 속도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는 양상이 관측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2020년 1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질병관리본부는 1월 20일 중국 우한에서 입국한 중국 국적 35세 여성이 코로나19 확진자라고 발표했다. 코로나19 최초 확진자 발생 이후 국내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3월까지의 대구, 경북 등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했다. 2020년 3월까지 대구에서는 6천 6백 명, 경북에서는 1천 3백 명 이상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이는 3월까지 발생한 전국 코로나19 확진자의 68.3%, 13.3% 수준에 해당한다.

[그림 2-1] 국내 코로나19 신규 및 누적 확진자 월별 추이

(단위: 명)



자료: 통계청, 「코로나19 통계」

코로나19 확진자가 큰 폭으로 증가했던 3월 이후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는 둔화되었다. 4월과 5월에는 천 명 미만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6월과 7월에도 약 1,300명과 1,500명 수준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하지만 8월 중순부터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빠르게 증가했다. 8월 들어서도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 수는 1일 기준 1백 명 미만 수준을 유지했으나 8월 14일 이후 다시 1백 명 이상으로 증가했으며 8월 27일에는 1일 기준 4백 명 이상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8월에 코로나19 확진자는 주로 서울과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증가했는데 8월을 기준으로 서울에서는 2,200명, 경기에서는 1,700명 이상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서울과 경기 지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8

월 기준 전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의 40.2%와 30.4%를 차지한다.

2020년 8월 이후 신규 확진자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었지만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9월에 신규 확진자는 3,900명, 10월에 신규 확진자는 2,700명 수준으로 증가 폭은 다소 줄어들었다. 하지만 해외 주요 국가와 마찬가지로 최근 들어 기온이 하강하면서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다시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표 2-1> 주요국 2020년 1분기, 2분기 전기 대비 실질 국내총생산 성장률(계절조정)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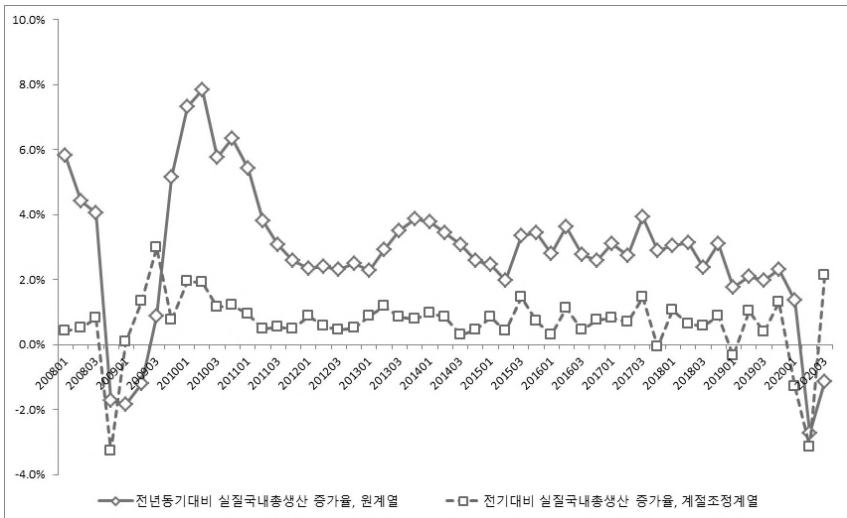
국가명	2020년 1분기	2020년 2분기	국가명	2020년 1분기	2020년 2분기
호주	-0.3	-7.0	라트비아	-2.3	-7.1
오스트리아	-2.5	-12.1	리투아니아	-0.0	-5.9
벨기에	-3.4	-11.8	룩셈부르크	-1.4	-7.2
캐나다	-2.1	-11.5	멕시코	-1.2	-17.1
칠레	3.0	-13.5	네덜란드	-1.5	-8.5
콜롬비아	-1.4	-16.1	뉴질랜드	-1.4	-12.2
체코	-3.3	-8.7	노르웨이	-1.5	-4.7
덴마크	-1.6	-6.8	폴란드	-0.3	-9.0
에스토니아	-2.2	-5.6	포르투갈	-4.0	-13.9
핀란드	-1.4	-4.4	슬로바키아	-5.1	-8.3
프랑스	-5.9	-13.7	슬로베니아	-4.7	-9.9
독일	-1.9	-9.8	스페인	-5.2	-17.8
그리스	-0.7	-14.0	스웨덴	0.2	-8.3
헝가리	-0.4	-14.6	스위스	-1.9	-7.3
아이슬란드	-5.7	-9.1	터키	-0.1	-11.0
아일랜드	-2.1	-6.1	영국	-2.5	-19.8
이스라엘	-1.8	-8.5	미국	-1.3	-9.0
이탈리아	-5.5	-13.0	브라질	-2.5	-9.7
일본	-0.6	-8.2	중국	-10.0	11.7
한국	-1.3	-3.2	인도	0.7	-25.2

자료: OECD 홈페이지 회원국 통계

코로나19 확산은 국가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국외 주요 기관의 통계를 보면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주요 국가의 실질 부가가치는 큰 폭으로 감소했다(IMF, 2020; OECD, 2020a, 2020b). <표 2-1>은 OECD 회원국의 계절조정계열 기준 2020년 1분기와 2분기의 전기 대비 실질 국내총생산 성장률이다. 일부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가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2020년 1분기 전기 대비 실질 국내총생산이 감소했으며 2분기에도 전기 대비 실질 국내총생산이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다. 코로나19 공식 확진자가 최초로 발생했던 중국은 경우 2분기 전기 대비 실질 국내총생산이 증가하였지만 다른 OECD 회원국은 모두 전기 대비 실질 국내총생산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코로나19 확산은 여행, 외식 등에 대한 소비를 줄여 서비스업 경제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한편, 제조업의 생산 활동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2-2] 실질 국내총생산 증가 추이

(단위: %)



자료: 한국은행

한국도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와 함께 실질 국내총생산이 감소했다(그림 2-2 참조).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은 계절조정계열 기준

으로 2020년 1분기에 전기 대비 1.3% 감소했으며 2분기에는 3.2% 감소했다. 원계열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실질 국내총생산은 1분기까지는 1.4% 증가했지만 2분기 들어 2.7% 감소했다. 원계열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실질 국내총생산이 감소한 것은 2008년에 발생한 세계 금융위기의 충격을 받았던 2009년 2분기 이후 처음이다. 계절조정계열 기준 전기 대비 실질 국내총생산과 원계열 기준 전년 동기 대비 실질 국내총생산이 모두 감소한 것은 2008년 4분기 이후 2020년 2분기가 처음이다.

<표 2-2> 2020년 1분기, 2분기 경제활동별 실질 국내총생산 성장률 추이

(단위: %)

구분	원계열 전년 동기 대비		계절조정계열 전기 대비		구분	원계열 전년 동기 대비		계절조정계열 전기 대비	
	2020년 1분기	2020년 2분기	2020년 1분기	2020년 2분기		2020년 1분기	2020년 2분기	2020년 1분기	2020년 2분기
A	-0.4%	-4.9%	3.7%	-9.5%	I	6.1%	8.0%	2.2%	3.9%
B	2.0%	-3.6%	-3.0%	-10.5%	J	1.5%	1.9%	-0.7%	0.8%
C	3.5%	-6.6%	-1.0%	-8.9%	K	3.5%	1.7%	3.9%	-1.9%
D	7.2%	0.0%	9.9%	0.1%	L	1.2%	-1.6%	-3.2%	0.2%
E	3.0%	-0.2%	0.2%	-0.3%	M	4.5%	4.4%	1.4%	0.9%
F	-1.1%	-3.3%	-0.7%	-4.3%	N	-2.0%	-2.4%	-3.3%	0.3%
G	-13.5%	-12.4%	-16.2%	1.1%	O	3.8%	0.3%	-3.4%	-1.9%
H	-10.2%	-18.8%	-11.8%	-8.8%	P	-11.3%	-19.2%	-11.9%	-8.1%

주: A, 농림어업; B, 광업; C, 제조업; D,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E, 건설업; F, 도소매업; G, 숙박 및 음식점업; H, 운수업; I, 금융 및 보험업; J, 부동산업; K, 정보 통신업; L, 사업 서비스업; M,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N, 교육 서비스업; O, 의료,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P, 문화 및 기타 서비스업.

자료: 한국은행

2020년 1분기와 2분기 경제활동별 실질 국내총생산 성장률을 살펴보면(<표 2-2> 참조)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숙박 및 음식점업의 실질 국내총생산이 전기 대비 매우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숙박 및 음식점업의 2020년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은 원계열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5%, 계절조정계열 기준으로 16.2% 감소했으며, 2분기에도 원계열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4% 감

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 국내총생산은 2분기 들어 소비 진작을 위한 정부의 정책 추진에 힘입어 1분기보다는 증가했지만 지난해 동기 수준은 회복하지 못한 것이다. 이와 같은 숙박 및 음식점업의 실질 국내총생산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여행, 외식 등의 소비 위축이 중요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서비스 수요 감소는 문화 및 기타 서비스업, 도소매업, 교육 서비스업의 실질 국내총생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문화 및 기타 서비스업의 실질 국내총생산은 2020년 1분기와 2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전기 대비 모두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문화 및 기타 서비스업의 실질 국내총생산은 원계열 기준으로 1분기와 2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11.3%와 19.2% 감소했으며 계절조정계열 기준으로 전기 대비 11.9%와 8.1% 감소하였다. 문화 및 기타 서비스업의 실질 국내총생산 감소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예술, 문화, 스포츠, 여가 관련 산업의 경기 위축이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도소매업과 교육 서비스업의 실질 국내총생산도 코로나19가 확산세를 보였던 2020년 1분기와 2분기에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도소매업의 실질 국내총생산은 1분기와 2분기에 원계열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계절조정계열 기준으로 전기 대비 모두 감소했다. 교육 서비스업은 원계열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실질 국내총생산이 1분기와 2분기 모두 감소했으며, 계절조정계열 기준으로 전기 대비 1분기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산업은 원격, 온라인상 서비스 수요는 증가했지만 대면 서비스 수요가 줄어들면서 실질 국내총생산이 감소한 것으로 사료된다.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수준에서 실질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제조업도 코로나19가 확산세를 보이면서 실질 국내총생산이 감소했다. 제조업의 실질 국내총생산은 2분기 들어 원계열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6.6% 감소했으며, 계절조정계열로는 1분기와 2분기 모두 전기 대비 1.0%와 8.9% 감소하며 2분기에 1분기보다 더 큰 폭으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제조업의 실질 국내총생산 감소는 섬유, 철강, 금속 제품 제조업,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운송장비 제조업 관련 수요 부진에 따른 결과로 코로나19 확산도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운수업도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실질 국내총생산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운수업의 실질 국내총생산은 원계열 기준으로 2020년 1분기와 2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10.2%와 18.8%가 감소했으며 계절조정계열 기준으로는 1분기와 2분기에 전기 대비 각각 11.8%와 8.8%가 감소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화물, 택배 및 배송 관련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증가했지만 이동이 제한되면서 여객 관련 수요가 많이 감소한 데 따른 결과로 판단된다.

의료,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실질 국내총생산이 증가했지만 2020년 1분기, 2분기 각각 전기와 비교하면 실질 국내총생산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생산이 증가했지만 2분기 들어 증가세가 둔화된 것이다. 반면 금융 및 보험업,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관련 서비스의 실질 국내총생산은 코로나19가 확산되었던 2020년 1분기와 2분기에 증가세를 유지했다.

<표 2-3> 2020년 3분기 경제활동별 실질 국내총생산 성장률 추이

(단위: %)

구분	원계열 전년 동기 대비	계절조정계열 전기 대비	구분	원계열 전년 동기 대비	계절조정계열 전기 대비
A	-7.0%	0.7%	I	9.6%	1.9%
B	-4.3%	-4.1%	J	2.2%	0.4%
C	-0.7%	7.9%	K	0.1%	-3.7%
D	8.7%	-6.2%	L	-0.9%	1.1%
E	-1.9%	-5.2%	M	3.7%	0.2%
F	-2.5%	1.7%	N	-2.6%	0.4%
G	-15.3%	-3.3%	O	0.8%	3.9%
H	-15.8%	4.0%	P	-17.6%	1.6%

주: A, 농림어업; B, 광업; C, 제조업; D,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E, 건설업; F, 도소매업; G, 숙박 및 음식점업; H, 운수업; I, 금융 및 보험업; J, 부동산업; K, 정보 통신업; L, 사업 서비스업; M,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N, 교육 서비스업; O, 의료,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P, 문화 및 기타 서비스업

자료: 한국은행

국내 실질 국내총생산은 2020년 3분기 들어 회복세를 보였다(<표 2-3> 참조). 실질 국내총생산은 원계열로 보면 전년 동기 대비 1.1% 감소했지만 계절조정계열로는 전기 대비 2.1% 증가했다. 이는 2분기에 감소세를 보이던 제조

업, 도소매업, 운수업, 문화 및 기타 서비스업 등에서 전기 대비 실질 국내총생산이 증가한 데 따른 결과이다. 숙박 및 음식점업은 계절조정계열 기준으로 전기 대비 증가세를 보였던 2020년 2분기의 실질 국내총생산이 3분기 들어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그러나 도소매업, 문화 및 기타 서비스업은 계절조정계열 기준으로 전기 대비 감소했던 2분기의 실질 국내총생산이 3분기 들어 소폭 회복되는 양상을 보였다. 제조업은 자동차, 반도체 등의 수출이 증가했고 코스 및 석유 정제품 제조업, 기타 제조업 및 산업용 장비 수리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산업에서 실질 국내총생산이 계절조정계열 기준으로 전기 대비 회복세를 보이며 2분기 대비 실질 국내총생산이 증가했다.

국내에서는 2020년 3분기에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였지만 계절조정계열 기준으로 실질 국내총생산은 전기 대비 회복세를 보였다. 이는 2019년 3분기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실질 국내총생산이 크게 줄어들었던 지난 2분기보다는 경제 상황이 개선되었음을 가리킨다. 3분기에 경제 상황이 회복세를 보인 것은 한국만이 아니다. 코로나19로 경제적 충격에 직면했던 주요 국가들도 3분기 들어 2분기 대비 경제 상황이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OECD 회원국 통계에 따르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2분기에 전기 대비 실질 국내총생산이 감소했던 많은 국가가 3분기 들어서는 전기 대비 실질 국내총생산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3절 코로나19 확산이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

코로나19의 확산은 경제 상황을 악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경제학 이론에 따르면 노동시장에서 인력수요는 생산함수의 파생수요로 생산의 감소는 노동수요 감소로 이어져 일자리 감소를 초래한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보면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한 3월에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3월 취업자 수는 2,660만 9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9만 5천 명 감소했다(그림 2-3 참조).

2020년 3월의 고용 감소에는 다양한 원인이 존재할 수 있다. 하지만 2020년 1월과 2월에 전년 동월 대비 각각 56만 8천 명과 49만 2천 명 증가했던 취

업자 수가 코로나19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한 3월 들어 감소한 데에는 코로나 19 확산과 그에 따른 경기 침체의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수의 감소는 2008년에 발생한 세계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2009년 1월부터 8월까지, 2009년 10월부터 2010년 1월까지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수가 감소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2020년 4월에는 취업자 수의 감소 폭이 더욱 확대되었다. 2020년 4월 취업자 수는 2,656만 2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7만 6천 명 감소했다. 2020년 3월 국내 코로나19 확진자의 급속한 증가와 함께 시작된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수의 감소세는 2020년 10월까지도 계속되었다. 2020년 10월 취업자 수는 2,708만 8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2만 1천 명 감소했다. 3분기에는 전기 대비 실질 국내총생산이 회복세를 보였지만 취업자 수의 감소 폭은 9월과 10월에 더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다.

[그림 2-3] 취업자 수 변화 추이

(단위: 천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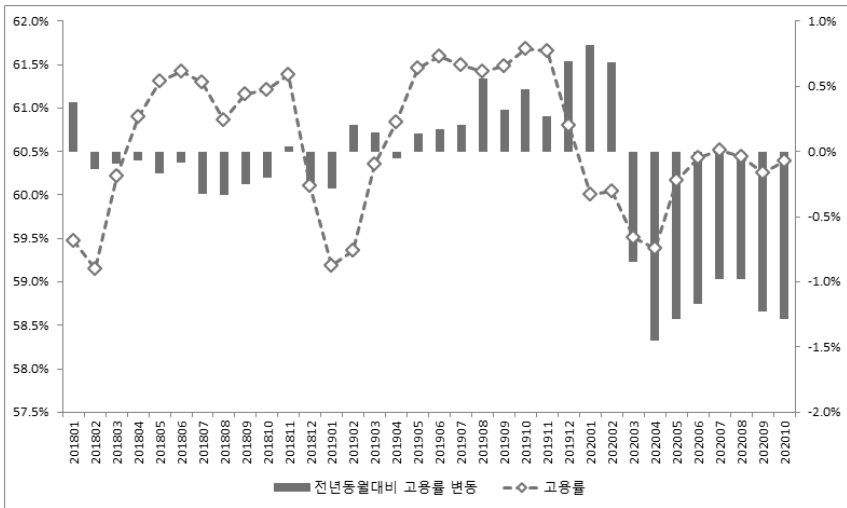
주: 취업자 수는 좌측 축,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수 변동은 우측 축 참조.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 수의 감소는 고용률 하락으로 이어졌다(그림 2-4 참조). 취업자 수가 감소하기 시작한 2020년 3월부터 고용률 역시 전년 동월 대비 낮아졌다. 2020년 3월 고용률은 59.5%로 전년 동월 대비 0.8%p 하락했다. 이후 취업자 감소세가 계속된 것과 마찬가지로 고용률도 2020년 10월까지 하락세가 지속되었다. 2020년 10월 고용률은 60.4%로 2019년 10월 고용률 61.7%에 비해 1.3%p 하락했다. 취업자 수 감소는 일자리 감소에서 비롯된 것으로 실업자와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로 이어졌다. 비경제활동인구는 2020년 들어 취업자 수가 감소세를 보이기 시작했던 3월부터, 실업자는 5월부터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하는 양상을 지속했다.

[그림 2-4] 고용률 변동 추이

(단위: %)



주: 고용률은 좌측 축, 전년 동월 대비 고용률 변동은 우측 축 참조.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표 2-4>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용 감소는 실증분석을 통해서도 확인한 것이다. 개인의 취업 여부를 종속변수로 한 프로빗(Probit) 분석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독립변수로는 개인의 취업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별, 가구주 여부, 배우자 유무, 연령대, 교육 수

준 등의 통제변수와 함께 코로나 확산 이후 취업자 수가 감소하기 시작한 2020년 3월부터 10월까지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기간을 변수로 모형에 포함했다.

〈표 2-4〉 코로나19 확산이 개인의 취업 여부에 미친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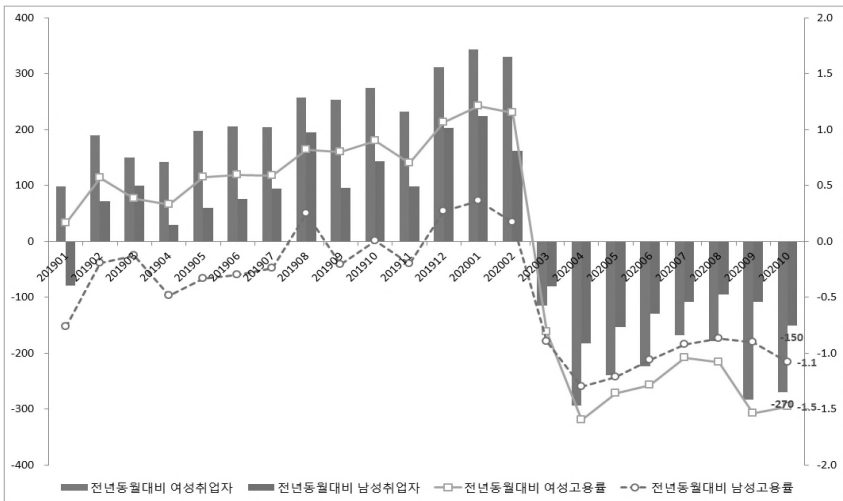
구 분	(1) 3월	(2) 4월	(3) 5월	(4) 6월	(5) 7월	(6) 8월	(7) 9월	(8) 10월
성별(남성=1)	0.230***	0.228***	0.229***	0.227***	0.222***	0.221***	0.221***	0.220***
가구주(가구주=1)	0.663***	0.649***	0.633***	0.634***	0.642***	0.640***	0.636***	0.638***
배우자 유무(유=1)	0.294***	0.307***	0.306***	0.309***	0.311***	0.303***	0.315***	0.311***
연령대	20세 미만	(기준)	(기준)	(기준)	(기준)	(기준)	(기준)	(기준)
	20세 이상 30세 미만	1.479***	1.514***	1.486***	1.497***	1.451***	1.454***	1.521***
	30세 이상 40세 미만	1.706***	1.740***	1.699***	1.721***	1.649***	1.647***	1.733***
	40세 이상 50세 미만	1.710***	1.744***	1.709***	1.727***	1.659***	1.667***	1.744***
	50세 이상 60세 미만	1.549***	1.598***	1.570***	1.592***	1.523***	1.532***	1.604***
	60세 이상	0.701***	0.755***	0.749***	0.767***	0.708***	0.724***	0.792***
	초등학교 졸업 이하	(기준)	(기준)	(기준)	(기준)	(기준)	(기준)	(기준)
	중학교 졸업	0.085***	0.050***	0.048***	0.053***	0.045***	0.041***	0.046***
교육 수준	고등학교 졸업	0.145***	0.098***	0.083***	0.077***	0.089***	0.092***	0.079***
	전문대 졸업	0.104***	0.052***	0.054***	0.048***	0.082***	0.083***	0.058***
	4년제 대학 졸업	0.211***	0.159***	0.148***	0.147***	0.168***	0.174***	0.161***
	석사 졸업	0.328***	0.269***	0.269***	0.251***	0.259***	0.262***	0.254***
	박사 졸업	0.778***	0.720***	0.690***	0.686***	0.656***	0.659***	0.650***
	코로나19 확산 기간 더미	-0.015**	-0.038***	-0.027***	-0.019***	-0.012*	-0.007	-0.015**
상수	-1.723***	-1.702***	-1.646***	-1.660***	-1.619***	-1.629***	-1.689***	-1.702***
표본 수	180,423	179,727	179,798	180,429	181,077	180,801	180,726	180,316

실증분석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같은 월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표 2-4>에서 (1) 3월의 분석 결과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2018년, 2019년, 2020년 3월 표본을 활용하여 분석한 것이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8월을 제외하면 코로나19 확산이 개인의 취업 여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 참가 여부를 종속변수로 했을 때도 비슷한 결과가 관측되었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성별, 연령 등 인적 속성에 대한 변수와 교육 수준 등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통제했을 때 코로나19 확산은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코로나19 확산이 국내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에 대해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바탕으로 성별을 구분해서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 상대적으로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더 많은 취업자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5 참조). 여성 취업자는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와 함께 고용이 감소하기 이전까지 남성보다 더 큰 폭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지만 2020년 3월부터 남성보다 더 큰 폭으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다.

[그림 2-5] 성별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수 및 고용률 변동 추이

(단위: 천 명, %)



주: 취업자 수는 좌측 축, 고용률은 우측 축 참조.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20년 들어 처음으로 취업자 수가 감소한 2020년 3월에 여성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11만 5천 명이 감소했고 남성 취업자는 8만 명이 감소했다. 3월 이후 계속된 취업자 감소 국면에서도 남성보다 여성 취업자가 더 큰 폭으로 감소하는 상황이 이어졌다. 2020년 10월 기준 남성 취업자 수는 1,545만 5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5만 명이 감소하였으며 여성 취업자 수는 1,163만 3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7만 명이 감소했다. 상대적으로 여성 취업자 수가 더 큰 폭으로 감소함에 따라 남성 취업자 대비 여성 취업자 비중은 2019년 10월 76.3%에서 2020년 10월 75.3%로 줄어들었다.

상대적으로 여성 취업자 수가 더 큰 폭으로 줄어들면서 여성 고용률 역시 큰 폭으로 하락하는 양상을 보였다.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가 처음으로 감소한 2020년 3월에는 남성 고용률이 여성 고용률에 비해 더 큰 폭으로 하락했다. 2020년 3월 남성 고용률과 여성 고용률은 각각 전년 동월 대비 0.9%p와 0.8%p가 하락했다. 하지만 4월부터는 여성 고용률 감소 폭이 더 커졌고 10월까지도 이와 같은 양상이 지속했다. 2020년 10월 기준 남성 고용률은 70.0%로 전년 동월 대비 1.1%p 하락했으며 여성 고용률은 51.1%로 전년 동월 대비 1.5%p 하락했다.

취업자의 변동 양상을 연령대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코로나19 확산은 저연령층 일자리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표 2-5〉 참조). 2020년 3월부터 10월까지 전년 동월 대비 평균 취업자 감소 규모가 가장 큰 연령대는 30세 이상 40세 미만 연령대였으며 그다음으로 40세 이상 50세 미만 연령대, 30세 이상 40세 미만 연령대, 50세 이상 60세 미만 연령대, 20세 미만 연령대 순서였다. 하지만 감소율로 보면 20세 미만 연령대가 가장 컸고 그다음으로 20세 이상 30세 미만 연령대, 30세 이상 40세 미만 연령대 순서였다. 취업자 규모를 고려했을 때 저연령대 취업자의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없어진 것이다.

다른 연령대의 취업자는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지만 60세 이상 취업자는 2020년 3월 이후에도 지속해서 증가했다. 증가율로 보면 코로나19 확산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2020년 1월과 2월과 비교해 전체 취업자 수가 감소세를 보인 3월부터 10월까지 증가 속도는 다소 둔해졌지만 꾸준히 증가세를 이어갔다.

<표 2-5> 2020년 연령대별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변동

(단위: 천 명, %)

구분	전체	20세 미만	20세 이상 30세 미만	30세 이상 40세 미만	40세 이상 50세 미만	50세 이상 60세 미만	60세 이상	
취업자 변동	1월	568	3	63	18	-84	62	507
	2월	492	-25	-25	19	-104	57	570
	3월	-195	-53	-176	-108	-120	-75	336
	4월	-476	-87	-159	-172	-189	-143	274
	5월	-392	-49	-134	-183	-187	-140	302
	6월	-352	-19	-151	-195	-180	-145	338
	7월	-277	-30	-165	-170	-164	-126	379
	8월	-274	-33	-139	-230	-182	-74	384
	9월	-392	-20	-198	-284	-175	-133	419
	10월	-421	-40	-210	-240	-192	-114	375
취업률	1월	2.1%	1.3%	1.7%	0.3%	-1.3%	1.0%	11.3%
	2월	1.8%	-12.8%	-0.7%	0.4%	-1.6%	0.9%	12.1%
	3월	-0.7%	-35.5%	-5.0%	-2.0%	-1.9%	-1.2%	6.9%
	4월	-1.8%	-67.1%	-4.5%	-3.2%	-3.0%	-2.3%	5.5%
	5월	-1.5%	-29.5%	-3.7%	-3.4%	-3.0%	-2.2%	5.9%
	6월	-1.3%	-11.1%	-4.2%	-3.6%	-2.8%	-2.3%	6.5%
	7월	-1.0%	-16.9%	-4.6%	-3.2%	-2.6%	-2.0%	7.2%
	8월	-1.0%	-19.4%	-3.8%	-4.3%	-2.9%	-1.2%	7.3%
	9월	-1.5%	-13.2%	-5.5%	-5.4%	-2.8%	-2.1%	7.8%
	10월	-1.6%	-27.9%	-5.8%	-4.5%	-3.0%	-1.8%	7.0%

주: 취업자 수 변동은 천 명 단위, 취업자 변동률은 %p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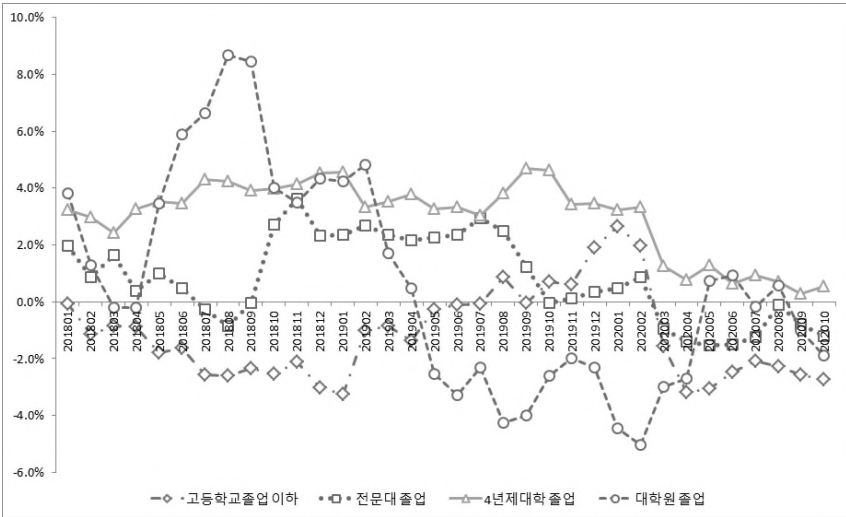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교육 수준별로 보면 고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 취업자와 전문대 졸업 취업자가 크게 줄어들었다. [그림 2-6]에 따르면 고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 취업자는 2020년 3월부터 10월까지 전년 동월 대비 감소세를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졸업 학력, 중학교 졸업 학력, 고등학교 졸업 학력 취업자 모두 3월부터 10월까지 계속해서 지난해보다 취업자 수가 감소하였다. 전문대 졸업

학력 취업자도 마찬가지이다. 2020년 1월과 2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가 증가했으나 3월부터 취업자가 전년 동월 대비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그림 2-6] 교육 수준별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변동률 추이

(단위: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4년제 대학 졸업 취업자는 감소하지 않았다. 4년제 대학 졸업 취업자 수는 증가율이 하락했지만 증가세를 지속했다. 대학원 졸업 취업자의 경우 감소세와 증가세를 반복했다. 3월, 4월, 7월, 9월, 10월은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수가 감소했으나 5월과 6월, 8월은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수가 증가했다. 3월부터 10월까지 전체적으로 보면 전년 동기 대비 대학원 졸업 취업자가 소폭 감소하였으나 고등학교 졸업 취업자나 전문대 졸업 취업자에 비해 감소 규모는 매우 작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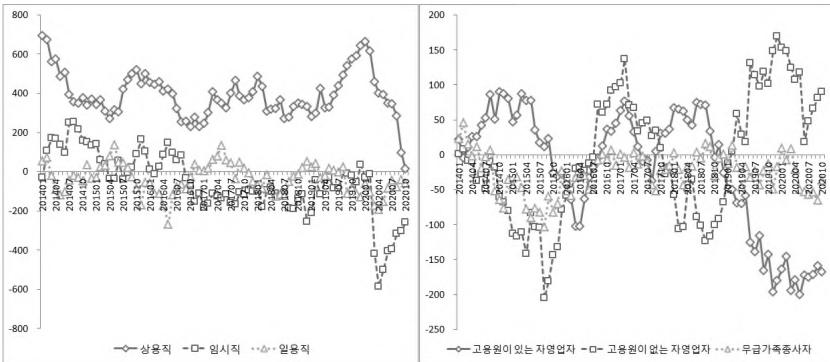
상대적으로 교육 수준이 낮은 취업자가 노동시장에서 감소하는 것은 코로나19의 영향만은 아니다. 다양한 원인이 존재하며 초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 취업자와 중학교 졸업 학력 취업자는 2020년 이전부터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하지만 2020년 취업자 수 변화 양상을 보았을 때 고학력 취업자보다는

저학력 취업자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실직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임금근로자 중에서 상용직 취업자는 증가했지만, 임시직과 일용직 취업자는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취업자 수가 감소한 2020년 3월부터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가 감소했다(그림 2-7 참조). 임시직 취업자의 경우 2020년 이전부터 취업자 수가 감소세를 지속했는데 2020년 3월 이후 감소 폭이 더욱 확대되었다. 2020년 1월과 2월 전년 동월 대비 각각 3만 2천 명, 1만 3천 명이 감소했지만 3월 들어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감소 폭은 42만 명으로 확대되었으며 4월에는 58만 7천 명으로 증가했다. 2020년 10월에도 3월과 4월에 비하면 감소 폭이 줄었지만 전년 동월 대비 26만 1천 명 감소해 다른 종사상 지위의 취업자에 비해 여전히 감소 폭이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임시직 취업자도 2020년 이전부터 이어졌던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감소세가 이어졌다.

[그림 2-7] 종사상 지위별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변동

(단위: 천 명)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비임금근로자 중에서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감소했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2020년 이전부터 감소세를 지속했다. 하지만 2020년 3월 이후 감소 폭이 이전과 비교해 더 커졌다. 반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2020년 3월부터 10월까지 고용원이 없는 자

영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증가세를 지속했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감소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증가가 독립적으로 진행되었을 수도 있지만,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경기 침체로 고용원을 줄임으로써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되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상용직 취업자는 2020년 3월 이후에도 증가세를 유지한다. 상용직 취업자는 2020년 이전부터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코로나19 확산이 노동시장에 충격을 주고 그 영향으로 다른 종사상 지위의 일자리는 전년 동월 대비 감소했다. 그러나 상용직 취업자는 증가 폭이 이전보다 줄어들었지만 증가세는 지속했다. 2020년 상용직 취업자는 1월에 전년 동월 대비 66만 4천 명, 2월에는 61만 6천 명이 증가했으며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전체 취업자가 감소한 2020년 3월과 4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각각 45만 9천 명과 40만 명이 증가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영향이 장기화하면서 증가 폭은 점차 축소되었는데 2020년 10월 상용직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1만 4천 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상대적으로 소규모 사업체의 취업자가 코로나19로 인한 노동시장 충격에 더 취약했던 것으로 보인다(〈표 2-6〉 참조). 취업자 감소 규모가 가장 큰 곳은 5인 미만 사업체로 2020년 1월과 2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28만 8천 명과 21만 4천 명이 증가했으나 3월 이후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수 감소세가 계속된다. 취업자 감소율이 가장 큰 곳은 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체이다. 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체의 취업자는 2020년 3월 이후 전년 동월 대비 16만 명이 줄어 4.1% 이상의 감소세가 지속되었다.

<표 2-6> 2020년 사업체 규모별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변동

(단위: 천 명, %)

구분		전체	5인 미만	5인 이상 10인 미만	10인 이상 30인 미만	30인 이상 100인 미만	100인 이상 300인 미만	300인 이상
취업자 변동	1월	568	288	-53	132	119	-63	146
	2월	492	214	-117	200	104	-60	151
	3월	-195	-90	-210	52	63	-95	85
	4월	-476	-290	-226	8	29	-60	63
	5월	-392	-314	-238	49	88	-48	71
	6월	-352	-355	-162	69	102	-58	51
	7월	-277	-222	-222	29	86	-3	56
	8월	-274	-240	-181	18	100	-9	39
	9월	-392	-226	-198	-12	40	-40	44
	10월	-421	-203	-210	-39	-12	-16	59
취업자 변동률	1월	2.1%	3.1%	-1.4%	2.9%	3.1%	-3.1%	5.9%
	2월	1.8%	2.3%	-3.0%	4.4%	2.6%	-2.9%	6.1%
	3월	-0.7%	-0.9%	-5.3%	1.1%	1.6%	-4.7%	3.4%
	4월	-1.8%	-2.9%	-5.7%	0.2%	0.7%	-3.0%	2.5%
	5월	-1.5%	-3.1%	-5.9%	1.0%	2.3%	-2.4%	2.7%
	6월	-1.3%	-3.5%	-4.1%	1.5%	2.6%	-2.9%	2.0%
	7월	-1.0%	-2.2%	-5.5%	0.6%	2.2%	-0.1%	2.1%
	8월	-1.0%	-2.4%	-4.5%	0.4%	2.6%	-0.5%	1.5%
	9월	-1.5%	-2.2%	-4.9%	-0.3%	1.0%	-2.0%	1.7%
	10월	-1.6%	-2.0%	-5.2%	-0.8%	-0.3%	-0.8%	2.2%

주: 취업자 수 변동은 천 명 단위, 취업자 변동률은 %p 단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 개정 기준 대분류 산업별로 보면 농업, 임업 및 어업(A),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D),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E), 운수 및 창고업(H), 사업 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N),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O),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R) 등의 산업에서는 취업자가 증가했다. 반면 광업(B), 제조업(C), 건설업(F), 도매 및 소매업(G), 숙박 및 음식점

업(I), 정보 통신업(J), 금융 및 보험업(K), 부동산업(L), 교육 서비스업(P),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S) 등의 산업에서는 취업자가 감소했다 (<표 2-7> 참조).

2020년 3월부터 10월까지 전년 동월 대비 가장 많은 취업자가 감소한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이다. 숙박 및 음식점업의 취업자 수는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이전까지 증가세를 보였다. 2018년에는 전년 동월 대비 감소세를 보였으나 2019년 2월 이후부터 2020년 2월까지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증가세가 계속되었다. 숙박 및 음식점업 취업자 수는 2020년 1월과 2월에 각각 전년 동월 대비 8만 6천 명과 1만 4천 명 증가했다. 하지만 3월 들어 전년 동월 대비 10만 9천 명이 감소했으며 4월에는 21만 1천 명으로 감소 폭이 크게 확대되었다.

숙박 및 음식점업의 취업자 수 감소세는 4월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5월부터 10월까지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수가 다른 산업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했다. 2020년 10월 현재 숙박 및 음식점업 취업자 수는 207만 5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2만 7천 명이 줄어들어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기준 산업 중 취업자가 가장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숙박 및 음식점업의 취업자 감소세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여행, 외식 등과 관련된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많이 감소한 데 따른 결과로 보인다. 남성 취업자도 감소세를 보이지만 고용이 불안정한 여성 일자리의 경우 더 큰 실직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020년 3월부터 10월까지 숙박 및 음식점업 다음으로 취업자 감소 폭이 큰 산업은 도매 및 소매업이다. 숙박 및 음식점업과 마찬가지로 도매 및 소매업 역시 3월 이후 취업자 감소세가 계속되었다. 도매 및 소매업에서는 3월부터 10월까지 전년 동월 대비 평균 16만 9천 명의 취업자가 감소했다. 2020년 10월 기준 도매 및 소매업 취업자 수는 344만 5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8만 8천 명이 감소했다.

2020년 3월 이후 지속되고 있는 도매 및 소매업 취업자 수 감소에는 코로나19 확산 외에도 온라인 거래의 확산, 대형 유통업체와 프랜차이즈 유통업체 관련 산업 구조조정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도매 및 소매업 취업자 수는 이와 같은 요인의 영향으로 숙박 및 음식점업과 달리 2020년 3월 이전부터 감소세를 보였다. 2018년과 2019년에 도매 및 소매업 취

업자 수는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2020년 1월과 2월에도 전년 동월 대비 9만 4천 명과 10만 6천 명이 감소했다. 3월 들어 취업자 감소 폭이 확대된 데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면 판매 서비스의 수요 부진이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코로나19 확산은 교육 서비스업의 고용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교육 서비스업 역시 2020년 3월부터 10월까지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감소가 계속된 산업이다. 교육 서비스업 취업자는 2019년 내내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런 교육 서비스업 취업자 수 증가세는 2020년 1월까지 계속되었다. 하지만 2020년 2월 들어 전년 동월 대비 1만 명 감소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전체 취업자가 감소했던 3월에는 취업자 감소 폭이 전년 동월 대비 10만 명으로 확대되었다.

전체 취업자의 감소 폭이 전년 동월 대비 47만 6천 명으로 확대되었던 4월에는 교육 서비스업의 취업자도 감소 폭이 확대되었다. 2020년 4월 교육 서비스업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13만 명이 줄어들었다. 이후 5월부터 8월까지 취업자 감소 폭이 10만 명 미만으로 축소되었지만 9월과 10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15만 1천 명과 10만 5천 명이 감소하면서 취업자 감소 폭이 다시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다. 교육 서비스업 역시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비대면,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증가했지만 대면 서비스에 대한 수요 감소가 취업자 감소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제조업도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취업자가 감소세를 보인 산업이다. 2020년 1월과 2월에 제조업의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8천 명과 3만 4천 명 증가했다. 그러나 3월에 전년 동월 대비 2만 4천 명이 감소했으며 4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4만 4천 명이 감소해 감소 폭이 더 커졌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변동을 참고했을 때 자동차 업종을 중심으로 취업자 수가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제조업의 취업자 수 감소세는 10월까지 계속되었다. 전체 취업자 수는 4월 이후 감소세가 약화되었다가 9월과 10월에 다시 감소 폭이 확대된 데 비해 제조업의 취업자 수는 6월까지 취업자 감소 규모가 전년 동월 대비 6만 5천 명 수준으로 증가했다가 7월과 8월에 들어서야 감소 폭이 축소되는 양상이 관측되었다. 그리고 9월과 10월에는 다시 감소 폭이 증가했는데 2020년 10월 제조

업의 취업자 수는 433만 6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9만 8천 명 감소했다.

제조업의 취업자 감소에는 코로나19 확산과 장기화에 따른 제조업 실질 국내총생산이 감소한 영향도 있을 것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제조업의 실질 국내총생산은 계절조정계열 기준으로 1분기에는 전기 대비 3.0%, 2분기에는 10.5% 감소했다. 3분기에는 전기 대비 7.9% 증가했지만 전년 동기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 제조업은 국제노동기구(ILO, 2020)의 분석 결과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생산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큰 산업으로 분류되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한 제조업 생산물 시장의 경기 침체가 제조업의 생산 및 고용 감소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동차 업종이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전자 및 반도체 관련 산업, 기계 업종 등은 취업자가 늘어났지만 증가세는 둔화 양상을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부동산업의 취업자 수도 감소했다. 2020년 1월과 2월에 전년 동월 대비 3만 3천 명과 2만 5천 명이 증가했던 부동산 취업자 수는 3월 들어 소폭 감소하였으며, 4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3만 7천 명 수준으로 감소 폭이 확대되었다. 부동산업의 취업자 수 감소세는 10월까지 계속되었는데 5월에 전년 동월 대비 3만 2천 명이 감소하면서 4월 대비 취업자 감소 폭이 줄어들었으나 6월부터 다시 감소 폭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2020년 10월 부동산업 취업자 수는 50만 4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7만 2천 명이 감소했다. 부동산업 취업자 수 감소에는 정부 정책, 부동산 가격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면 서비스의 수요 감소도 그 요인 중 하나였을 것으로 사료된다.

평균 취업자 수 변동을 보면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의 취업자는 2020년 3월부터 10월까지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전체 취업자가 감소한 3월에도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취업자 수가 증가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영향이 장기화되면서 7월부터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가 감소하기 시작했다. 2020년 7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1천 명이 감소했으며 이후 감소 폭은 점차 커져 10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3만 7천 명의 취업자가 감소했다.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취업자 감소에는 다른 요인도 있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문화, 예술, 공연, 스포츠 관련 서비스 수요가 감소한 것이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전체 취업자 수가 감소하는 중에도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취업자 수가 증가했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취업자 수는 2020년 3월 전체 취업자 수가 감소세로 전환되었음에도 전년 동월 대비 8만 2천 명 증가했으며, 4월에도 전년 동월 대비 7만 7천 명이 증가했다. 이후 코로나19 확산에도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수 증가세를 지속했다. 2020년 10월에도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취업자 수는 240만 5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만 5천 명 증가했다.

운수 및 창고업도 취업자 수 증가세를 유지했다. 2020년 3월 운수 및 창고업 취업자 수는 148만 1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7만 1천 명 증가했다. 각각 전년 동월 대비 9만 2천 명, 9만 9천 명 증가한 1월과 2월에 비하면 취업자 증가 폭이 축소되었지만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와 함께 전체 취업자 수가 감소하는 가운데에도 취업자 수 증가세를 유지한 것이다. 전체 취업자 수 감소 폭이 커진 4월에도 운수 및 창고업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3만 3천 명 증가했다.

운수 및 창고업의 취업자 수는 4월 이후 증가 폭이 회복되는 양상을 보였다. 4월부터 8월까지 매월 전년 동월 대비 5만 명 이상의 취업자가 증가했다. 하지만 9월과 10월에는 상대적으로 취업자 증가 폭이 축소되었는데 9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2만 3천 명, 10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2만 8천 명의 취업자가 증가하는 데 그쳤다. 운수 및 창고업의 취업자가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인 데에는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여객 관련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감소했지만 화물, 택배, 배송 관련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관련 일자리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표 2-7〉 2020년 산업별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수 변동

(단위 : 천 명)

구분	취업자 수								전년 동월 대비 증감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A	1,399	1,479	1,551	1,572	1,559	1,536	1,549	1,574	134	73	54	52	36	-3	-3	23
B	16	15	13	13	11	11	11	10	1	0	-1	-1	-3	-2	-3	-4
C	4,423	4,377	4,377	4,351	4,337	4,365	4,335	4,336	-23	-44	-57	-65	-53	-50	-68	-98
D	72	65	72	72	74	73	78	75	5	-2	6	3	5	2	9	5
E	145	149	149	154	154	154	155	156	21	21	13	19	18	15	20	16
F	1,960	1,934	1,979	1,995	2,029	2,025	2,076	2,075	-20	-59	-61	-61	-23	-6	55	37
G	3,527	3,536	3,520	3,505	3,530	3,456	3,448	3,445	-168	-123	-189	-176	-127	-176	-207	-188
H	1,481	1,457	1,466	1,478	1,475	1,473	1,452	1,468	71	33	50	50	58	56	23	28
I	2,135	2,077	2,136	2,148	2,152	2,163	2,067	2,075	-109	-211	-183	-185	-225	-169	-225	-227
J	846	852	864	859	851	843	833	826	-19	-7	10	-10	-7	-5	-14	-33
K	772	783	781	776	767	770	789	777	-20	-11	-11	-23	-29	-28	-20	-23
L	532	525	520	512	508	510	501	504	0	-37	-32	-54	-57	-61	-73	-72
M	1,131	1,144	1,151	1,147	1,161	1,160	1,168	1,173	-27	19	12	6	17	0	-18	-9
N	1,315	1,317	1,311	1,323	1,339	1,362	1,373	1,402	20	17	-17	9	44	32	48	62
O	1,045	1,077	1,089	1,096	1,093	1,134	1,183	1,220	-61	-40	-28	4	11	55	106	123
P	1,770	1,759	1,814	1,829	1,831	1,793	1,768	1,772	-100	-130	-70	-89	-89	-89	-151	-103
Q	2,260	2,267	2,332	2,387	2,399	2,420	2,414	2,405	82	77	131	164	161	160	135	105
R	474	483	511	512	507	515	506	491	9	11	28	29	-1	-11	-14	-37
S	1,202	1,160	1,182	1,207	1,204	1,194	1,182	1,182	-32	-99	-86	-60	-36	-25	-12	-31
T	88	89	95	101	105	108	107	105	37	30	31	29	19	22	16	5
U	15	16	19	18	18	19	18	16	4	5	7	6	4	9	6	1

주: A 농업, 임업 및 어업, B 광업, C 제조업, D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E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F 건설업, G 도매 및 소매업, H 운수 및 창고업, I 숙박 및 음식점업, J 정보 통신업, K 금융 및 보험업, L 부동산업,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N 사업 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O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P 교육 서비스업,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T 가구 내 고용 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 활동, U 국제 및 외국기관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직업별로 보면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단순 노무 종사자와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를 제외한 모든 직업에서 취업자 수가 감소했다(〈표 2-8〉 참조). 단순 노무 종사자는 3월 이후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직업 중 가장 많은 취업자가 증가했다. 단순 노무 종사자 역시 코로나19 확산으로 취업자 수가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취업자 증가세가 둔화하였다. 2020년 1월과 2월에 전년 동월 대비 18만 8천 명과 21만 4천 명이 증가했던 단순 노무 종사자는 3월 들어 증가 규모가 3만 6천 명으로 감소했으며, 전체 취업자 감소 폭이 47만 6천 명 수준으로 대폭 늘어난 4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2만 8천 명이 감소했다. 하지만 이후 취업자 증가세를 회복해 5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5만 1천 명이 증가했다. 5월 이후에도 단순 노무 종사자 수는 증가세를 지속했는데 전체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42만 1천 명 감소한 10월에도 단순 노무 종사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29만 7천 명 증가했다.

〈표 2-8〉 2020년 직업별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수 변동

(단위 : 천 명)

구분	취업자 수									전년 동월 대비 증감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A	381	394	401	394	392	393	405	406	-41	-24	-24	-25	-21	-4	2	8	
B	5,454	5,413	5,496	5,498	5,493	5,480	5,446	5,436	-83	-114	-46	-55	-65	-49	-170	-175	
C	4,663	4,688	4,666	4,698	4,680	4,662	4,649	4,665	-45	-25	-63	-52	-56	-125	-134	-112	
D	3,041	2,981	3,044	3,086	3,069	3,044	2,976	3,003	-11	-110	-82	-64	-97	-96	-136	-141	
E	2,894	2,904	2,924	2,910	2,924	2,878	2,849	2,818	-163	-132	-118	-122	-90	-138	-172	-201	
F	1,349	1,428	1,475	1,494	1,497	1,474	1,482	1,496	144	83	59	53	37	-7	-5	12	
G	2,335	2,285	2,276	2,295	2,295	2,340	2,360	2,386	-21	-91	-117	-96	-85	-36	-12	-1	
H	2,999	2,976	2,965	2,939	2,931	2,937	2,918	2,912	-12	-36	-52	-97	-110	-111	-118	-108	
I	3,495	3,494	3,683	3,740	3,825	3,876	3,926	3,965	36	-28	51	105	209	293	354	297	

주: A 관리자, B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C 사무 종사자, D 서비스 종사자, E 판매 종사자, F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G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H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I 단순 노무 종사자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역시 3월 이후 취업자가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는 전체 취업자가 감소하기 시작한 2020년 3월에 1월과 2월에 비하면 오히려 취업자가 더 많이 증가했으며 4월에도 전년 동월 대비 8만 3천 명이 증가했다. 하지만 4월 이후 취업자 증가세가 둔화하기 시작했는데 8월과 9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가 소폭 감소했으며 10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1만 2천 명 증가하면서 다른 직업과는 구별되는 취업자 변동 양상을 보였다.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는 모두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취업자가 감소세를 지속했다. 3월에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가 감소했으며 10월까지 감소세가 이어졌다. 다만 직업에 따라 취업자 수 변동 양상은 차이를 보였다.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와 서비스 종사자 등은 4월에 취업자가 전년 동월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한 후 감소세가 둔화되다가 9월과 10월 들어 다시 감소 폭이 확대되었다. 사무 종사자와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는 3월 이후 취업자 감소세가 더욱 심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또한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는 3월에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가 감소한 이후 5월까지 감소 폭이 확대되었으나 이후 감소 폭이 점차 줄어들어 10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1천 명 감소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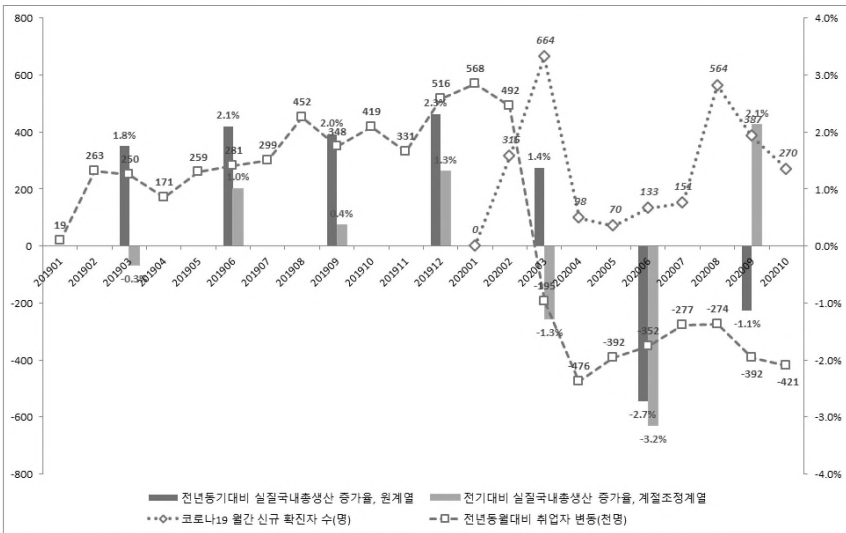
이상의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은 실질 국내총생산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2020년 실질 국내총생산은 2019년 대비 감소하였으며 취업자 수도 전년 동월 대비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그림 2-8] 참조). 또한 코로나19 확산은 노동시장 내 고용이 불안정한 취업자에게 상대적으로 충격이 더 컸던 것으로 판단된다. 2020년 3월 이후 여성과 청년층 취업자의 감소가 컸으며 소규모 사업체 취업자와 임금근로자 중에서는 임시직과 일용직이 크게 감소했다. 하지만 최근 고용 변화 양상을 보았을 때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상용직처럼 상대적으로 고용이 안정적인 취업자도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기준 산업별로는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등 서비스업 취업자가 많이 줄어들었으며 제조업 역시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취업자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운수 및 창

고업,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취업자는 코로나19 확산에도 증가했다.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기준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는 코로나19 확산에도 증가했지만 다른 직업의 취업자는 2020년 3월 이후 취업자가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림 2-8]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생산 및 취업자 변동 추이

(단위: 명, %)



주: 취업자 변동 및 확진자 수는 좌측 축, 실질 국내총생산 증가율은 우측 축 참조.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코로나19 통계」; 한국은행

제4절 코로나19 확산이 노동시장 임금 분배 구조에 미친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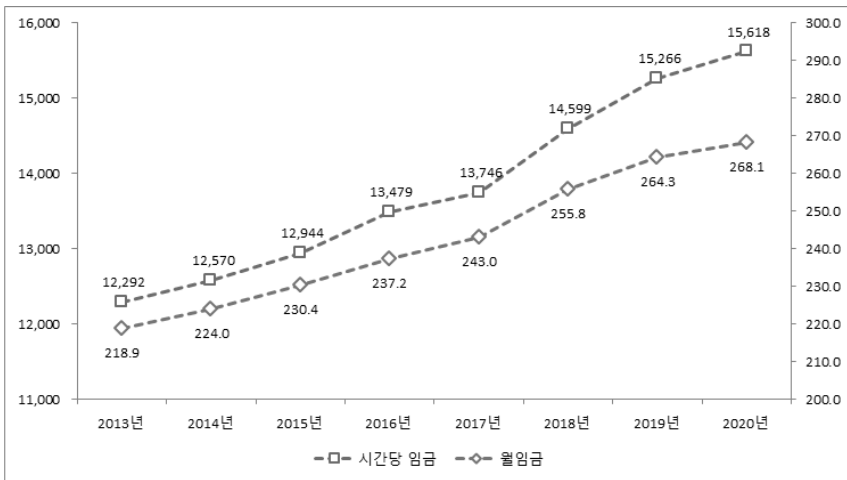
코로나19 확산은 노동시장의 양적 측면에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의 질적 측면에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기 하강은 일자리를 줄여 실업을 유발하는 동시에 노동시장 내 임금근로자의 임금 분배 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절에서는 통계청

의 「경제활동인구조사」 8월 근로 형태별 부가조사 자료를 활용해 코로나19가 확산된 2020년 노동시장에서의 임금 분배 구조 변화를 살펴본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8월 근로 형태별 부가조사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에도 전체 임금근로자의 평균 월 임금은 268만 1천 원으로 2019년에 비해 1.4% 상승했다. 월 임금과 주당 근로시간을 이용해 구한 시간당 임금 역시 증가했다⁴⁾. 2020년 8월 임금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15,618원으로 2019년 15,266원 대비 2.3% 상승했다.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전체 고용이 감소했지만 임금이 상승한 데에는 임금근로자 중 상대적으로 저임금 근로자가 코로나19 확산의 충격으로 일자리를 잃었기 때문일 수 있다.

[그림 2-9] 임금근로자 월 임금(만 원) 및 시간당 임금(원) 추이

(단위: 만 원, 원)



주: 시간당 임금은 좌측 축, 월 임금은 우측 축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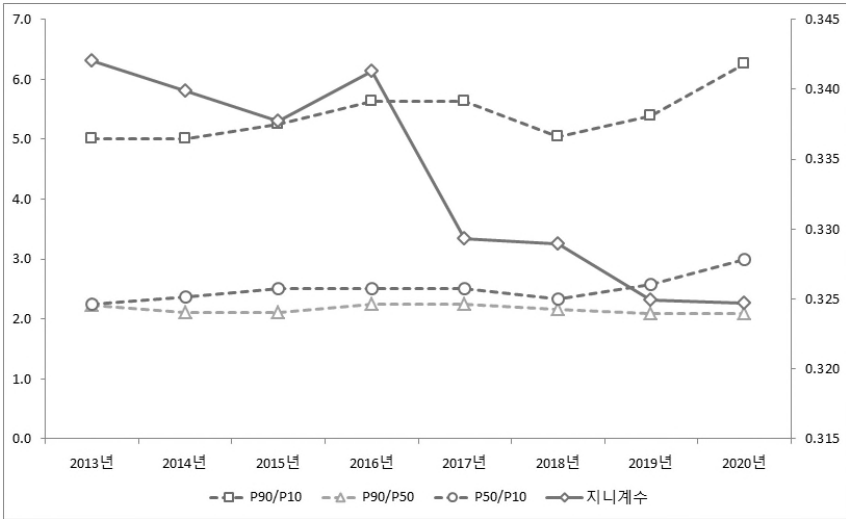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8월 근로 형태별 부가조사

월 임금을 기준으로 지니계수, 임금 10분위 대비 90분위 배율(P90/P10), 50분위 대비 90분위 배율(P90/P50), 10분위 대비 50분위 배율(P50/P10)을 각각 구해보면 전체적인 소득 불평등도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상대적으로 저임

4) 주당 근로시간을 일당 근로시간, 연간 근로시간, 월간 근로시간 순으로 환산. 월 임금을 월간 노동시장으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 추산.

금 근로자의 임금 수준은 하락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10]은 「경제활동인구조사」 8월 근로 형태별 부가조사 연도별 자료의 월 임금 정보를 이용해 지니계수, P90/P10, P90/P50, P50/P10을 구한 것이다.

[그림 2-10] 월 임금 기준 지니계수, P90/P10, P90/P50, P50/P10



주: P90/P10, P90/P50, P50/P10은 좌측 축, 지니계수는 우측 축 참조.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8월 근로 형태별 부가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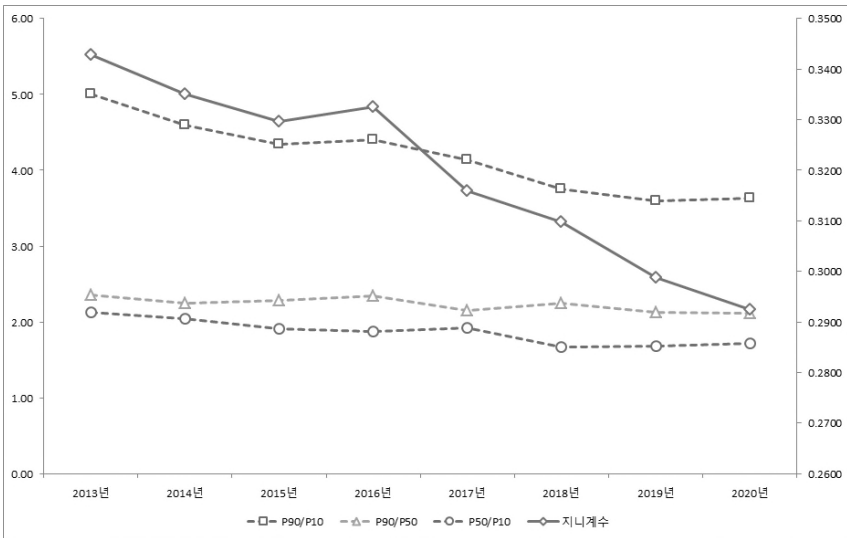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0년 지니계수는 2019년에 비해 소폭 하락해 임금 분배 구조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월 임금 기준 지니계수는 2013년 이후 2016년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양상을 지속했다.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에도 지니계수는 전년 대비 0.0040 감소하면서 임금 불평등 수준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에도 지니계수는 전년 대비 0.0003 줄어들었다. 하지만 2019년과 비교해 임금 불평등 개선 수준은 현저히 줄어들었다.

전반적인 임금 불평등 수준은 소폭 개선되었지만 고임금층과 저임금층 간 임금 격차는 확대되었다. 임금 10분위 대비 90분위 배율은 2019년 5.4에서 2020년 6.3으로 상승했다. 2019년과 비교해 50분위 대비 90분위 배율은 줄어들었지만 10분위 대비 50분위 배율이 크게 증가해 저임금층 근로자의 임금 수준

이 상대적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2020년 들어 전년 대비 90분위와 50분위 임금근로자의 월 임금은 증가한 반면, 10분위 임금근로자의 월 임금은 오히려 감소했다. 2020년 들어 관측되는 국내 노동시장 임금 분배 구조에서의 이와 같은 변화는 코로나19 확산이 저임금층 근로자에게 더 큰 충격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시간당 임금으로 보았을 때 역시 전반적인 임금 불평등 수준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11]은 시간당 임금을 기준으로 지니계수, 임금 10분위 대비 90분위 배율(P90/P10), 50분위 대비 90분위 배율(P90/P50), 10분위 대비 50분위 배율(P50/P10)을 각각 분석한 것이다.

[그림 2-11] 시간당 임금 기준 지니계수, P90/P10, P90/P50, P50/P10



주: P90/P10, P90/P50, P50/P10은 좌측 축, 지니계수는 우측 축 참조.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8월 근로 형태별 부가조사

이에 따르면 전반적인 임금 불평등 수준은 월 임금을 기준으로 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2020년에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당 임금 기준 2020년 지니계수는 0.2925로 2019년 대비 0.0064 줄어들었지만 2019년 전년 대비 감소 폭인 0.0109에는 미치지 못했다. 하지만 시간당 임금을 기준으로 했을 때도 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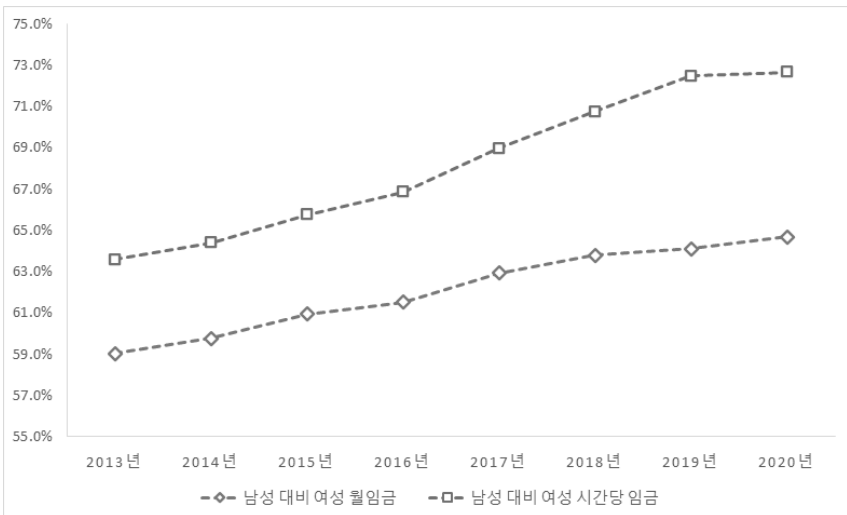
임금층과 저임금층 간 임금 격차가 확대되었다. 분위별 시간당 임금을 비교해 보면 10분위 대비 90분위 배율, 10분위 대비 50분위 배율은 증가하였고 50분위 대비 90분위 배율은 감소해 상대적으로 낮은 저임금층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 상승이 임금 격차의 원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월 임금 기준 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확산이 저임금층 임금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임금 10분위에 해당하는 저임금층 근로자의 월 임금 감소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근로시간 감소의 영향일 수 있음을 나타낸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기 하강 국면에서 저임금층 근로자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근로시간이 줄어들면서 시간당 임금은 증가했지만 월 임금은 2019년에 비해 하락했을 가능성이 있다.

노동시장 내 남성과 여성 임금근로자 간 임금 격차는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12]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8월 근로 형태별 부가조사 자료를 이용해 남성 임금근로자와 여성 임금근로자의 월 임금, 시간당 임금 평균을 비교한 것이다.

[그림 2-12] 남성 대비 여성 임금근로자 임금 수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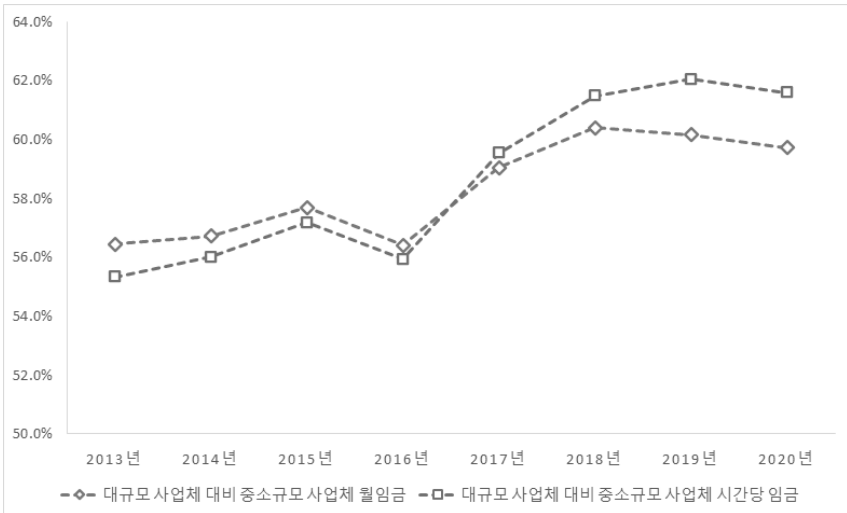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8월 근로 형태별 부가조사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0년 코로나19 확산 국면에서 남성 대비 여성 임금 근로자의 월 임금은 64.7%로 전년 대비 0.6%p 증가했고 시간당 임금은 72.7%로 0.2%p 증가해 성별 임금 격차가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확산 국면에서도 성별 간 임금 격차는 완화 양상이 이어진 것이다. 다만 이와 같은 성별 임금 격차의 축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여성 임금근로자의 다수가 일자리를 잃었기 때문일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이정아(2020), 전기택·배진경(2020)의 분석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코로나19 확산 국면에서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은 일자리를 잃었는데 상대적으로 저임금 여성 임금근로자가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노동시장을 많이 떠난 것도 성별 임금 격차를 줄어들게 만든 요인일 수 있다.

300인 미만 중소기업과 대규모 기업 임금근로자의 임금 격차는 증가했다. [그림 2-13]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8월 근로 형태별 부가조사 자료를 이용해 300인 이상 대규모 기업 임금근로자와 300인 미만 중소기업 임금근로자의 월 임금과 시간당 임금 평균을 분석한 것이다.

[그림 2-13] 대규모 기업 대비 중소기업 임금근로자 임금 수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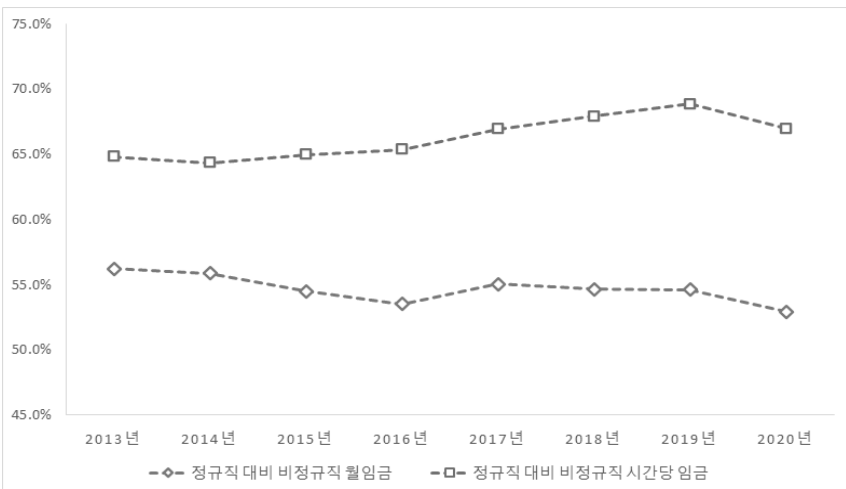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8월 근로 형태별 부가조사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0년 대규모 사업체 대비 중소기업 임금근로자의 월 임금은 59.7%로 2019년 대비 0.4%p 감소했고 시간당 임금은 61.6%로 0.5%p 줄어들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이 중소기업의 고용 규모뿐만 아니라 질적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수 있음을 나타낸다. 앞서 3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코로나19 확산은 소규모 사업체의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대규모 사업체와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를 증가시켰기 때문이다. 대규모 사업체와 마찬가지로 중소기업의 임금근로자 역시 2019년 대비 월 임금, 시간당 임금이 증가했으나 대규모 사업체 대비 증가 폭은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8월 근로 형태별 부가조사 자료에 따르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임금 격차 역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14]는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근로자의 월 임금과 시간당 임금 수준을 추산한 것이다. 이때 비정규직은 고용 형태를 기준으로 한시적 근로자 또는 기간제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및 비전형 근로자로 정의된다.

[그림 2-14] 대규모 사업체 대비 중소기업 임금근로자 임금 수준

(단위: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8월 근로 형태별 부가조사

이에 따르면 2020년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 임금은 52.9% 수준으로 전년 대비 1.7%p 줄어들었으며 시간당 임금은 67.0%로 전년 대비 1.9%p 감소했다. 시간당 임금으로 보면 2018년까지 줄어들었던 격차가 2019년에 이어 2020년에도 크게 확대되었으며 월 임금으로 보면 2014년 이후 감소세를 보였던 격차가 2020년 들어 증대된 것이다. 상대적으로 고용이 취약하며 종사상 지위가 임시직과 일용직의 비중이 큰 비정규직 일자리의 특성을 고려하면 코로나19 확산 기간 비정규직 근로자 중 상당수는 고용 불안과 함께 임금 감소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5절 소결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국내 노동시장에서는 2010년 1월 이후 지속되었던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증가세가 감소세로 전환되는 큰 변화가 관측되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에 따르면 2020년 3월 국내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19만 5천 명이 감소했으며, 이후에도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와 함께 취업자 감소세가 이어졌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생산 수요 감소가 노동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내 노동시장에서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인구 특성별로는 여성과 청년층 취업자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종사상 지위별로는 상용직에 비해 임시직과 일용직 취업자가, 사업체 규모별로는 소규모 사업체의 취업자가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더 많이 감소했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상대적으로 고용 취약계층, 또는 고용 안정성이 약한 일자리에 종사하는 취업자가 코로나19 확산으로 더 큰 충격을 받았음을 보여준다. 또한 동시에 코로나19 확산세가 장기화될 경우 고용이 안정적인 일자리에 종사하는 취업자 역시 실직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질 것임을 가리킨다. 상용직 취업자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에도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 증가 폭이 점차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는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숙박 및 음식점업의 취업자가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으며 도매 및 소매업, 교육 서비스업 등도 큰 영향을 받은 것으

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대면 서비스에 대한 수요 감소가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와 같은 이유로 부동산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에서도 최근 취업자가 감소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기준으로 취업자 수가 가장 많은 제조업 역시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취업자 수가 감소했는데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수출과 생산 활동이 위축되면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확산은 고용 규모뿐만 아니라 노동시장 내 분배 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8월 근로 형태별 부가조사 자료를 이용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2020년 들어 전반적인 임금 불평등은 완화되는 양상을 보였으나 저임금층 임금근로자의 상대적 임금 수준이 하락하면서 고임금층과 저임금층 간 임금 격차는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별 임금 격차는 소폭 줄어들었지만 대규모 사업체와 중소기업 사업체 임금근로자 간 임금과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간 임금 격차는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이 상대적으로 고용이 불안정한 취약계층 근로자의 고용 수준에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저임금 근로자, 중소기업 사업체 임금근로자,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근로자의 임금 수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코로나19 확산은 당분간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유럽 등과 마찬가지로 한국도 최근 기온 하강과 함께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 의료 전문가는 코로나19 백신 개발이 생각보다 빨라진 것은 사실이나 백신의 효과와 백신 접종 상황에 따라 현재와 같은 상황이 백신 생산 이후에도 이어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처럼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될 경우 이상에서 살펴본 코로나19 확산 국면에서의 노동시장 상황 역시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외 경제 기관의 전망처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은 2021년 들어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취업자 개인이 입은 피해는 쉽게 회복되기 어려울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다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자리를 잃은 취업자의 생계를 지원하고 이들이 다시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과 소득이 크게 감소한 취약계층 근로자

를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세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일자리를 잃을 위험에 처한 취업자를 찾아 이들이 노동시장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돕는 적극적인 정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장기적으로는 코로나19와 같은 충격에 대비할 수 있는 고용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에도 코로나19와 같이 경제와 노동시장에 큰 손실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외부 충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 충격으로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거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지 않도록 돕는 제도적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기존의 고용보험 안전망을 더욱 확대하고 강화하는 한편, 고용보험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파악하고 이들을 보호할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도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제3장

주요 제조업 고용 변동 양상 분석

제1절 서론

제조업은 원재료를 생산요소로 투입해서 가공하여 새로운 재화와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으로 빠른 성장세를 지속하며 국내 경제성장을 견인해 온 중요한 산업이다. 한국전쟁으로 국토 전역이 황폐해지고 경제 기반도 사라졌던 한국이 선진국 수준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데에는 제조업의 역할이 매우 컸다. 제조업은 정부의 제조업 육성 정책과 함께 빠르게 성장하며 한국의 경제 성장을 이끌었다. 1980년과 1997년 그리고 2009년에는 경제위기로 인해 제조업의 생산이 감소하기도 했었지만, 경제위기 이후 빠른 회복세를 보이며 경제 성장을 지속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제조업은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도 중요한 기여를 했다. 제조업은 빠른 성장세를 지속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 전체 취업자 증가에 기여했다. 1990년 이후 제조업의 고용 증가세가 둔화되고 감소한 반면, 서비스업에서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면서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90년에 비해 줄어들었다. 그러나 여전히 제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 개정 기준

대분류 21개 산업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산업이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2020년 10월 현재 제조업의 취업자 수는 433만 6천 명으로 전체 취업자 2,708만 8천 명의 16.0%를 차지한다.

경제와 노동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면 제조업의 고용 변동을 분석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하지만 제조업 고용 변동 양상을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다. 제조업에서는 생산과 고용 사이 관계가 변화하는 양상을 보이며 제조업 세부 산업별로 다른 고용 변동 양상이 존재하기 때문이다(김수현 외, 2019). 금융위기를 전후로 부(-)의 관계에서 정(+)의 관계로 변화한 제조업의 생산과 고용 사이 관계는 2016년 하반기부터 또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에는 코로나19 확산이 제조업의 생산과 고용에 영향을 미치면서 다른 변화가 다시 관측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고용 변동 양상은 제조업 세부 산업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 장에서는 제조업의 고용 변동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제조업 생산과 고용의 관계를 살펴보는 한편, 최근 코로나19 확산 이후 제조업 고용 변동 양상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이러한 제조업 고용 변동에 대한 분석은 제조업의 고용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동시에 향후 경제와 노동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제조업 고용을 전망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장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2절에서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이용해 제조업의 고용 변동 양상을 분석하고 그 특성에 대해 고찰한다. 3절에서는 수출과 생산, 고용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기계, 조선, 전자, 섬유, 철강, 반도체, 자동차 등 7개 주요 제조업종의 고용 변동 양상을 분석한다. 분석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DB」를 이용하였다.

제2절 제조업 고용 변동 추이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2020년 10월 현재 제조업의 취업자 수는 433만 6천 명이다. 제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기준 취업자 수가 가장 많은 산업으로 전체 취업자 2,708만 8천 명의 16.0%를 차지한

다. 제조업의 취업자 수는 1990년대 이전까지 생산과 함께 증가세를 보였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제조업 실질 부가가치는 1990년까지 정부의 제조업 육성 정책을 바탕으로 실질 국내총생산보다 빠른 성장세를 보였다. 산업화 초기 경공업 육성 정책과 1970년대부터 추진된 중화학 공업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 육성 정책은 제조업의 빠른 성장을 이끌었고 제조업의 성장은 다시 일자리 창출로 이어졌다(황선자·김수현·황수옥, 2017).

한국은행의 「국민계정(2015년 기준년)」 자료에 따르면 제조업의 실질 부가가치는 1960년부터 1970년까지 연평균 16.6%, 1970년부터 1980년까지 연평균 16.1%, 1980년부터 1990년까지 연평균 12.2%의 빠른 성장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실질 국내총생산은 연평균 9.5%, 9.3%, 10.0% 성장했다. 제조업은 타 산업보다 빠른 속도로 성장하며 소위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한국의 눈부신 경제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표 3-1> 제조업 및 주요 산업 실질 부가가치 연평균 성장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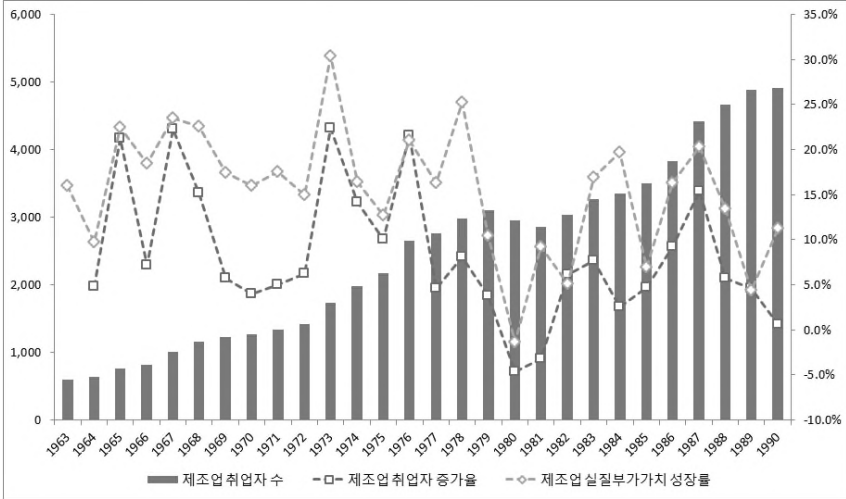
구 분	1953~1960년	1960~1970년	1970~1980년	1980~1990년
실질 국내총생산	5.3%	9.5%	9.3%	10.0%
농림어업 부가가치	11.8%	16.6%	16.1%	12.2%
제조업 부가가치	5.0%	8.9%	9.0%	9.7%
서비스업 부가가치	4.8%	8.9%	8.9%	9.6%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1990년대 이전 제조업의 빠른 성장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이어졌다. 제조업의 취업자 수는 1963년부터 1970년까지 61만 1천 명에서 126만 8천 명으로 연평균 11.3%, 1970년부터 1980년까지 126만 8천 명에서 295만 5천 명으로 연평균 8.8%, 1980년부터 1990년까지 295만 5천 명에서 488만 2천 명으로 연평균 5.2% 증가했다(그림 3-1 참조). 같은 기간 전체 취업자 수는 연평균 3.5%, 2.6%, 2.8% 증가했다. 제조업 취업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전체 취업자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63년 7.9%에서 1990년 27.2%로 증가했다. 1990년 이전까지 제조업은 가파른 성장세를 지속하였으며 성장을 바탕으로 한 일자리 창출로 취업자 수 역시 대폭 증가하였다.

[그림 3-1] 제조업 취업자 및 실질 부가가치 성장률 추이(1963~1990년)

(단위: 천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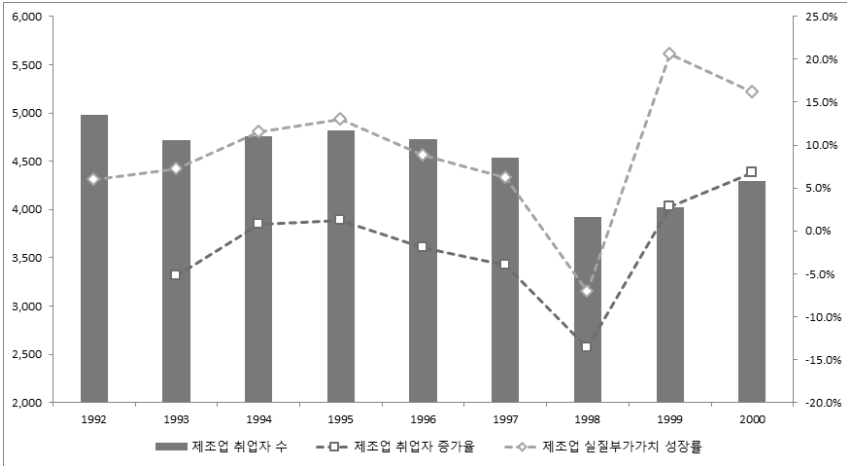
주: 취업자 수는 좌측 축, 취업자 증가율 및 실질 부가가치 성장률은 우측 축 참조.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한국은행, 「국민계정」

하지만 1990년 이전까지 실질 부가가치 성장과 함께 증가했던 제조업의 취업자 수는 1990년대 들어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그림 3-2] 참조). 1992년부터 2000년까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산업별 취업자 수 변동을 보면 제조업의 취업자 수는 1992년 498만 명에서 2000년 429만 8천 명으로 연평균 1.8% 감소했다. 전체 취업자 수는 1992년 1,900만 9천 명에서 2000년 2,117만 3천 명으로 증가했지만 1990년 이전까지 취업자가 전체 취업자보다 빠르게 증가했던 제조업은 오히려 취업자 수가 감소한 것이다. 하지만 1990년 대에도 제조업 생산은 성장세를 지속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990년부터 2000년까지 제조업의 실질 부가가치는 연평균 9.4% 성장했으며 1992년부터 2000년까지로 보았을 때도 연평균 9.3% 증가했다.

[그림 3-2] 제조업 취업자 및 실질 부가가치 성장률 추이(1992~2000년)

(단위: 천 명, %)



주: 취업자 수는 좌측 축, 취업자 증가율 및 실질 부가가치 성장률은 우측 축 참조.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한국은행, 「국민계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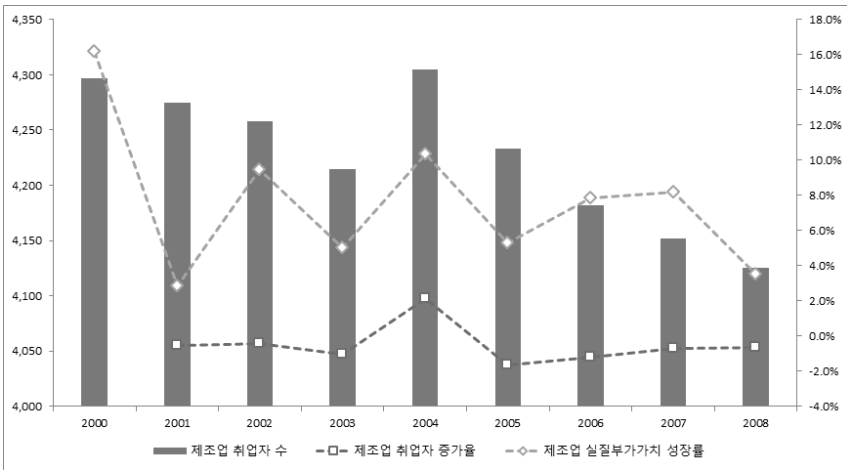
1997년 경제위기도 이 시기 제조업의 취업자 수 감소에 큰 영향을 미쳤다. 1997년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1998년 제조업 실질 부가가치는 전년 대비 7.1% 줄어들었으며 제조업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13.7% 감소했다. 제조업의 취업자 수는 1997년 이전에도 감소했다. 1992년 498만 명이었던 제조업 취업자 수는 1996년 472만 5천 명으로 줄어들었다. 같은 기간 제조업의 실질 부가가치는 성장세를 지속했다. 1998년 이후 제조업의 생산이 회복되면서 1999년과 2000년에 제조업의 취업자 수도 증가했다. 1998년 전년 대비 감소했던 제조업의 실질 부가가치는 1999년에 전년 대비 20.7%, 2000년에는 전년 대비 16.2% 성장했다. 제조업의 취업자 수 역시 1999년에 전년 대비 2.8%, 2000년에 전년 대비 6.7% 증가했다. 하지만 경제위기 이후 취업자 수가 증가했어도 2000년 제조업의 취업자 수는 1992년과 비교하면 68만 2천 명이 적었다.

2000년 이후에도 제조업 취업자 수는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그림 3-3) 참조). 2000년부터 2008년까지 「한국표준산업분류」 8차 개정을 기준으로 한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산업별 취업자 수를 살펴보면 전체 취업자 수는 2000년 2,117만 3천 명에서 2008년 2,377만 5천 명으로 증가했으나 제

조업 취업자 수는 2000년 429만 7천 명에서 2008년 412만 5천 명으로 연평균 0.5% 감소했다. 제조업의 취업자 수는 2004년 전년 대비 2.1% 증가하기도 했지만 2005년 다시 줄어든 후 2008년까지 감소세가 지속되었다. 제조업의 실질 부가가치는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증가세를 지속했으나 제조업의 취업자 수는 감소한 것이다.

[그림 3-3] 제조업 취업자 및 실질 부가가치 성장률 추이(2000~2008년)

(단위: 천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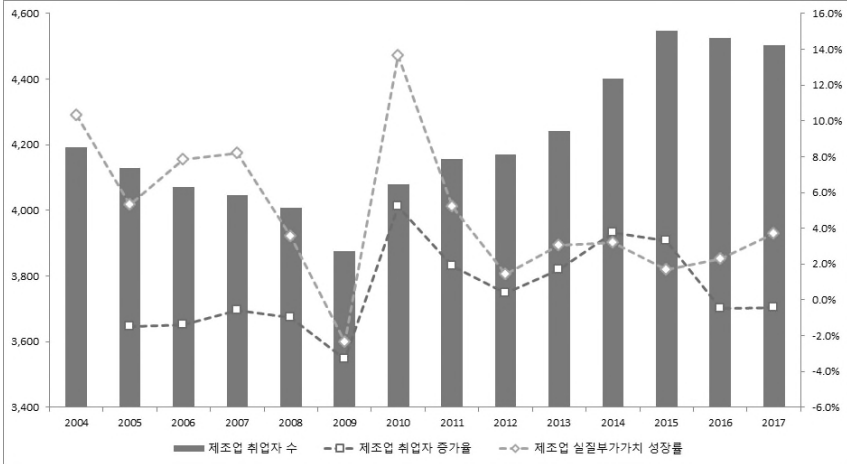
주: 취업자 수는 좌측 축, 취업자 증가율 및 실질 부가가치 성장률은 우측 축 참조.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한국은행, 「국민계정」

하지만 2008년 세계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취업자가 감소했던 2009년을 전후해 제조업의 취업자 수는 증가세로 전환되었다([그림 3-4] 참조). 「한국표준산업분류」 9차 개정을 기준으로 한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나타난 산업별 취업자 수를 보면 제조업 취업자 수는 2009년 387만 6천 명으로 400만 명 미만 수준까지 감소했지만 2010년 407만 8천 명으로 400만 명 이상으로 회복되었으며 이후 2015년까지 취업자 증가세가 이어졌다. 2009년 400만 명 미만으로 감소했던 제조업 취업자 수는 2015년 454만 6천 명까지 증가했다. 2009년에는 제조업 실질 부가가치가 감소하면서 취업자 수도 크게 줄어들었지만 2010년부터는 1990년대 이전과 마찬가지로 제조업의 생산 증가와 함께 취업자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 것이다.

[그림 3-4] 제조업 취업자 및 실질 부가가치 성장률 추이(2004~2017년)

(단위: 천 명, %)



주: 취업자 수는 좌측 축, 취업자 증가율 및 실질 부가가치 성장률은 우측 축 참조.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한국은행, 「국민계정」

1990년 이후 제조업에서는 생산과 고용 사이에 비동조성이 관측되었다. 제조업 실질 부가가치는 두 번의 경제위기를 제외하고는 성장세를 유지한 반면, 제조업 취업자 수는 1990년부터 2009년까지 전반적으로 감소했다. 소위 고용 없는 성장 국면이 계속된 것이다. 하지만 2008년 세계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제조업의 취업자 수가 많이 감소한 2009년 이후부터는 취업자 수가 늘어나면서 제조업의 생산과 고용이 모두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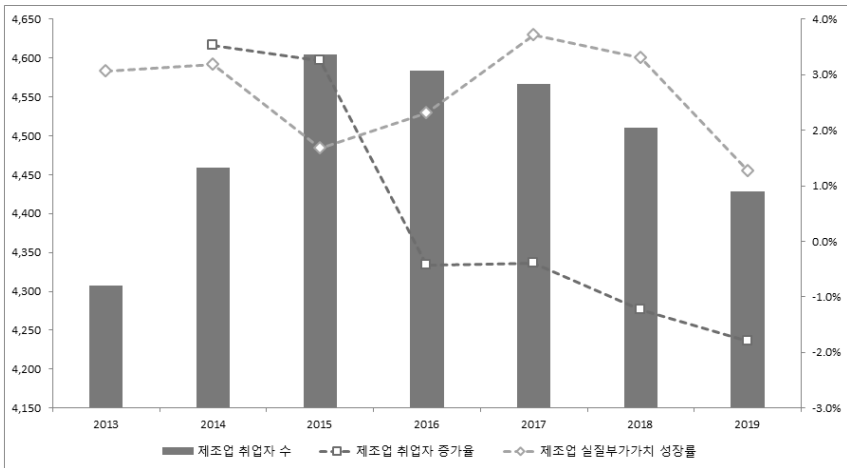
기저효과로 실질 부가가치 성장률이 13.6%를 기록했던 2010년을 제외하고는 금융위기 이전과 비교했을 때 제조업의 실질 부가가치 성장률은 오히려 낮아졌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제조업 실질 부가가치는 1990년부터 2000년까지 연평균 9.4% 성장했으며 2000년부터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실질 부가가치가 감소하기 전인 2008년까지 연평균 6.5% 성장했다. 하지만 금융위기 이후 취업자가 증가세를 보였던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제조업의 실질 부가가치는 연평균 2.9% 성장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2016년 이후 제조업의 생산과 고용 사이에는 다시 변화가 관측되었다. 제조업 취업자 수는 2015년까지 증가했지만 2016년부터는 금융위기 이전과 마찬가지로

가지로 다시 감소세를 보였다(그림 3-5 참조).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 개정 기준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산업별 취업자 수를 살펴보면 2015년 460만 명까지 늘어났던 제조업 취업자 수는 2016년 458만 4천 명으로 줄어든 뒤 2019년까지 감소세를 지속해 442만 9천 명으로 줄어들었다. 이에 반해 제조업 실질 부가가치는 성장세를 지속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제조업 취업자 수는 연평균 1.0% 감소했으나 제조업 실질 부가가치는 연평균 2.6% 증가했다.

[그림 3-5] 제조업 취업자 및 실질 부가가치 성장률 추이(2013~2019년)

(단위: 천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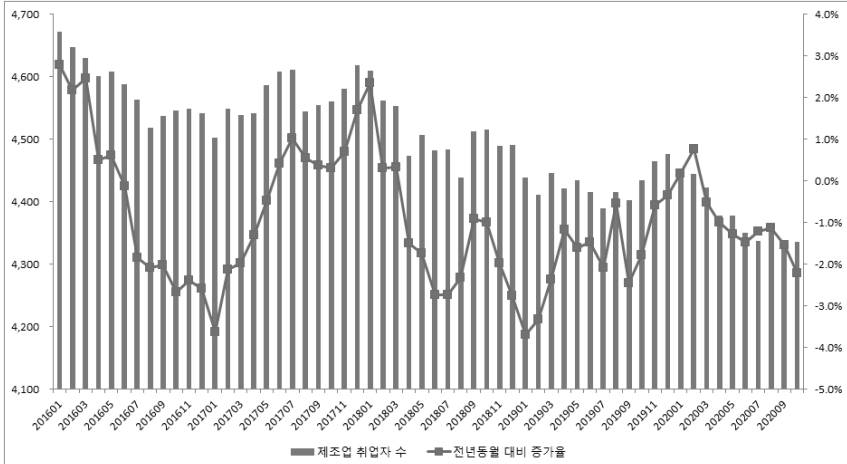
주: 취업자 수는 좌측 축, 취업자 증가율 및 실질 부가가치 성장률은 우측 축 참조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한국은행, 「국민계정」

월별로 보면 2016년 이후 제조업 취업자 수는 증가와 감소를 반복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6 참조).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하기 시작한 것은 2016년 6월부터이다. 제조업 취업자 수는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전년 동월 대비 감소했다. 하지만 2017년 6월부터는 다시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2017년 6월에 시작된 제조업의 취업자 증가세는 2018년 3월까지 계속된 후 4월부터 다시 감소하기 시작했다. 2018년 4월에 시작된 취업자 감소세는 2019년 12월까지 계속되었다.

[그림 3-6] 월별 제조업 취업자 수 추이(2016년 1월~2020년 10월)

(단위: 천 명, %)



주: 취업자 수는 좌측 축, 취업자 증가율은 우측 축 참조.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한국은행

2020년 들어 제조업 취업자 수는 다시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2020년 1월 제조업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8천 명 증가했으며 2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34만 1천 명 증가했다. 하지만 3월부터 제조업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다시 감소했다. 2020년 제조업의 취업자 수가 짧은 기간 개선되는 양상을 보이다 감소하게 된 데에는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앞서 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는 2020년 1월 20일에 최초로 발생한 이후 계속 증가했으며 그 영향으로 2020년 3월부터 전체 취업자가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하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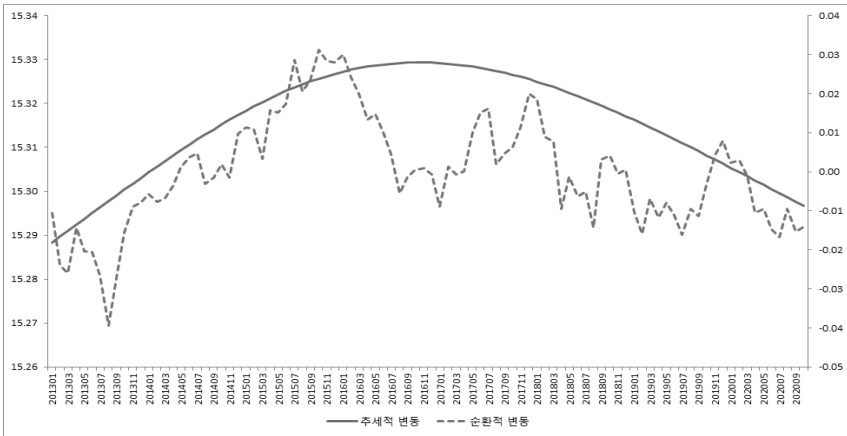
장기적으로 보면 2020년 제조업의 취업자 수가 감소한 것은 2016년 이후 추세적으로 제조업의 고용이 감소하는 가운데 순환적 변동치 역시 감소세를 보인 데 따른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림 3-7]은 2013년 1월 이후 월별 제조업 취업자 수의 추세적 변동을 보여준다. 추세적 변동을 분석하는 데는 Hodrick and Prescott(Hodrick and Prescott, 1997)이 제시한 Hodrick-Prescott 필터(이하 HP 필터)를 사용했다. HP 필터는 시계열 분석에서 추세적 변동과 순환적 변동을 구분하는 데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다. 이는 1기에서 T 기 동안의 관측치가

$\{y_t\}_{t=1}^T$ 로 주어졌을 때 다음과 같은 식으로 추세 τ_t 를 구분한다. 기존 연구에서 HP 필터는 불안정한 시계열에서 추세적 요인을 제거하거나 추세적 요인과 순환적 요인을 구분하는 데 활용했다(김명직·장국현, 2002).

$$\min_{\tau} \left(\sum_{t=1}^T (y_t - \tau_t)^2 + \lambda \sum_{t=2}^{T-1} [(\tau_{t+1} - \tau_t) - (\tau_t - \tau_{t-1})]^2 \right)$$

HP 필터를 이용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0년 제조업 취업자의 감소는 2016년 이후 이어지고 있는 제조업 취업자 감소 추세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제조업 취업자의 감소가 모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7] 제조업 취업자 추세(2013년 1월~2020년 10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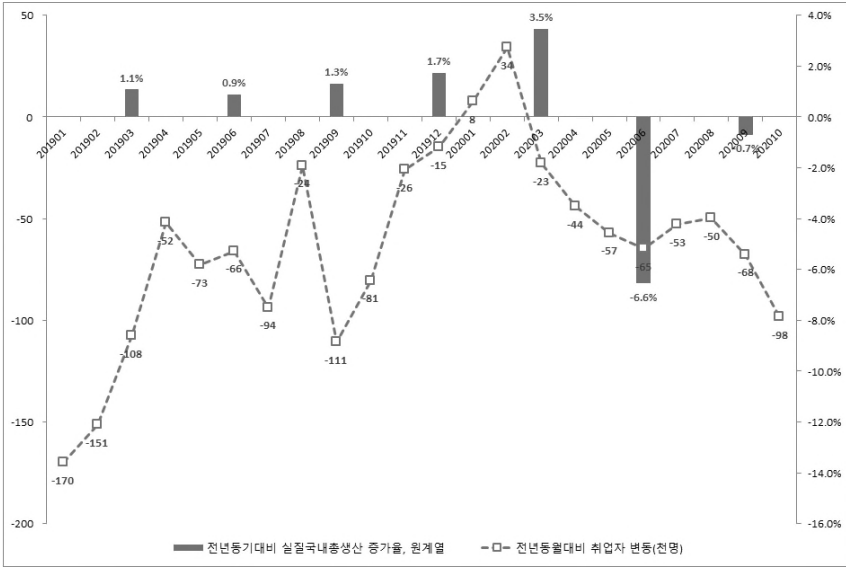


주: 추세적 변동치는 좌측 축, 순환적 변동치는 우측 축 참조.

코로나19 확산은 경제와 노동시장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제조업의 실질 부가가치는 2020년 1분기까지는 전년 동기 대비 3.5% 성장했으나 2분기와 3분기에는 각각 전년 동기 대비 6.6%와 0.7% 감소했다(그림 3-8] 참조). 2020년 들어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제조업은 생산과 고용이 모두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 것이다. 제조업 취업자 수가 3월 이후 다시 감소한 데에는 다양한 요인이 존재할 수 있다. 하지만 2020년 1월과 2월에 증가했던 제조업의 취업자 수가 3월 이후 다시 감소세를 보인 데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제조업 경기 침체도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8] 제조업 취업자 수 변동 및 실질 부가가치 성장률 추이

(단위: 천 명, %)



주: 취업자 수 변동은 좌측 축, 실질 부가가치 성장률은 우측 축 참조.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한국은행

최근 코로나19 확산 이후 제조업 고용 변동 양상을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여성 취업자의 감소 폭이 컸다(표 3-2) 참조. 남성 취업자도 제조업 전체 취업자 감소와 함께 줄어들었다. 제조업 남성 취업자는 2020년 5월부터 감소해 10월 현재까지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여성 취업자의 감소 폭이 더 컸다. 제조업 여성 취업자는 1월과 2월에도 감소했으며 3월 들어 감소 폭이 증가하면서 제조업의 전체 취업자 감소를 이끌었다. 3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5만 1천 명 수준으로 감소 폭이 확대되었다. 제조업 여성 취업자 수는 남성보다 적지만 2020년 3월 이후 더 많은 수의 취업자가 감소했다. 그런데 최근 남성 취업자도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2020년 10월에는 제조업 남성 취업자가 전년 동월 대비 5만 명 감소하면서 여성보다 더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표 3-2〉 2020년 성별 전년 동월 대비 제조업 취업자 변동

(단위: 천 명)

구분	취업자 수			전년 동월 대비 증감		
	전체	여성 취업자	남성 취업자	전체	여성 취업자	남성 취업자
1월	4,439	1,283	3,164	8	-16	24
2월	4,411	1,262	3,183	34	-17	51
3월	4,446	1,249	3,174	-23	-38	16
4월	4,421	1,229	3,148	-44	-51	7
5월	4,434	1,225	3,152	-57	-47	-10
6월	4,416	1,224	3,127	-65	-43	-22
7월	4,390	1,212	3,125	-53	-24	-29
8월	4,415	1,233	3,132	-50	-9	-41
9월	4,403	1,221	3,114	-68	-38	-30
10월	4,434	1,222	3,114	-98	-48	-5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연령대별로 보면 제조업 취업자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30세 이상 40세 미만, 40세 이상 50세 미만, 50세 이상 60세 미만 연령대에서 취업자 감소 폭이 컸다(〈표 3-3〉 참조). 이들 연령대는 모두 3월 이후 전년 동월 대비 감소세를 지속했다. 제조업에서 20세 미만, 20세 이상 30세 미만 연령대는 3월부터 6월까지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수가 감소했으나 7월부터 9월까지의 취업자 수가 증가했다. 하지만 10월에 제조업 취업자 수의 감소 폭이 다시 9만 8천 명 수준으로 증가하면서 20세 미만, 20세 이상 30세 미만 연령대의 제조업 취업자 수도 다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 2020년 연령대별 전년 동월 대비 제조업 취업자 변동

(단위: 천 명, %)

구분	전체	20세 미만	20세 이상 30세 미만	30세 이상 40세 미만	40세 이상 50세 미만	50세 이상 60세 미만	60세 이상	
취업자 수	1월	4,447	23	565	1,134	1,194	1,109	422
	2월	4,445	24	541	1,142	1,192	1,113	433
	3월	4,423	23	532	1,140	1,190	1,098	441
	4월	4,377	20	529	1,126	1,165	1,105	432
	5월	4,377	20	515	1,127	1,186	1,098	431
	6월	4,351	17	514	1,117	1,181	1,086	435
	7월	4,337	18	524	1,097	1,179	1,083	435
	8월	4,365	19	538	1,088	1,195	1,097	429
	9월	4,335	17	528	1,088	1,186	1,092	424
	10월	4,336	15	515	1,100	1,193	1,085	428
취업자 증감	1월	8	9	-7	-3	-44	16	37
	2월	34	3	-21	10	-25	15	53
	3월	-23	-4	-20	-3	-36	-10	49
	4월	-44	-2	-25	-6	-51	-13	53
	5월	-57	-3	-23	-29	-19	-26	44
	6월	-65	-1	-15	-41	-21	-32	45
	7월	-53	1	1	-52	-16	-24	37
	8월	-50	1	9	-55	-14	-14	23
	9월	-68	0	7	-40	-13	-34	12
	10월	-98	-1	-35	-31	-5	-39	13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제조업의 다른 연령대에서는 취업자 수가 감소했지만 60세 이상 고연령층 취업자 수는 증가했다. 제조업에서 60세 이상 연령대 취업자 수는 2020년 1월과 2월에도 전년 동월 대비 3만 7천 명과 5만 3천 명이 증가했다. 전 연령대에서 제조업의 취업자 수가 감소한 3월에도 60세 이상 연령대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증가했다. 3월 이후에도 60세 이상 고연령층에서 제조업 취업자 수는 증가세를 지속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취업자 증가 폭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데 2020년 10월에 제조업에서 60세 이상 연령대 취업자 수는 42만 8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 3천 명 증가했다.

<표 3-4> 2020년 종사상 지위별 전년 동월 대비 제조업 취업자 변동

(단위: 천 명, %)

구분	전체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고용주	자영자	무급가족 종사자	
취 업 자 수	1월	4,447	3,509	391	108	174	193	72
	2월	4,445	3,497	395	101	176	203	73
	3월	4,423	3,497	377	100	168	210	72
	4월	4,377	3,460	379	105	161	205	66
	5월	4,377	3,481	364	108	157	204	64
	6월	4,351	3,472	343	112	156	208	59
	7월	4,337	3,467	334	113	156	210	57
	8월	4,365	3,513	324	93	157	215	63
	9월	4,335	3,492	321	87	157	215	63
	10월	4,336	3,485	321	106	154	209	61
취 업 자 증 감	1월	8	44	3	9	-32	-16	1
	2월	34	33	25	1	-25	0	2
	3월	-23	23	-14	-2	-35	8	-3
	4월	-44	14	-11	-6	-40	6	-6
	5월	-57	26	-28	-5	-45	0	-6
	6월	-65	31	-61	-2	-28	6	-11
	7월	-53	28	-39	3	-38	7	-15
	8월	-50	52	-51	-16	-39	11	-6
	9월	-68	19	-54	-21	-28	21	-5
	10월	-98	-1	-75	-7	-24	15	-6

주: 고용주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를, 자영자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를 의미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전체 취업자의 고용 변동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고용이 감소하기 시작한 2020년 3월 이후 제조업에서도 전년 동월 대비 상용직 취업자는 증가했으나 임시직과 일용직 취업자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3-4〉 참조). 제조업의 임시직과 일용직 취업자 수는 2020년 1월과 2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증가했지만 3월 들어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상용직은 3월 이후에도 전년 동월 대비 증가했다. 이는 전체 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과 같이 제조업에서도 역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피해가 여성 취업자와 함께 상대적으로 고용이 불안정한 임시직과 일용직 취업자에게 더 컸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최근 제조업의 상용직 역시 전년 동월 대비 고용이 감소했다. 2020년 9월까지 제조업 취업자가 감소하는 가운데 제조업의 상용직 취업자 수는 증가세를 지속했지만 10월 들어 전년 동월 대비 1천 명이 감소한 것이다. 이렇게 제조업에서 상용직 취업자가 감소하는 것은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장기간 계속되면서 고용이 안정적인 취업자 역시 실직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했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향후 그 변화 양상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비임금근로자 중에서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감소세를 지속한 반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2020년 3월 이후에도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제조업의 취업자 수가 감소하기 시작한 3월 이전에도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감소했으며 3월부터 10월까지 지속적으로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가 감소했다. 반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2020년 1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감소했지만 2월부터 10월까지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가 증가했다. 다만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고용원을 해고하면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와 같은 취업자 수 변동을 해석해야 할 것이다.

제조업의 취업자 수 변동을 사업체 규모별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종사자가 30인 미만의 중규모 사업체와 1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에서 취업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3-5〉 참조). 제조업 취업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30인 이상 100인 미만인 중규모 사업체의 취업자 수는 2020년 3월 이후에도 전년 동월 대비 증가세를 지속했다.

〈표 3-5〉 2020년 사업체 규모별 전년 동월 대비 제조업 취업자 수 변동

(단위: 천 명, %)

구분	전체	5인 미만	5인 이상 10인 미만	10인 이상 30인 미만	30인 이상 100인 미만	100인 이상 300인 미만	300인 이상	
취 업 자 수	1월	4,447	634	497	933	966	591	827
	2월	4,445	637	493	920	975	594	826
	3월	4,423	639	487	894	974	598	832
	4월	4,377	632	496	878	967	597	807
	5월	4,377	615	483	892	962	611	815
	6월	4,351	623	480	875	952	606	815
	7월	4,337	623	478	855	953	598	830
	8월	4,365	629	503	851	946	609	828
	9월	4,335	624	502	853	932	587	837
	10월	4,336	617	481	860	940	585	852
취 업 자 증 감	1월	8	25	-64	30	28	-29	16
	2월	34	36	-59	24	47	-36	22
	3월	-23	17	-83	4	60	-28	8
	4월	-44	1	-63	2	58	-18	-23
	5월	-57	-31	-52	4	50	-2	-26
	6월	-65	-4	-49	-18	38	-11	-20
	7월	-53	-7	-53	-40	58	-8	-2
	8월	-50	-10	-16	-47	36	-1	-12
	9월	-68	-14	-13	-38	12	-15	1
	10월	-98	-22	-23	-53	13	-14	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하지만 5인 미만 규모 사업체와 10인 이상 30인 미만 규모 사업체의 취업자 수는 3월 이후 증가세가 둔화되었다가 4월 또는 5월 이후 감소를 지속하였다. 2020년 3월까지 취업자 증가세를 유지했던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의 취업자 수도 4월 들어 감소하기 시작했다. 5인 이상 10인 미만 규모 사업체와 100인 이상 300인 미만 규모 사업체에 종사하는 제조업 취업자 수는 2020년 1월과 2월에도 전년 동월 대비 감소했는데 코로나19 확산으로 전체 취업자가

감소세를 보인 3월부터 10월까지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감소가 계속되었다.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직업별로 보면 제조업에서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와 단순 노무 종사자 수는 2020년 3월 이후 증가했다. 그러나 관리자, 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는 전년 동월 대비 감소했다(〈표 3-6〉 참조). 제조업에서 단순 노무 종사자는 전체 취업자를 기준으로 한 분석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 확산의 충격 속에서도 증가세를 이어갔다.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는 전체 취업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제조업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숙련을 요구하는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의 취업자 수가 증가세를 이어갔다.

〈표 3-6〉 2020년 직업별 전년 동월 대비 제조업 취업자 수 변동

(단위 : 천 명)

구분	취업자 수								전년 동기 대비 증감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A	87	81	84	88	86	79	81	82	-14	-21	-17	-6	-5	-12	-9	-7
B	564	555	575	575	562	587	583	590	68	58	69	68	55	68	49	33
C	917	905	904	908	891	900	895	894	-71	-67	-74	-51	-51	-40	-36	-33
D	14	14	15	16	17	16	16	12	-2	-3	-1	-2	-1	-2	-2	-8
E	117	120	115	111	111	109	112	110	2	-1	-3	-11	-10	-11	-9	-15
F	2	2	2	2	0	0	0	0	1	1	1	1	-1	-1	-1	-2
G	715	701	681	668	654	678	665	668	-10	-12	-29	-44	-60	-39	-61	-51
H	1,548	1,538	1,531	1,513	1,524	1,510	1,496	1,484	-14	-17	-8	-35	-19	-33	-37	-48
I	459	462	469	471	493	485	487	496	17	18	4	15	40	20	37	31

주: A 관리자, B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C 사무 종사자, D 서비스 종사자, E 판매 종사자, F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G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H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I 단순 노무 종사자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하지만 다른 직업의 취업자는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관리자와 사무 종사자는 2020년 1월과 2월의 취업자 감소세가 2020년 3월 이후에도 계속되었고 서비스 종사자와 판매 종사자는 1월과 2월에는 취업

자가 증가했으나 3월부터 취업자 감소세가 이어졌다. 또한, 제조·생산 관련 직종인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와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역시 3월 이후 취업자 감소 폭이 확대되거나 취업자 증가세가 감소세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조업 생산 현장에서 고숙련 취업자와 저숙련 취업자 대상 일자리는 코로나19 확산에도 증가세를 지속한 반면, 중간 수준의 숙련 일자리와 관리자, 서비스 관련 일자리 취업자는 감소했음을 가리킨다.

제3절 주요 제조 업종 고용 변동 양상 및 특성 분석

제조업의 생산과 고용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요 업종의 고용 동향을 파악하고 전망하는 것은 노동시장 관련 정책 수립과 해당 업종으로의 구직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에 한국고용정보원·한국산업기술진흥원(2020)은 상반기와 하반기를 구분해 주요 제조 업종의 일자리 전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본 절에서는 제조업 생산과 수출, 고용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계, 조선, 전자, 섬유, 철강, 반도체, 자동차 업종을 중심으로 최근의 고용 변동 양상을 분석하였다.

분석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 9차 개정 기준 산업 세세분류 정보를 이용해 업종을 구분할 수 있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DB」의 자료를 활용했다. 그러므로 본 절에서 고용 변동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변동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정보를 이용할 경우 전체 취업자 중 일부에 대한 정보만 알 수 있다.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근로자 일부와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의 상당수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요 제조업종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자의 비중이 매우 높아 이를 통해 해당 업종의 전반적인 취업자 변동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한국고용정보원·한국산업기술진흥원(2020)은 주요 제조 업종에 대한 일자리 전망에 「고용보험 피보험자 DB」를 활용했다. 이에 본 절에서도 해당 주요 업종의 고용 변동을 「고용보험 피보험자 DB」를 이용해 분석하고 있다.

1. 기계 업종

기계 업종⁵⁾은 다른 주요 제조 업종에 설비 및 부품을 제공하는 중요한 기반 산업으로 경제성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한국고용정보원·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20). 기계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9차 개정 산업 중분류 기준으로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에 속하는 다양한 산업을 포괄한다. 생산물 특성으로 보면 「한국표준산업분류」 소분류 기준 철도 장비 제조업에 해당하는 철도 산업,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과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의 산업으로 구성된 일반 기계 산업, 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 제조업에 해당하는 항공 우주 산업,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에 속한 산업용 로봇 제조업에 해당하는 로봇 산업, 구조용 금속 제품, 탱크 및 증기발생기 제조업,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 기타 금속가공제품 제조업이 포함된 금속가공 산업으로 구성되어 있다(김수현, 2018).

2020년 10월 기준 기계 업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74만 9천 명으로 전체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5.3%이며, 제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21.2%를 차지했다(그림 3-9) 참조). 기계 업종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금융위기 이후 회복세를 보였다. 2009년 4월부터 전년 동월 대비 감소세를 보였던 기계 업종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2010년 1월 이후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하기 시작했다. 이런 기계 업종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세는 2019년 5월까지 이어졌다. 기계 업종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큰 폭으로 증가한 이후 점차 증가세가 둔화하는 양상이 관측되었지만 금융위기 이후 상당 기간 증가세가 유지되었다.

기계 업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율은 2015년 들어 전년 동월 대비 2% 미만 수준까지 낮아졌다. 이후에도 증가세를 꾸준히 이어갔으나 2019년 1월

5) 「한국표준산업분류」 9차 개정 산업 세세분류 기준 25111, 25112, 25113, 25119, 25121, 25122, 25130, 25200, 25911, 25912, 25913, 25921, 25922, 25923, 25924, 25929, 25931, 25932, 25933, 25934, 25941, 25942, 25943, 25991, 25992, 25993, 25994, 25995, 25999, 29111, 29119, 29120, 29131, 29132, 29133, 29141, 29142, 29150, 29161, 29162, 29163, 29169, 29171, 29172, 29173, 29174, 29175, 29176, 29180, 29191, 29192, 29193, 29194, 29195, 29199, 29210, 29221, 29222, 29223, 29229, 29230, 29241, 29242, 29250, 29261, 29269, 29271, 29272, 29280, 29280, 29291, 29292, 29293, 29294, 29299, 31119, 31120, 31201, 31202, 31310, 31321, 31322, 31910, 31920, 31991, 31999에 해당하는 산업을 기계 업종으로 분류함.

이후 전년 동월 대비 1% 미만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2019년 6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0.1% 감소하며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2019년 이후 기계 업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그림 3-9] 월별 기계 업종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추이

(단위: 천 명, %)



주: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좌측 축,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은 우측 축 참조.

자료: 「고용보험 피보험자 D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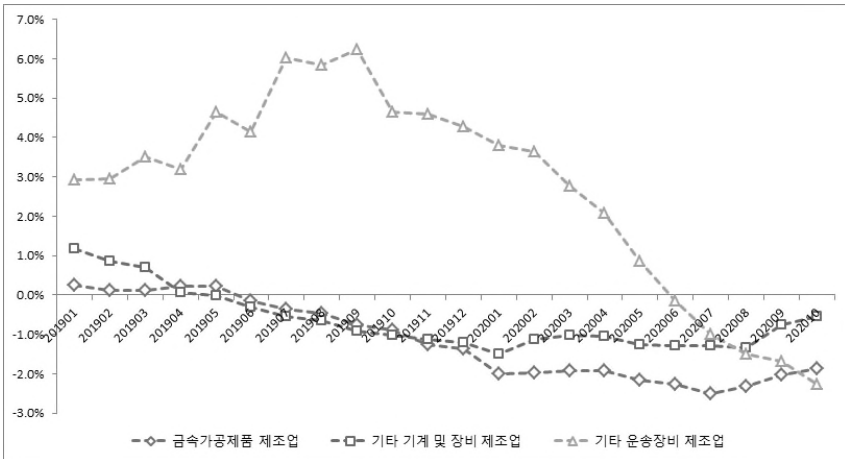
최근 기계 업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감소하는 데는 코로나19의 영향도 있다고 판단된다. 기계 업종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2020년 들어서도 전년 동월 대비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전체 취업자가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한 2020년 3월에 기계 업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역시 전년 동월 대비 1.3% 감소했으며 이후에도 감소세를 지속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감소세가 다소 약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계 업종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2020년 7월과 8월에 전년 동월 대비 1.8%와 1.7%가 감소했으나 2020년 9월과 10월에는 전기 대비 증가했으며 전년 동월 대비 1.3%와 1.1% 감소하는 데 그쳤다.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기준 산업별로 보면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의 취업자 수가 최근 들어 모두 감소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10 참조). 기계 업종 고용보험 피보험자에서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과 금속가공제품 제조업의 취업자는 2019년 6월부터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2020년 3월 이후에도 지속하고 있는 두 산업의 취업자 수 감소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기계 시장의 수요 감소도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10] 월별 기계 업종 세부 산업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변동 추이

(단위: %)



자료: 「고용보험 피보험자 DB」

하지만 최근 두 산업 모두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감소세가 상대적으로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7월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2.5% 감소했던 금속가공제품 제조업은 이후 감소율이 낮아졌으며 2020년 10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1.9% 감소했다.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2020년 들어 전년 동월 대비 1% 이상 감소세를 지속하였으나 9월부터는 전월 대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전년 동월 대비 고용보험 피보험자 감소율도 9월과 10월에 각각 0.7%와 0.5%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반면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은 2020년 5월까지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증가세를 지속했지만 6월부터 전년 동월 대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감소했는데 주로 항공 우주 산업 관련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감소세를 보였다.

2. 조선 업종

조선 업종⁶⁾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선박이나 심해저에 매장된 원유, 가스 등 해양 자원의 추출에 필요한 장비와 같은 해양 구조물을 생산한다(한국고용정보원·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20). 「한국표준산업분류」 9차 개정 산업 소분류 기준으로 조선 업종은 선박 및 보트 건조업에 해당하는데 생산물 특성에 따라 산업 세세분류 기준 강선 건조업, 합성수지선 건조업, 비철금속 선박 및 기타 항해용 선박 건조업, 선박 구성부분품 제조업, 기타 선박 건조업과 오락 및 스포츠용 보트 건조업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김수현, 2018).

조선 업종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2020년 10월 현재 10만 4천 명으로 전체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0.7%이며, 제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3.0%를 차지한다(그림 3-11 참조). 조선 업종은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지만 대형 고부가가치 생산물을 건조하는 산업으로 국내 경제성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조선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다른 주요 업종과 달리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고용이 회복세를 보였던 2010년에 오히려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2010년 3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조선 업종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전 세계적인 선박의 공급 과잉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2011년 4월부터 다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하기 시작했다. 조선 업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감소했던 시기에도 대형 조선업체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감소하지 않았는데 2010년 이후 해양 플랜트에 대한 시장 수요 증가와 함께 대형 조선업체를 중심으로 조선 업종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빠른 회복세를 보였다. 2011년 4월 시작된 조선 업종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증가는 2016년 1월까지 계속되었다.

6) 「한국표준산업분류」 9차 개정 산업 세세분류 기준 31111, 31112, 31113, 31114, 31119, 31120에 해당하는 산업을 조선 업종으로 분류함.

[그림 3-11] 월별 조선 업종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추이

(단위: 천 명, %)



주: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좌측 축,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은 우측 축 참조.

자료: 「고용보험 피보험자 DB」

조선 업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2016년 2월 다시 감소하기 시작했다. 금융위기 이후 두 번째로 감소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2010년보다 감소 폭이 더 컸고 감소 속도도 빨랐다. 대형 조선업체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역시 감소했다는 점도 이전 감소 국면과 차이를 보였다. 이 시기 선박 공급 과잉과 함께 유가 하락으로 인한 신규 선박에 대한 수요 감소로 전 세계 조선업체는 어려운 시기를 보내야 했다. 조선 업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감소는 2019년 3월까지 계속되었으며 그 결과 2015년 12월 18만 8천 명이었던 조선 업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2019년 3월에 10만 8천 명 수준으로 감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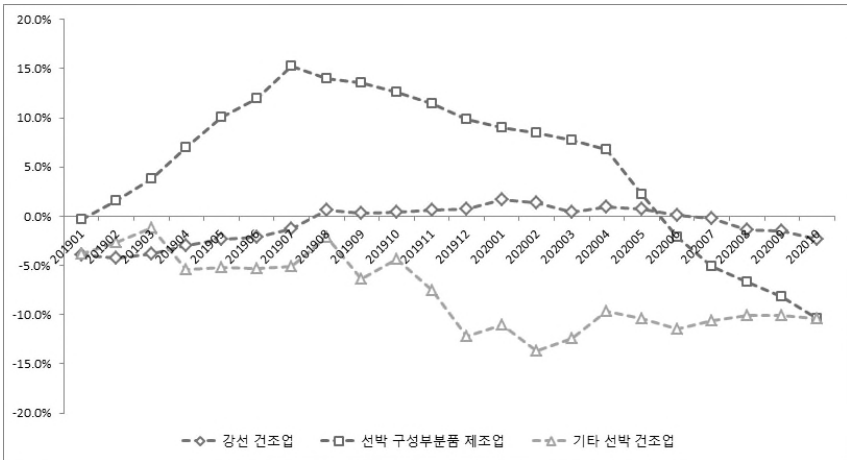
조선 업종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다시 증가한 것은 2019년 4월이었다. 이후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증가하면서 조선 업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2020년 2월 11만 1천 명 수준까지 회복되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증가했으나 감소하기 이전의 수준에는 못 미쳤다. 환경 규제 강화로 수주 여건이 개선되었으나 2010년 이후 조선 업종의 고용 증가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던 해양플랜트 수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조선 업종의 고용 증가는 제한된 수준

에 머물렀다.

조선 업종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증가세는 길게 이어지지 못했다. 2020년 2월부터 조선 업종은 전기 대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감소하기 시작했으며 2020년 6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감소했다. 전년 동월 대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감소 폭은 이후 더욱 확대되었는데 2020년 조선 업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10만 4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5.7% 감소했다. 이런 최근의 조선 업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감소는 물동량 감소로 인해 발주량이 계속 줄어들었고 계획된 대형 LNG 프로젝트 실행이 지연된 데 따른 결과로 보인다.

[그림 3-12] 월별 조선 업종 세부 산업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변동 추이

(단위: %)



자료: 「고용보험 피보험자 DB」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수준 산업별로 보면 전체 조선 업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강선 건조업과 선박 구성부분품 제조업의 고용이 최근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12 참조). 최근에도 고용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선박 구성부분품 제조업은 2020년 6월 이후 전년 동월 대비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가장 많이 감소한 산업이다. 조선 업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강선 건조업 역시 2020년

7월부터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감소하기 시작했는데 상대적으로 감소 폭은 선박 구성부분품 제조업에 미치지 못했다. 2020년 10월에 선박 구성부분품 제조업은 전년 동월 대비 4천 명(10.4%)이 감소했고, 강선 건조업은 전년 동월 대비 2천 명(2.3%)이 감소했는데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조선 수주 회복이 지연된다면 생산 물량 부족으로 인력수요가 감소하는 기간이 더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

3. 전자 업종

전자 업종⁷⁾은 전자, 전기, 제어, 정보기술과 관련된 지식을 바탕으로 기회 기술, 개발기술, 생산기술, 영업기술 등을 적용하여 휴대전화, 컴퓨터, TV, 대형 가전, 2차 전지, 센서 등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이다(한국고용정보원·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20). 전자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9차 개정 중분류 기준으로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에 포함되는 다수 산업으로 구성된다(김수현, 2018). 전자 업종은 산업화 이후 국가 성장을 주도해 왔던 핵심 제조 업종 중 하나로 2000년대 들어서도 정보 통신업의 빠른 발전에 힘입어 성장세를 지속하며 국내 경제성장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

2020년 10월 현재 전자 업종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69만 7천 명으로 전체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4.9%, 제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19.7%를 차지한다(〔그림 3-13〕 참조). 전자 업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2009년 감소세를 보인 후 2009년 10월부터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전자 업종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2012년 4월을 제외하면 2014년 8월 까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지속해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7) 「한국표준산업분류」 9차 개정 산업 세세분류 기준 28112, 28113, 28119, 28121, 28122, 28301, 28302, 28303, 28901, 28902, 28903, 28909, 26511, 26519, 26521, 26529, 28511, 28512, 28519, 28520, 28410, 28421, 28422, 28423, 28429, 26410, 26421, 26422, 26429, 26310, 26321, 26322, 26323, 26329, 28201, 28202, 26221, 26222, 26291, 26292, 26293, 26294, 26295, 26296, 26299, 26600, 27211, 27212, 27213, 27214, 27215, 27216, 27219, 27310, 27321, 27322, 27329, 27401, 27402에 해당하는 산업을 전자 업종으로 분류함.

[그림 3-13] 월별 전자 업종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추이

(단위: 천 명, %)



주: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좌측 축,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은 우측 축 참조.

자료: 「고용보험 피보험자 D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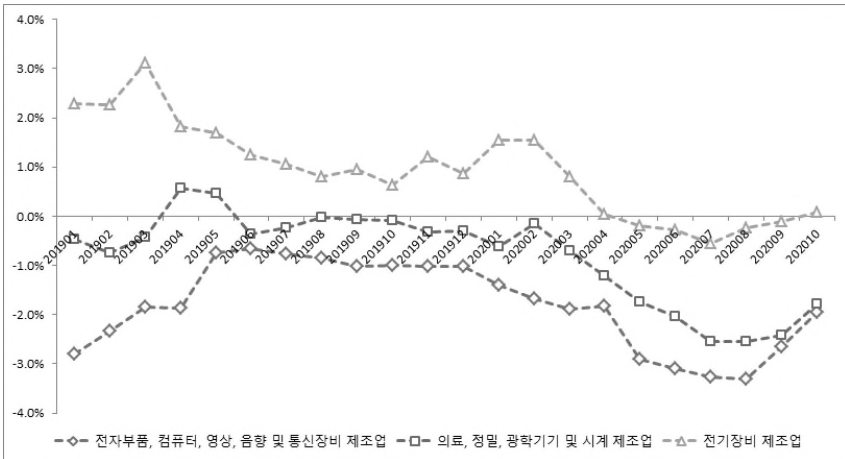
하지만 이후 전자 업종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증가와 감소를 반복했다. 전자 업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2014년 9월부터 2017년 3월까지 감소했으며 2017년 4월에 증가세로 전환된 이후 2018년 10월까지지는 전년 동월 대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증가했다. 그리고 2018년 11월에 다시 감소세로 전환된 이후 2019년 5월을 제외하고 2020년 10월까지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전자 업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감소세를 지속하면서 2018년 10월 71만 명 수준이었던 전자 업종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2020년 들어서 70만 명 미만으로 감소했다.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을 받은 2020년에도 전자 업종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에서 전체 취업자 수가 감소한 2020년 3월부터 10월까지 전자 업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역시 계속 감소했는데 1월과 2월에 전년 동월 대비 0.4%와 0.5%가 감소했던 것과 달리 3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0.9%의 취업자가 감소했다. 4월부터는 1% 이상의 취업자가 감소하면서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감소세가 더욱 심화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전자 업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감소에는 다른 요인도 있지만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전자 업종의 생산물에 대한 수요가 감소한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최근에는 다시 고용 감소 폭이 축소되는 것으로 보인다. 전자 업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2020년 8월부터 전기 대비 증가하고 있으며, 2020년 10월에는 전년 동기 대비 1.3% 감소하면서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감소 폭이 줄어들었다.

[그림 3-14] 월별 전자 업종 세부 산업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변동 추이

(단위: %)



자료: 「고용보험 피보험자 DB」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수준 산업별로 보면 최근 전자 업종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감소한 데는 전자 업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중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의 영향이 컸다(그림 3-14 참조).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2018년 3월부터 전년 동월 대비 감소했는데 2019년 들어 감소세가 조금 둔화하였다가 20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감소 폭이 확대되었다.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역시 2020년 3월 이후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감소세가 더욱 확대되었으며 전기장비 제조업은 2020년 4월까지 전년 동월 대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증가했

나 2020년 5월부터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감소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세 산업 모두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감소세가 약해지는 양상을 보였다.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과 의료, 정밀, 광학기기 제조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감소세가 지속하고 있지만 2020년 8월 이후 감소세가 둔화하는 양상이며, 전기장비 제조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2020년 10월에 전기 대비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한 가운데 전자 업종 관련 수요가 회복된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코로나19 확산은 단기적으로는 관련 제품 수요를 감소하게 해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비대면 근무 환경의 확대, 새로운 기술 도입의 가속화 등을 이끌어 전자 업종 고용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4. 섬유 업종

섬유 업종⁸⁾은 천연섬유, 인조섬유, 합성섬유 등을 가공하거나 가공된 섬유 제품을 원료로 하여 새로운 섬유 또는 의류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이다(한국고용정보원·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19). 섬유 및 의복과 관련된 제품을 생산하는 섬유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9차 개정 중분류 기준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 일부 산업으로 구성된다. 생산물 특성으로 구분하면 섬유 업종은 섬유제품 제조업과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 화학섬유 제조업으로 구성된 섬유 제조업과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에 해당하는 의류 산업으로 다시 분류할 수 있다(김수현,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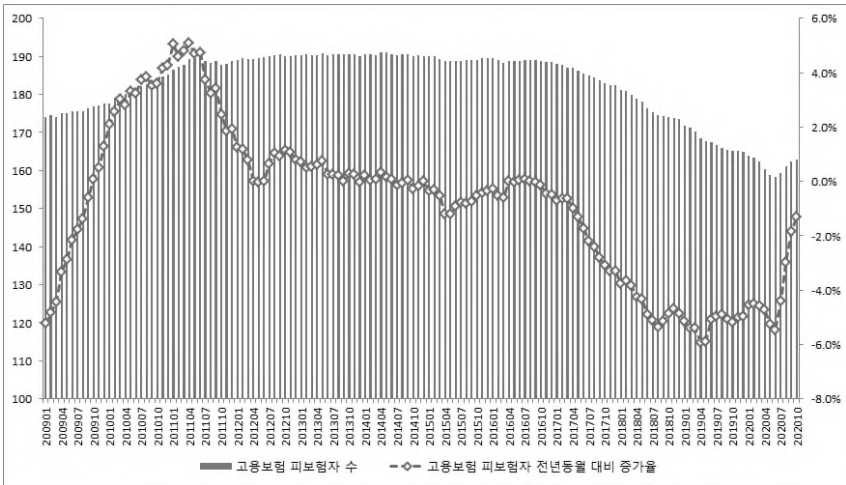
섬유 업종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2020년 10월 현재 16만 3천 명이다(그림 3-15) 참조). 이는 전체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1.1%, 제조업 고용보험 피보

8) 「한국표준산업분류」 9차 개정 산업 세세분류 기준 13101, 13102, 13103, 13104, 13109, 13211, 13212, 13213, 13214, 13219, 13221, 13222, 13223, 13224, 13225, 13229, 13310, 13320, 13401, 13402, 13403, 13404, 13409, 13910, 13921, 13922, 13991, 13992, 13993, 13994, 13999, 20501, 20502, 14111, 14112, 14120, 14130, 14191, 14192, 14193, 14194, 14199, 14201, 14202, 14203, 14300, 14411, 14419, 14491, 14499에 해당하는 산업을 섬유 업종으로 분류함.

험자의 4.6%에 해당한다. 섬유 업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역시 2008년 세계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2009년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한 후 회복세를 보였다. 섬유 업종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2009년 10월 들어 전년 동월 대비 0.1% 증가했으며 이후 2014년 6월까지 2010년 5월, 2013년 9월, 2013년 12월 등 전년 동월 대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소폭 감소했던 때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증가세를 이어갔다.

[그림 3-15] 월별 섬유 업종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추이

(단위: 천 명, %)



주: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좌측 축,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은 우측 축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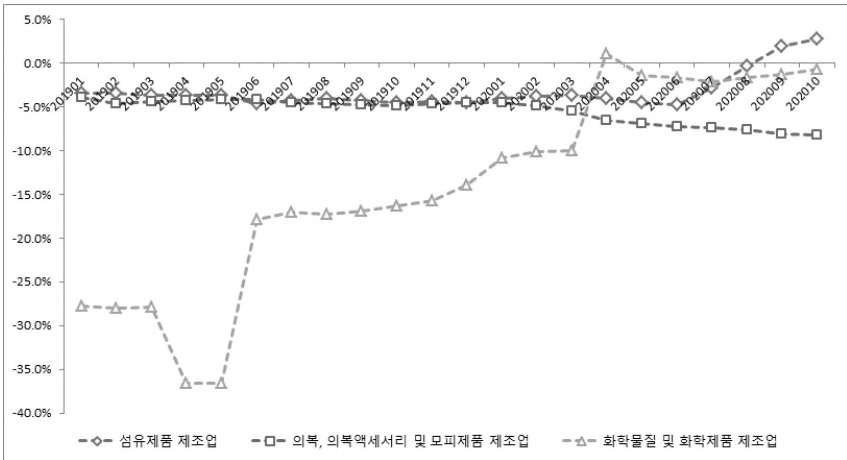
자료: 「고용보험 피보험자 DB」

하지만 2014년 10월 이후 섬유 업종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감소세를 보였다. 2016년 6월부터 2016년 8월까지 3개월을 제외하면 전년 동월 대비 섬유 업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감소는 2020년 10월까지 계속되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감소와 함께 2014년 19만 명 이상이었던 섬유 업종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2020년 10월 16만 3천 명 수준까지 줄어들었다. 이러한 섬유 업종의 계속된 고용 감소에는 수출 시장에서의 경쟁 심화, 해외 생산의 증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섬유 업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감소세를 지속했다. 섬유 업종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전체 취업자가 감소하기 시작했던 2020년 3월 이전부터 전년 동월 대비 감소했다. 2020년 1월과 2월에 전년 동월 대비 섬유 업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각각 4.6%와 4.5%가 감소했다.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3월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감소율이 4.6% 수준으로 소폭 증가했으며, 5월과 6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5.3%와 5.5%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감소했다. 하지만 이후 감소세가 다시 약해지는 양상을 보였는데 2020년 9월에는 감소율이 전년 동월 대비 1.8% 수준으로, 10월에는 1.3%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그림 3-16] 월별 섬유 업종 세부 산업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변동 추이

(단위: %)



자료: 「고용보험 피보험자 DB」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수준에서 보았을 때 최근 섬유 업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섬유제품 제조업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16 참조). 섬유 업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섬유제품 제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2017년 1월부터 전년 동월 대비 감소세를 지속했다.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2020년 5월과 6월에는 고용 감소 폭도 2020년 초보다 소폭 증가했다. 하지만 이후 감소세가 둔화하여 섬유

유제품 제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2020년 9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2천 명, 10월에는 3천 명 증가했다.

섬유제품 제조업과 함께 섬유를 생산하는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에 속하는 화학섬유 제조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도 과거에 비해 감소 폭이 줄어들었다. 2020년 3월 이전까지 매우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이던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 섬유제품 업종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여전히 감소세지만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감소 폭이 크게 줄어들었다. 반면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감소 폭이 더욱 커지고 있다. 2020년 3월 이전에도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감소세가 지속되다가 2020년 3월 들어 감소 폭이 전년 동월 대비 5.4% 수준으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감소율은 2020년 10월까지 더욱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다.

5. 철강 업종

철강 업종⁹⁾은 철을 함유한 철광석, 철스크랩 등을 가공하여 열연 강판, 냉연 강판, 후판, 철근, 강관 등과 같은 철강제품을 생산하는 소재 산업이다(한국고용정보원·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20). 철강 업종에서 생산한 철강제품은 다른 주요 제조업종의 생산을 위한 기초 재료로 이용된다. 철강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9차 개정 중분류 기준 1차 금속 제조업에 해당한다. 철강 업종은 생산물 특성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 소분류 기준 철강을 생산하는 1차 철강 제조업과 비철금속을 생산하는 1차 비철금속 제조업, 철강과 비철금속 주조와 관련된 금속 주조업으로 다시 구분할 수 있다(김수현, 2018).

철강 업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2020년 10월 10만 7천 명으로 전체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0.8%, 제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3.0%를 차지한다(그림 3-17) 참조). 철강 업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2009년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전년 동월 대비 감소세를 보인 후 2009년 12월부터 증가세로 전환되었

9) 「한국표준산업분류」 9차 개정 산업 세세분류 기준 24111, 24112, 24113, 24119, 24121, 24122, 24123, 24131, 24132, 24191, 24199, 24211, 24212, 24213, 24219, 24221, 24222, 24229, 24290, 24311, 24312, 24321, 24322, 24329에 해당하는 산업을 철강 업종으로 분류함.

다. 이후 철강 업종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빠르게 증가했으며 2013년 4월까지 전년 동월 대비 증가세가 이어졌다. 이에 따라 철강 업종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2009년 12월 12만 7천 명에서 2013년 4월 14만 3천 명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2013년 4월 이후 철강 업종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감소세를 지속했다. 2013년 12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전년 동월 대비 10% 이상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감소하기도 했다. 2013년 5월부터 시작된 철강 업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감소세는 2020년 10월까지 계속되었다.

[그림 3-17] 월별 철강 업종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추이

(단위: 천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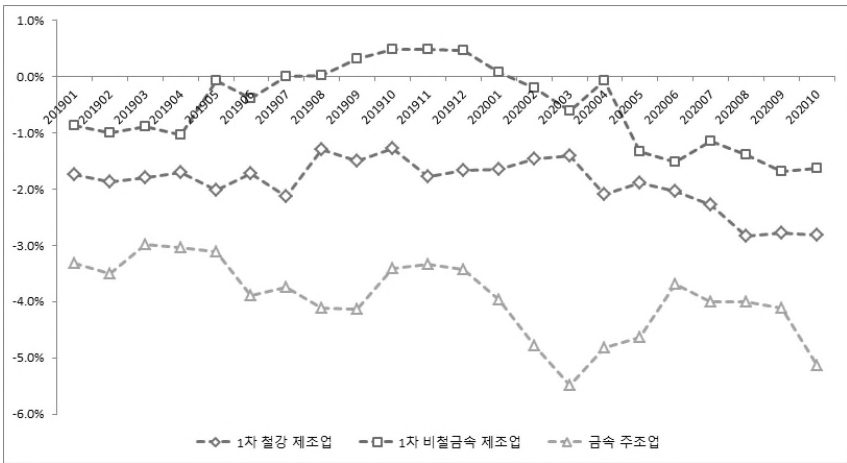
주: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좌측 축,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은 우측 축 참조.
 자료: 「고용보험 피보험자 DB」

철강 업종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감소세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전체 취업자가 감소했던 기간에도 계속되었다. 철강 업종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2017년 1월 이후 전년 동월 대비 2% 미만의 감소율을 보였으나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취업자가 감소한 2020년 3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1.8% 감소했으며 4월부터 감소 폭이 전년 동월 대비 2% 이상 증가했다. 이후 감소율은 더욱 확대되었는데 2020년 10월에는 철강 업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전년 동월 대비

2.9% 감소했다. 여기에는 다른 영향도 있겠지만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전 세계 제조업의 가동률이 감소하면서 철강 업종 생산물에 대한 수요가 감소한 것이 철강 업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감소 폭을 확대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18] 월별 철강 업종 세부 산업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변동 추이

(단위: %)



자료: 「고용보험 피보험자 DB」

「한국표준산업분류」 소분류 산업별 규모로 보면 철강 업종 고용보험 피보험자 중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1차 철강 제조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감소가 최근 철강 업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18) 참조). 1차 철강 제조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감소 규모가 2020년 3월 이후 전년 동월 대비 꾸준히 증가했으며 2020년 10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2천 명 이상 감소했다. 하지만 다른 두 산업 역시 최근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감소 폭이 더욱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1차 비철금속 제조업은 2020년 2월 이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감소세로 전환된 이후 감소 폭이 더욱 커졌으며, 금속 주조업은 2020년 6월까지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감소 폭이 줄어들었지만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6. 반도체 업종

반도체 업종¹⁰⁾은 한국의 대표적인 수출 주력 산업 중 하나로 반도체 제조 기업 외에도 반도체 장비, 재료, 설계 기업 등 후방산업을 포괄하고 있는 IT 관련 핵심 부품 산업이다(한국고용정보원·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20). 반도체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9차 개정 중분류 기준으로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과 전기장비 제조업의 일부 산업으로 구성된다. 생산물을 기준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구분하면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상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 반도체소자 제조업,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2020년 10월 반도체 업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13만 명으로 전체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0.9%를, 제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3.7%를 차지한다(그림 3-19 참조). 반도체 업종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작지만 최근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으로 경제성장과 생산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반도체 업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2012년 12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전년 동월 대비 감소를 지속했으며 2015년 7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전년 동월 대비 증가세를 보인 이후 다시 감소세로 전환해 2017년 2월까지 전년 동월 대비 감소세가 이어졌다.

하지만 2017년 3월부터 반도체 업종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증가세를 지속했다. 2018년에는 반도체 업종이 호황을 누리면서 반도체 업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도 많이 늘어났다. 이는 반도체 업종에서 2018년 3월부터 8월까지 전년 동월 대비 10% 이상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증가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하지만 2019년 들어 반도체 업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증가세가 점차 둔화하는 양상을 보였다. 2019년 12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2.1% 늘어나는 데 그쳤으며 2020년 1월과 2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1.0% 증가했다.

10) 「한국표준산업분류」 9차 개정 산업 세세분류 기준 26110, 26120, 29271에 해당하는 산업을 반도체 업종으로 분류함.

[그림 3-19] 월별 반도체 업종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추이

(단위: 천 명, %)



주: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좌측 축,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은 우측 축 참조.

자료: 「고용보험 피보험자 DB」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반도체 업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단기적으로 증가세가 소폭 둔화되었다. 2020년 3월과 4월에 반도체 업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0.8%와 0.9% 증가하는 수준에 그쳤다. 하지만 이후 반도체 업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증가 폭이 다시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다. 5월 들어 전년 동월 대비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율이 1.1%로 1%대를 회복했으며 8월에는 2.5%로 2%대를 넘어섰다. 2020년 10월 반도체 업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2천 명이 늘어나 3.4%가 증가하면서 증가 폭이 더욱 확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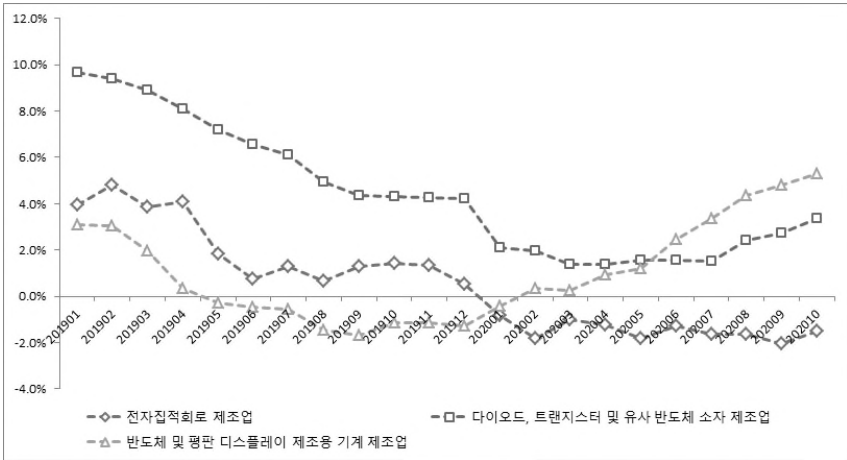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 수준 산업별로 보면 최근 전자집적회로 제조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20 참조).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산업 기준으로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에 속한 전자집적회로 제조업은 2020년 1월 이후 전년 동월 대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계속해서 감소했다. 반면,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 수준에서 반도체 업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

는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 반도체소자 제조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2020년에도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 반도체소자 제조업은 2020년 3월과 4월에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세가 소폭 둔화하였으나 5월 이후 다시 증가세를 회복하며 최근 반도체 업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기준 전기장비 제조업에 속하는 반도체 및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에 속한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도 2019년 5월부터 2020년 1월까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감소했다. 하지만 2020년 2월부터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증가세로 전환되었고 이후 증가 폭이 확대되면서 반도체 업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에 기여하고 있다.

[그림 3-20] 월별 반도체 업종 세부 산업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변동 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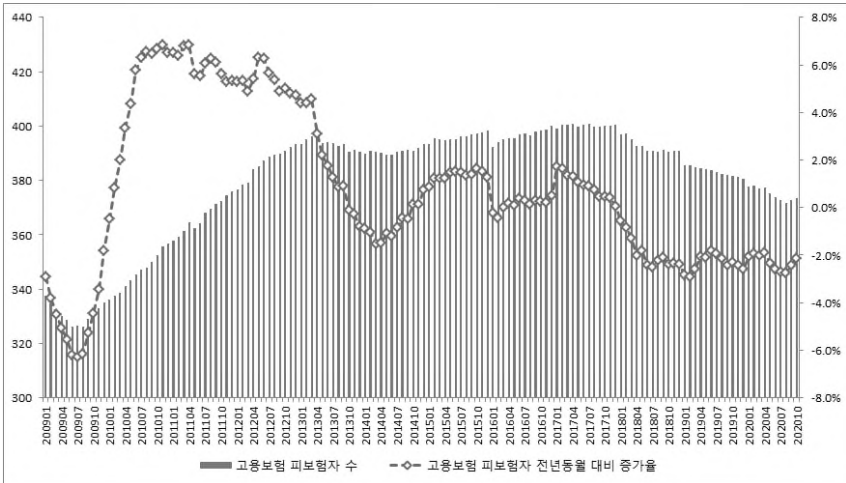
자료: 「고용보험 피보험자 DB」

7. 자동차 업종

자동차 업종¹¹⁾은 철강, 플라스틱, 고무, 유리 등 소재 산업의 생산물과 석유화학, 전기·전자, 기계 업종 등에서 생산한 수많은 부품을 조립해 차량을 생산하는 종합 제조업이다(한국고용정보원·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20). 자동차 업종은 한국의 경제성장을 견인한 매우 중요한 산업 중 하나로 경제위기를 거치면서도 성장세를 지속했으며, 경제위기 후 회복 국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자동차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9차 개정 중분류 기준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에 해당한다. 이런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은 생산물의 특성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 소분류 기준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 자동차 부품 제조업으로 구성된다(김수현, 2018).

[그림 3-21] 월별 자동차 업종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추이

(단위: 천 명, %)



주: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좌측 축,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은 우측 축 참조.

자료: 「고용보험 피보험자 DB」

11) 「한국표준산업분류」 9차 개정 산업 세세분류 기준 30110, 30121, 30122, 30201, 30202, 30203, 30310, 30320, 30391, 30392, 30399에 해당하는 산업을 전자 업종으로 분류함.

2020년 10월 자동차 업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37만 3천 명으로 전체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2.6%이며, 제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10.6%를 차지한다(그림 3-21 참조). 자동차 업종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2009년에 전년 동월 대비 감소했다. 하지만 다른 주요 업종과 마찬가지로 자동차 업종도 2010년 들어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는데 2010년 2월 들어 전년 동기 대비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증가한 이후 2013년 9월까지 자동차 업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증가세를 지속했다.

자동차 업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2013년 10월 이후 증가와 감소를 반복했다. 2013년 10월에 자동차 업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감소했으며 이 감소세는 2014년 9월까지 이어졌다. 2014년 10월 들어 자동차 업종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다시 증가했으며 2017년 12월까지 2016년 1월과 2월을 제외하고는 전년 동월 대비 증가세를 지속했다. 하지만 2018년 1월부터 자동차 업종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다시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그리고 이 감소세는 2020년 10월까지 계속되고 있는데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감소세가 오랜 기간 계속되면서 2017년 12월 40만 명 수준이었던 자동차 업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2020년 들어 38만 명 미만으로 줄어들었다.

코로나19의 확산과 함께 자동차 업종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감소세를 지속했다. 자동차 업종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2020년 3월에 전년 동월 대비 2.0% 감소했으며 이런 감소세를 이후에도 지속하였다. 여기에는 안정적으로 성장했던 자동차 업종이 최근 저성장 국면에 접어든 영향도 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국내 자동차 생산이 감소하고 기존의 저성장 국면이 더욱 심화한 것도 자동차 업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감소하는 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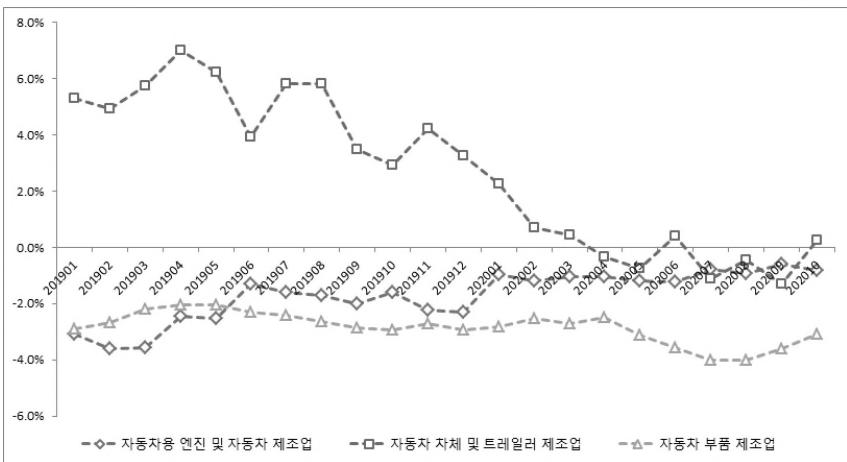
「한국표준산업분류」 소분류 산업별로 보면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과 자동차 부품 제조업은 2020년 이전부터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감소세를 지속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3-22 참조).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2018년 4월부터 감소세를 지속했다. 자동차 업종에 속한 「한국표준산업분류」 소분류 산업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가장 많은 자동차 부품 제조업은 2017년 12월부터 전년 동월 대비 감소세를 지

속하였다. 특히 자동차 부품 제조업은 2020년 5월 이후 고용보험 피보험자 감소세가 더욱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코로나19 확산이 자동차 부품 제조업의 고용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완성차 생산 업체가 포함된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코로나19 확산에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감소 폭이 2019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수준을 유지했다.

「한국표준산업분류」 소분류 산업 중 자동차 업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에서 가장 작은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은 2020년 들어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증가율이 둔화하다가 4월부터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고용 규모로 보았을 때 큰 폭의 감소는 아니지만 이처럼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변화하는 양상은 코로나19 확산이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 고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3-22] 월별 자동차 업종 세부 산업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변동 추이

(단위: %)



자료: 「고용보험 피보험자 DB」

제4절 소결

이상에서는 제조업과 주요 제조업종의 고용 변동 양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제조업은 노동시장의 생산과 고용에 중요한 산업으로 제조업의 고용 변동 양상을 파악하는 것은 경제성장 및 노동시장의 정책 수립에 있어 중요한 의미가 있다. 본 장에서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이용해 전체 제조업의 고용 변동 양상을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최근 제조업의 취업자 수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는 2020년 이전부터 지속해 왔던 제조업의 경기 침체가 영향을 주기도 했지만,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전 세계 제조업의 경기 침체로 인한 영향도 있다고 판단된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감소했던 제조업의 취업자 수는 2020년 들어서도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감소세를 지속했다.

2020년 제조업의 취업자 수가 변동하는 양상을 분석한 결과 코로나19는 남성보다 여성 취업자에게 상대적으로 큰 충격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 별로는 60세 이상 연령대에서는 취업자가 증가했지만 다른 연령대에서는 취업자가 감소했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시직과 일용직 취업자의 감소 폭이 컸으며, 사업체 규모별로는 3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코로나19 확산 국면에서 고용 감소를 경험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직업별로 보면 제조업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에도 단순 노무직 종사자와 함께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는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가 증가했다. 그러나 사무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의 경우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수가 감소했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보았을 때 코로나19 확산은 제조업 일자리 전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여성 일자리나 임시직, 일용직과 같이 고용이 불안정한 일자리 종사자는 코로나19의 위협이 더 컸을 것으로 보인다. 직업별로 보면 코로나19 확산 국면에서 중간숙련 일자리와 사무직 일자리가 감소하는 반면, 저숙련 일자리와 고숙련 일자리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위협이 상대적으로 작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코로나19 확산 국면에서의 이와 같은 상황이 계속될 경우 노동시장 내 양극화가 또 다른 문제로 부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제조업의 고용 변동 양상을 지속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주요 제조 업종별 고용 변동 양상에 대한 분석에서는 반도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주요 제조 업종에서 최근 고용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DB」를 이용한 분석에서 반도체 업종은 최근 고용이 증가했지만 기계, 조선, 전자, 섬유, 철강, 자동차 업종은 전년 동월 대비 고용이 감소했다. 이 중 기계, 전자, 섬유 등의 업종은 최근 고용 감소세가 다소 완화되었고 조선, 철강 업종의 고용은 여전히 감소세를 지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주요 제조 업종의 고용 감소는 2020년 이전부터 지속했던 해당 제조 업종의 경기 침체도 영향을 미쳤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수출과 생산의 위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이러한 고용 감소는 단기적 측면의 영향일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변화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Autor and Reynolds(2020)의 주장처럼 자동화 등과 관련된 기술의 도입 수준과 속도에 코로나19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요 제조 업종과 관련해 이와 같은 변화는 일자리에서의 노동력 대체를 가져오는 요인이 되기도 하지만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변화를 면밀히 고찰할 필요가 있다.

제4장

건설업 및 주요 서비스업 고용 변동 양상 분석

제1절 서론

2020년의 코로나19 확산은 국내 생산과 고용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실질 국내총생산은 계절조정계열 기준으로는 전기 대비 2020년 1분기와 2분기에 감소했으며 원계열 기준으로는 전년 동기 대비 2020년 2분기와 3분기에 감소했다. 2020년 3분기에는 계절조정계열 기준으로 전기 대비 실질 국내총생산이 증가하면서 2분기보다 경제 상황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지만 여전히 지난해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 기온이 하강하면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증가할 경우 경기 회복 속도는 예상보다 느려질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은 노동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2020년 1월 20일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최초로 발생한 후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면서 2020년 3월부터 취업자 수가 감소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에 따르면 2020년 3월 취업자 수는 2,660만 9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9만 5천 명

감소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한 것은 2010년 1월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코로나19 확진자는 3월에도 빠르게 증가해 경제와 노동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그 영향으로 취업자 감소 규모는 4월 들어 전년 동월 대비 47만 6천 명 수준으로 증가했다.

코로나19 확산은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등 주요 서비스업의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의 취업자 수는 감소세를 보였다. 다른 요인도 작용했겠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해당 서비스업과 관련한 시장 수요가 감소하면서 취업자 수 역시 그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숙박 및 음식점업, 도매 및 소매업, 교육 서비스업은 2020년 3월 이후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수가 지속해서 감소했다.

건설업 역시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았다. 건설업은 노동집약적인 산업으로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산업 중 하나이다. 이에 한국고용정보원·한국산업기술진흥원(2020)은 매년 상·하반기 건설업에 대한 고용을 전망하고 있다. 건설업의 취업자 수 역시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건설업은 2020년 2월부터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수가 감소했다. 이와 같은 건설업 취업자 감소에는 이전부터 지속되었던 민간부문 건설투자 축소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건설 경기 침체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상의 주요 서비스업과 달리 취업자 수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20년 9월에 5만 5천 명이, 10월에는 3만 7천 명의 취업자가 전년 동월 대비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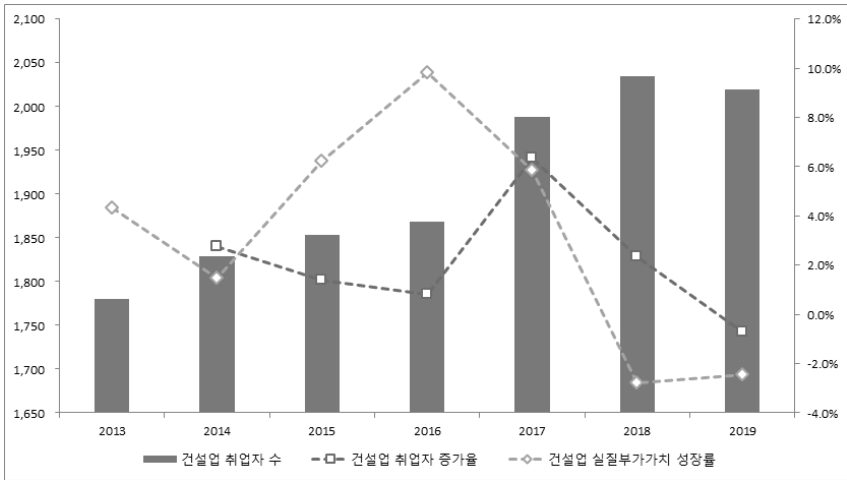
본 장에서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고용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등 주요 서비스업과 고용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건설업의 고용 변동 양상을 살펴본다. 이상의 산업들은 모두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취업자가 감소세를 보이거나, 감소세를 보이다 최근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산업으로 코로나19 확산이 해당 산업의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분석에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이용했다. 2절에서는 건설업, 3절에서는 도매 및 소매업, 4절에서는 숙박 및 음식점업, 5절에서는 교육 서비스업의 고용 변동 양상을 각각 분석하였다.

제2절 건설업 고용 변동 추이 및 특성 분석

「한국표준산업분류」는 건설업에 대해 “계약 또는 자기계정에 의하여 지반조성을 위한 발파·시굴·굴착·정지 등의 지반공사, 건설용지에 각종 건물 및 구축물을 신축 및 설치, 증축·재축·개축·수리 및 보수·해체 등을 수행하는 산업 활동으로서 임시 건물, 조립식 건물 및 구축물을 설치하는 활동도 포함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다. 건설업은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전체 고용 변동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2020년 10월 기준 건설업 취업자 수는 207만 5천 명이다.

[그림 4-1] 연도별 건설업 취업자 수 및 실질 부가가치 성장률 추이

(단위: 천 명, %)



주: 취업자 수는 좌측 축, 취업자 증가율 및 실질 부가가치 성장률은 우측 축 참조.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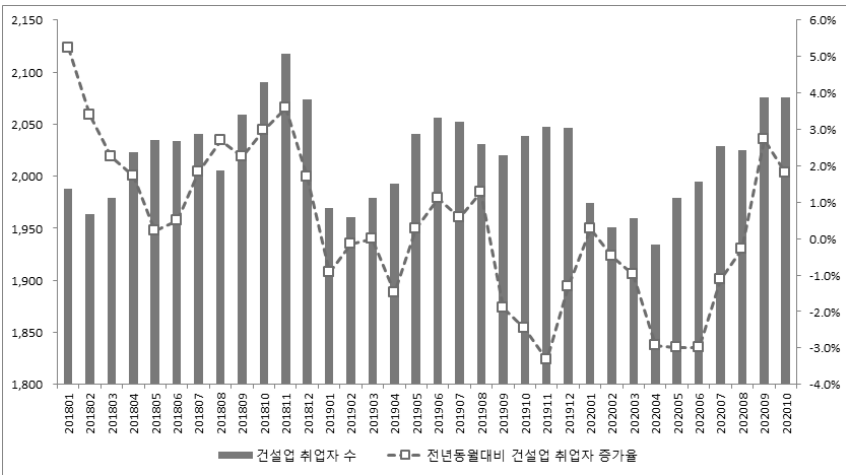
건설업의 취업자 수는 2017년까지 건설업의 실질 부가가치가 성장하면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그림 4-1 참조). 연도별로 건설업의 취업자 수 추이를 살펴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전년 대비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건설업의 실질 부가가치가 전년 대비 9.8% 증가한 2016년의 다음 해인 2017년 건설업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6.4% 증가했다. 2017년에 전체 취업자

수가 1.2% 증가한 데 반해 건설업 취업자 수는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건설업 실질 부가가치 성장률이 감소한 2018년에도 건설업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2.3% 증가하며 203만 4천 명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2019년 들어 건설업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감소했다. 건설업의 실질 부가가치는 그 전인 2018년에 이미 전년 대비 2.8% 감소했으며 2019년에도 전년 대비 2.5% 줄어들었다. 건설업의 실질 부가가치 감소는 민간부문 건설투자 축소에 따른 결과로 건설업의 민간 신규 투자가 감소하면서 건설업 일자리도 2019년 들어 감소한 것이다.

[그림 4-2] 월별 건설업 취업자 증가 추이

(단위: 천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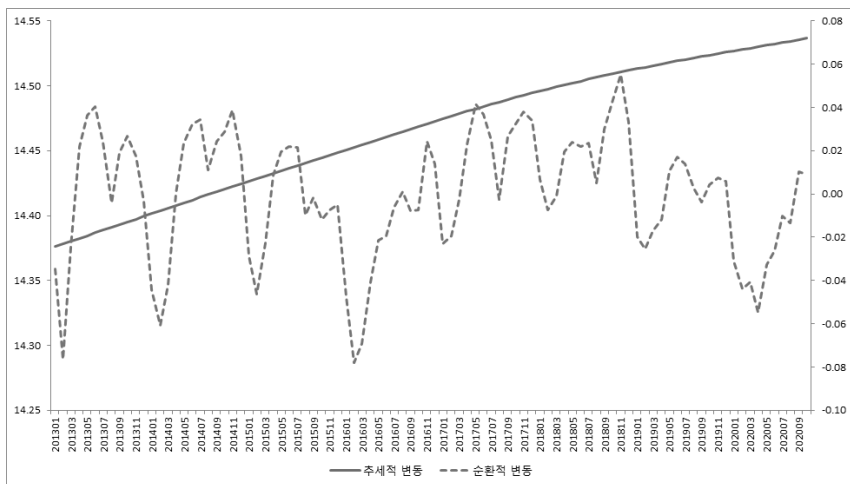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건설업의 취업자 수는 2020년 들어서도 감소세를 보였다(그림 4-2 참조). 2019년 5월부터 8월까지 건설업의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증가했지만 9월부터 12월까지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하면서 2019년 평균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감소했다. 2020년 1월 건설업의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5천 명이 늘어 0.3% 증가했다. 하지만 2월 들어 다시 전년 동월 대비 0.5% 감소했으며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전체 취업자 수가 감소한 2020년 3월에는 건설업 취업

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1.0% 감소했다. 이후 6월까지 건설업의 취업자 수 감소 폭은 더욱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전년 동월 대비 건설업의 취업자 수 감소율은 2020년 4월 2.9%로 증가했으며 5월과 6월에도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수가 3.0% 감소했다.

코로나19 확산 국면에서 건설업의 취업자 수 역시 감소한 것이다. 하지만 전체 취업자 수는 2020년 10월까지 전년 동월 대비 감소세가 지속된 반면, 건설업의 취업자 수는 2020년 9월 들어 전년 동월 대비 증가했다. 2020년 9월 건설업 취업자 수는 207만 6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7% 늘어났다. 10월에도 건설업의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1.8% 증가했다. 건설업의 취업자 수가 코로나19 확산 국면에도 증가할 수 있었던 데에는 2020년 3분기 들어 비주거용 건물이나 토목 건설 생산은 성장세가 둔화했지만 감소세를 보였던 주거용 건물건설 생산이 코로나19 확산에도 2분기와 3분기에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림 4-3] 건설업 취업자 추세(2013년 1월~2020년 10월)



주: 추세적 변동치는 좌측 축, 순환적 변동치는 우측 축 참조.

3장에서와 마찬가지로 HP 필터를 이용해 최근의 건설업 취업자 수 변동을 추세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건설업 취업자는 추세적으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

지만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순환적 변동치의 감소로 고용이 감소했다고 볼 수 있다(그림 4-3 참조). 건설업 취업자의 순환적 변동치가 2020년 4월 최하를 기록한 후 증가하면서 건설업의 취업자 수는 최근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하였다.

최근 건설업의 취업자 수 변동 양상을 성별로 살펴보면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았던 시기에 남성 취업자의 감소 폭이 더 컸음을 확인할 수 있다(〈표 4-1〉 참조). 코로나19 확산 이후 전체 취업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여성 취업자가 더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건설업에서는 2020년 2월부터 남성 취업자를 중심으로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가 감소했다. 2020년 8월까지 이어졌던 건설업의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감소세는 여성 취업자는 증가했으나 남성 취업자가 감소한 데 따른 결과였다. 하지만 최근 들어 반대되는 경향이 관측되었다. 2020년 9월과 10월에 건설업의 취업자가 증가했는데 이 시기에는 건설업의 여성 취업자는 감소하고 남성 취업자가 증가하면서 건설업의 전체 취업자가 증가했다.

〈표 4-1〉 2020년 성별 전년 동월 대비 건설업 취업자 변동

(단위: 천 명)

구분	취업자 수			전년 동기 대비 증감		
	전체	여성 취업자	남성 취업자	전체	여성 취업자	남성 취업자
1월	1,974	204	1,770	5	-2	8
2월	1,951	204	1,747	-10	11	-20
3월	1,960	211	1,748	-20	14	-33
4월	1,934	209	1,726	-59	14	-73
5월	1,979	212	1,768	-61	12	-73
6월	1,995	216	1,778	-61	10	-72
7월	2,029	214	1,815	-23	7	-30
8월	2,025	207	1,818	-6	6	-12
9월	2,076	199	1,876	55	-5	60
10월	2,075	199	1,876	37	-3	39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건설업의 취업자 변동을 연령대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전체 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60세 이상 연령대의 취업자 수는 코로나19 확산 국면에서도 증가세를 지속했다(〈표 4-2〉 참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전체 취업자 수가 감소했던 2020년 3월부터 8월까지 60세 이상 연령대의 건설업 취업자 수는 증가 폭이 이전보다 줄어들었지만 증가세를 지속했다.

〈표 4-2〉 2020년 연령대별 전년 동월 대비 건설업 취업자 변동

(단위: 천 명, %)

구분	전체	20세 미만	20세 이상 30세 미만	30세 이상 40세 미만	40세 이상 50세 미만	50세 이상 60세 미만	60세 이상	
취 업 자 수	1월	1,974	4	136	296	553	665	320
	2월	1,951	3	141	305	532	653	318
	3월	1,960	1	141	297	534	664	322
	4월	1,934	2	150	293	523	638	329
	5월	1,979	3	156	305	532	653	331
	6월	1,995	4	155	300	518	674	343
	7월	2,029	6	159	317	522	689	336
	8월	2,025	5	162	305	527	687	340
	9월	2,076	3	156	309	543	703	361
	10월	2,075	3	167	302	528	717	358
취 업 자 증 감	1월	5	2	-10	8	-40	-6	50
	2월	-10	3	-8	14	-56	-13	51
	3월	-20	1	-5	8	-53	-8	37
	4월	-59	-1	4	1	-50	-39	27
	5월	-61	0	11	7	-44	-44	9
	6월	-61	-1	1	3	-47	-29	13
	7월	-23	0	6	22	-45	-9	2
	8월	-6	-2	10	14	-50	15	8
	9월	55	-1	5	17	-18	11	42
	10월	37	-2	16	4	-37	16	4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건설업의 취업자 중 20세 이상 30세 미만 연령대와 30세 이상 40세 미만 연령대도 코로나19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전체 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60세 이상 고연령층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취업자 수가 감소세를 보인 반면, 건설업에서 20세 이상 30세 미만 연령대 취업자는 2020년 3월까지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하지만 4월부터 증가세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30세 이상 40세 미만 연령대의 취업자는 2020년 들어 취업자 증가세를 지속했다.

반면 건설업 취업자 중 40세 이상 50세 미만 연령대에서는 취업자 감소세가 뚜렷하게 관측되었다. 건설업에서 40세 이상 50세 미만 연령대 취업자 수는 2020년 들어 전년 동월 대비 감소세를 지속했으며 상대적으로 다른 연령대보다 감소 폭도 더 컸다. 40세 이상 50세 미만 연령대와 함께 50세 이상 60세 미만 연령대 건설업 취업자도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50세 이상 60세 미만 연령대의 건설업 취업자 수는 4월부터 6월까지 큰 폭으로 감소했으나 이후 감소세가 둔화되었으며 8월부터는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종사상 지위별로 살펴보면 건설업 취업자 역시 상대적으로 임시직과 일용직 등 고용이 불안정한 취업자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영향을 더 많이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표 4-3〉 참조). 건설업의 상용직 취업자는 2020년 3월 이후에도 전년 동월 대비 증가세를 지속하였지만 임시직과 일용직 취업자의 경우 감소하거나 증가세가 둔화하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일용직 취업자의 경우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전년 동월 대비 큰 폭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건설업 취업자가 증가한 2020년 9월과 10월에는 건설업의 일용직 취업자도 증가했다.

비임금근로자 중에서는 전체 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과 마찬가지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감소 폭이 컸다. 건설업에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수는 2020년 들어 전년 동월 대비 감소세를 지속했다. 하지만 건설업 역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악화로 고용을 하지 않는 고용원이 없는 독립 자영업자가 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해 이상의 고용 변동 양상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표 4-3〉 2020년 종사상 지위별 전년 동월 대비 건설업 취업자 변동

(단위: 천 명, %)

구분	전체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고용주	자영자	무급가족 종사자	
취 업 자 수	1월	1,974	750	229	605	114	251	24
	2월	1,951	760	235	574	114	244	24
	3월	1,960	760	237	574	101	263	24
	4월	1,934	760	235	554	98	266	22
	5월	1,979	769	256	576	96	258	24
	6월	1,995	774	253	608	87	247	26
	7월	2,029	788	238	646	90	245	22
	8월	2,025	788	268	606	101	242	20
	9월	2,076	782	261	665	96	251	21
	10월	2,075	779	256	666	99	254	22
취 업 자 증 감	1월	5	70	-18	-13	-35	13	-12
	2월	-10	58	1	-22	-37	0	-9
	3월	-20	65	5	-56	-41	15	-8
	4월	-59	58	-4	-83	-44	20	-6
	5월	-61	62	5	-86	-49	9	-1
	6월	-61	58	-5	-47	-50	-17	0
	7월	-23	67	-10	-22	-37	-15	-5
	8월	-6	56	18	-39	-23	-15	-3
	9월	55	54	-1	39	-21	-13	-2
	10월	37	44	-1	18	-19	-4	0

주: 고용주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를, 자영자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를 의미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소규모 사업체의 취업자가 더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4-4〉 참조). 5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체와 5인 이상 10인 미만 규모의 사업체는 2020년 1월과 2월 모두 취업자가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하였고,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전체 취업자가 감소한 3월에는 감소 폭이 더욱 확대되었으며 이후에도 감소 폭이 점차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0인 이상 30인 미만인 사업체와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인 사업체는

2020년 1월 이후 취업자가 증가세를 지속했으며, 종사자가 300명 이상인 사업체에서는 2020년 4월 이후 취업자 수가 감소했으나 감소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았다.

<표 4-4> 2020년 사업체 규모별 전년 동월 대비 건설업 취업자 변동

(단위: 천 명, %)

구분	전체	5인 미만	5인 이상 10인 미만	10인 이상 30인 미만	30인 이상 100인 미만	100인 이상 300인 미만	300인 이상	
취 업 자 수	1월	1,974	657	504	470	197	85	61
	2월	1,951	640	487	475	196	92	61
	3월	1,960	646	496	471	201	95	50
	4월	1,934	644	483	480	182	99	46
	5월	1,979	642	512	485	190	96	55
	6월	1,995	636	523	489	203	88	56
	7월	2,029	649	514	502	215	91	58
	8월	2,025	656	511	484	224	90	60
	9월	2,076	678	544	491	222	84	56
	10월	2,075	684	551	487	209	89	55
취 업 자 증 감	1월	5	-9	-9	-6	7	13	9
	2월	-10	-25	-14	-1	2	16	13
	3월	-20	-34	-24	19	1	19	0
	4월	-59	-54	-41	30	-13	22	-2
	5월	-61	-56	-34	18	-13	24	-1
	6월	-61	-82	-33	44	-6	22	-6
	7월	-23	-50	-55	47	13	24	-2
	8월	-6	-46	-45	29	32	21	2
	9월	55	-22	-8	39	41	10	-5
	10월	37	-4	-13	20	25	14	-5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직업별로 보면 건설업에서는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가 코로나19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표 4-5〉 참조).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의 수는 2020년 2월까지 전년 동월 대비 증가했지만 3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2만 9천 명이 감소했다. 이후 감소 폭이 더 커져 4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7만 8천 명이 줄어들었으며 5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8만 6천 명이 감소했다. 이후 감소세가 점차 줄어들고 2020년 9월과 10월에는 건설업의 전체 취업자가 증가하면서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역시 증가했지만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가장 많은 취업자가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건설업의 관리자 직업에 종사하는 취업자 역시 2020년 3월 이후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표 4-5〉 2020년 직업별 전년 동월 대비 건설업 취업자 수 변동

(단위 : 천 명)

구분	취업자 수								전년 동기 대비 증감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A	53	53	52	56	54	55	54	54	-19	-24	-22	-16	-17	-14	-17	-13
B	172	170	178	177	178	176	176	180	0	3	9	10	10	10	11	9
C	265	270	280	279	284	284	271	270	19	27	42	32	34	27	12	8
D	1	1	1	2	1	2	2	2	1	0	0	0	0	0	1	0
E	21	23	25	22	23	24	21	21	3	4	2	0	3	-1	-2	-2
F	4	4	3	3	2	2	2	3	-1	-1	-1	-3	-3	-2	-3	-2
G	954	916	923	939	960	978	1,016	1,019	-29	-78	-86	-83	-51	-10	37	30
H	163	167	166	151	153	155	160	164	2	3	-9	-19	-18	-22	-18	-4
I	327	330	351	365	373	350	374	364	5	7	3	15	18	7	35	10

주: A 관리자, B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C 사무 종사자, D 서비스 종사자, E 판매 종사자, F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G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H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I 단순 노무 종사자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반면 건설업의 단순 노무 종사자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전체 취업자 수가 감소했던 2020년 3월 이후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가 증가했다. 2020년 1월과 2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수가 감소했으나 3월 들어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수가 증가했으며 이후에도 취업자 수 증가세가 이어졌다.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역시 단순 노무 종사자와 같은 추이를 보였다. 건설업의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직업의 취업자는 2020년 1월과 2월에 전년 동월 대비 감소했으나 3월부터 10월까지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가세를 지속했다. 건설업 사무 종사자 역시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취업자 수가 증가했다. 건설업의 사무 종사자 직업은 2020년 1월부터 10월까지 취업자 수가 증가세를 유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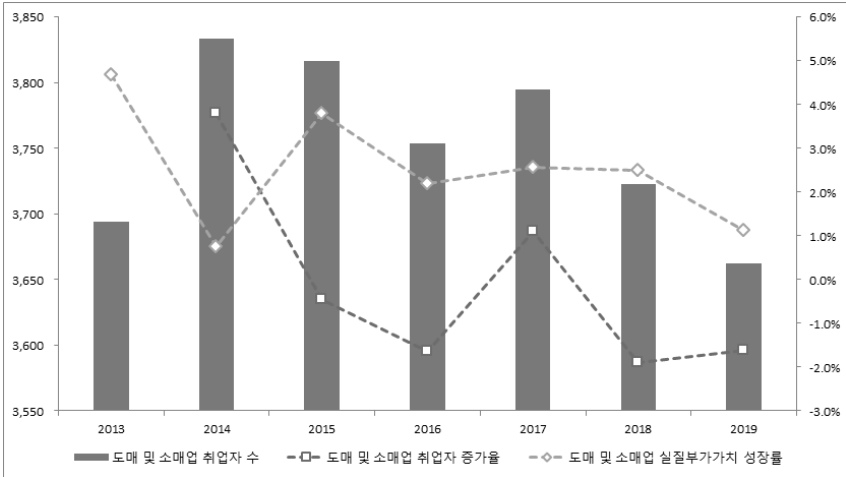
제3절 도매 및 소매업 변동 추이 및 특성 분석

「한국표준산업분류」는 도매 및 소매업을 “구입한 각종 신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구매자에게 재판매하는 도매 및 소매 활동, 판매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지 않고 구매자와 판매자를 위하여 판매 또는 구매를 대리하는 상품 중개, 대리 및 경매 활동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도매 및 소매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기준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도매 및 상품 중개업, 소매업으로 구성되며 생산자와 소비자를 이어주는 유통 활동을 담당한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2020년 10월 도매 및 소매업의 취업자 수는 344만 5천 명이다. 도매 및 소매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산업 중 제조업 다음으로 취업자 수가 많은 산업이다.

연도별 도매 및 소매업의 취업자 수 변동 추이를 살펴보면 도매 및 소매업의 취업자 수는 2014년 큰 폭으로 증가하지만 이후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지속하였다(그림 4-4 참조). 2014년에 전년 대비 3.8%인 14만 명이 증가해 도매 및 소매업의 취업자 수는 383만 4천 명으로 늘어났으나 2016년까지 감소세를 지속하면서 다시 375만 4천 명까지 줄어든다. 2017년에 전년 대비 1.1%의 취업자가 증가했지만 2018년에 전년 대비 1.9%의 취업자가, 2019년에는 전년 대비 1.6%의 취업자가 감소하면서 2019년 도매 및 소매업의 취업자 수는 366만 3천 명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그림 4-4] 연도별 도매 및 소매업 취업자 수 및 실질 부가가치 성장률 추이

(단위: 천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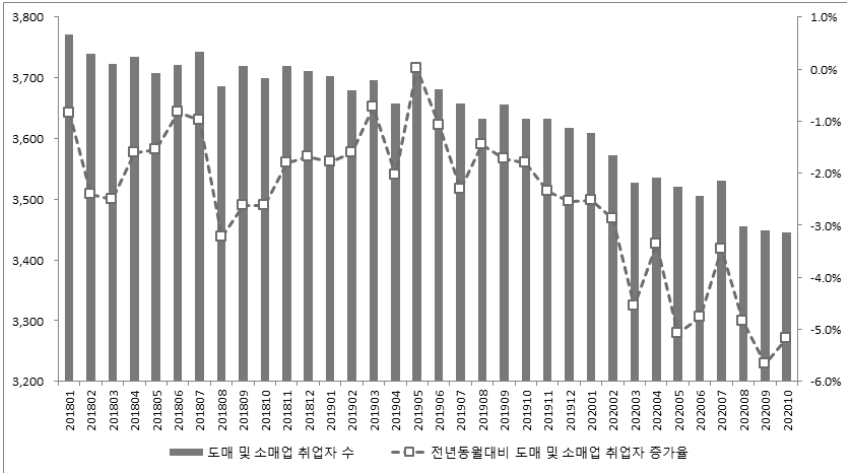
주: 취업자 수는 좌측 축, 취업자 증가율 및 실질 부가가치 성장률은 우측 축 참조.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한국은행

도매 및 소매업의 취업자 수는 2020년 들어서도 계속해서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그림 4-5] 참조). 2017년 12월 이후 2019년 5월을 제외하고는 전년 동월 대비 감소세를 지속하였다.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전체 취업자 수가 감소한 2020년 3월 이전에도 도매 및 소매업의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2020년 1월과 2월에 도매 및 소매업의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9만 4천 명과 10만 6천 명이 감소했다.

이런 도매 및 소매업의 취업자 수 감소 폭은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더욱 커졌다. 2020년 3월 도매 및 소매업 취업자 수는 352만 7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6만 8천 명 감소했다. 이후에도 도매 및 소매업의 취업자 수 감소세는 계속되었는데 5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18만 9천 명이 감소하면서 감소 폭이 더욱 커졌다. 5월 이후 도매 및 소매업 취업자 수 감소세는 조금 둔화되는 듯했으나 2020년 8월부터 다시 취업자 수가 감소하면서 감소 폭은 더 확대되었다. 도매 및 소매업의 취업자 수는 2020년 9월에 전년 동월 대비 20만 7천 명이 감소했으며, 10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18만 8천 명이 줄어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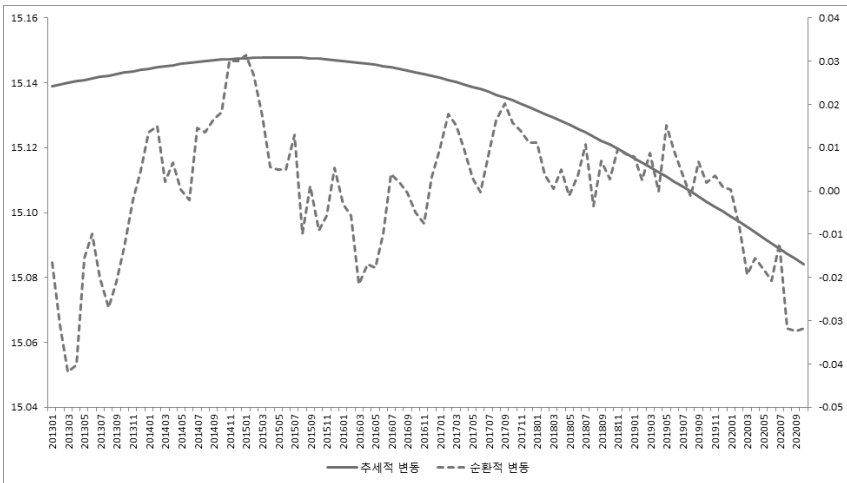
[그림 4-5] 월별 도매 및 소매업 취업자 증가 추이

(단위: 천 명,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4-6] 도매 및 소매업 취업자 추세(2013년 1월~2020년 10월)



주: 추세적 변동치는 좌측 축, 순환적 변동치는 우측 축 참조.

HP 필터를 이용해 도매 및 소매업의 취업자 수를 추세적 변동과 순환적 변동으로 구분해 살펴보면 도매 및 소매업의 최근 취업자 수 감소는 장기 추세적인 감소가 영향을 미쳤다(그림4-6 참조). 도매 및 소매업의 취업자 수는 추세적으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순환적 변동치의 감소 역시 고용 감소에서 큰 부분을 차지함을 확인할 수 있다. 2020년 들어 코로나19 확산이 가져온 소비 감소로 인한 충격이 도매 및 소매업의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다.

성별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여성 취업자와 남성 취업자 모두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4-6 참조).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전체 취업자가 감소하기 시작한 2020년 3월부터 10월까지 도매 및 소매업의 취업자 감소 규모를 보면 여성 취업자는 월평균 8만 4천 명이 감소했으며, 남성 취업자는 월평균 8만 5천 명이 줄어들었다. 전체적인 감소 규모는 비슷했으나 도매 및 소매업에서 여성 취업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은 것을 고려하면 여성 취업자가 남성보다 감소율이 더 높았다.

〈표 4-6〉 2020년 성별 전년 동월 대비 도매 및 소매업 취업자 변동

(단위: 천 명)

구분	취업자 수			전년 동기 대비 증감		
	전체	여성 취업자	남성 취업자	전체	여성 취업자	남성 취업자
1월	3,609	1,656	1,954	-94	-34	-60
2월	3,573	1,643	1,930	-106	-15	-91
3월	3,527	1,621	1,906	-168	-44	-124
4월	3,536	1,621	1,915	-123	-55	-68
5월	3,520	1,615	1,906	-189	-101	-88
6월	3,505	1,601	1,904	-176	-104	-71
7월	3,530	1,609	1,921	-127	-88	-38
8월	3,456	1,573	1,883	-176	-99	-77
9월	3,448	1,579	1,869	-207	-99	-108
10월	3,445	1,578	1,867	-188	-84	-104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표 4-7〉 2020년 연령대별 전년 동월 대비 도매 및 소매업 취업자 변동

(단위: 천 명)

구분	전체	20세 미만	20세 이상 30세 미만	30세 이상 40세 미만	40세 이상 50세 미만	50세 이상 60세 미만	60세 이상	
취업자 수	1월	3,609	33	538	774	902	828	535
	2월	3,573	28	519	772	902	818	533
	3월	3,527	26	503	773	890	814	522
	4월	3,536	25	508	780	899	800	524
	5월	3,520	32	519	774	883	782	532
	6월	3,505	28	501	779	887	774	535
	7월	3,530	28	518	784	887	762	550
	8월	3,456	25	504	760	877	751	539
	9월	3,448	29	488	766	862	749	553
	10월	3,445	30	487	769	868	731	559
취업자 증감	1월	-94	4	2	-20	-48	-65	34
	2월	-106	4	-11	-28	-45	-61	36
	3월	-168	-5	-40	-31	-47	-63	18
	4월	-123	-5	-30	-14	-39	-55	20
	5월	-189	0	-20	-11	-81	-86	10
	6월	-176	0	-28	11	-64	-92	-2
	7월	-127	-7	-14	45	-58	-106	13
	8월	-176	-5	-35	10	-43	-117	13
	9월	-207	2	-51	1	-50	-128	19
	10월	-188	2	-51	6	-37	-141	33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연령대별로 보면 도매 및 소매업 취업자 중 20세 이상 30세 미만, 40세 이상 50세 미만, 50세 이상 60세 미만 연령대의 취업자 수는 2020년 3월 이후 감소세를 지속했다(〈표 4-7〉 참조). 특히 50세 이상 60세 미만 연령대 취업자는 감소 폭이 점점 증가하면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많은 취업자가 줄어들었다. 반면 60세 이상 연령대 취업자는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증가 폭은 줄어들었지만 2020년 6월을 제외하면 전년 동월 대비 증가세를 유지했다. 30세 이상

40세 미만 연령대 취업자는 5월까지의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가 감소했지만 6월부터는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가 증가했다.

<표 4-8> 2020년 종사상 지위별 전년 동월 대비 도매 및 소매업 취업자 변동
(단위: 천 명)

구분	전체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고용주	자영자	무급가족 종사자	
취업자 수	1월	3,609	1,514	610	135	339	774	237
	2월	3,573	1,523	581	121	337	774	235
	3월	3,527	1,528	560	108	337	771	224
	4월	3,536	1,530	547	122	329	778	230
	5월	3,520	1,503	547	135	325	779	231
	6월	3,505	1,514	546	127	326	766	226
	7월	3,530	1,522	558	133	325	763	229
	8월	3,456	1,490	556	126	319	751	214
	9월	3,448	1,489	552	119	315	762	212
	10월	3,445	1,475	548	122	319	765	215
취업자 증감	1월	-94	76	-92	-19	-46	6	-18
	2월	-106	72	-114	-22	-40	20	-22
	3월	-168	53	-115	-27	-47	1	-32
	4월	-123	70	-136	0	-32	-4	-21
	5월	-189	26	-156	11	-39	-1	-29
	6월	-176	41	-132	-5	-28	-20	-31
	7월	-127	59	-111	-2	-20	-27	-25
	8월	-176	-19	-73	11	-25	-40	-29
	9월	-207	-36	-61	0	-31	-44	-35
	10월	-188	-53	-65	7	-26	-20	-31

주: 고용주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를, 자영자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를 의미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종사상 지위별로 보았을 때 임금근로자 중에서는 임시직 취업자가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한 충격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받은 것으로 보인다(<표 4-8> 참조). 임시직 취업자는 2020년 1월과 2월에도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수가 감

소했지만 3월 이후 감소 폭이 더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다. 도매 및 소매업의 임시직 취업자는 2020년 6월에는 15만 6천 명이 감소했다. 이후 감소 폭이 축소되었지만 2020년 10월까지 감소세를 지속했다. 도매 및 소매업의 상용직 취업자 역시 임시직보다는 느리지만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취업자가 감소했다. 도매 및 소매업 상용직 취업자 수는 2020년 7월까지 전년 동월 대비 증가세를 유지했지만 증가 폭은 3월 이전과 비교해 줄어들었다. 2020년 8월부터는 상용직 취업자 역시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하기 시작했으며 10월에는 감소 폭이 5만 6천 명 수준까지 확대되었다.

도매 및 소매업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2020년 1월부터 취업자 수 감소세가 지속되었다. 도매 및 소매업에 종사하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2020년 3월까지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가했으나 4월 들어 전년 동월 대비 4천 명 감소했으며 이후에도 감소세를 지속했다. 도매 및 소매업의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2020년 6월에 전년 동월 대비 2만 명이 감소한 후 10월까지 매월 전년 동월 대비 2만 명 이상의 취업자가 줄어들었다.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도매 및 소매업의 경우 2장에서 전체 취업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것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소규모 사업체의 취업자가 상대적으로 더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표 4-9〉 참조). 5인 미만 규모 사업체와 5인 이상 10인 미만 규모 사업체에 종사하는 도매 및 소매업 취업자 수는 2020년 1월과 2월에도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수가 감소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전체 취업자 수가 감소한 3월 이후에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감소 폭이 상대적으로 더 커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소규모 사업체에 종사하는 도매 및 소매업의 취업자는 2020년 3월 이후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수 감소세를 지속했다.

<표 4-9> 2020년 사업체 규모별 전년 동월 대비 도매 및 소매업 취업자 변동
(단위: 천 명)

구분	전체	5인 미만	5인 이상 10인 미만	10인 이상 30인 미만	30인 이상 100인 미만	100인 이상 300인 미만	300인 이상	
취 업 자 수	1월	3,609	2,138	532	466	240	129	104
	2월	3,573	2,129	512	462	242	125	102
	3월	3,527	2,081	510	466	248	119	104
	4월	3,536	2,094	492	468	249	125	109
	5월	3,520	2,094	499	456	237	122	112
	6월	3,505	2,071	505	452	239	122	115
	7월	3,530	2,092	502	455	250	130	102
	8월	3,456	2,050	490	454	243	118	100
	9월	3,448	2,052	483	457	237	119	100
	10월	3,445	2,046	497	452	234	119	97
취 업 자 증 감	1월	-94	-41	-37	-19	6	-15	12
	2월	-106	-38	-53	-2	6	-18	0
	3월	-168	-99	-64	1	16	-17	-6
	4월	-123	-62	-68	4	20	-14	-3
	5월	-189	-90	-63	-11	-1	-24	0
	6월	-176	-114	-44	3	-2	-21	4
	7월	-127	-75	-59	19	12	-14	-9
	8월	-176	-89	-60	9	2	-27	-12
	9월	-207	-105	-60	4	-13	-19	-16
	10월	-188	-92	-44	-12	-13	-18	-1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직업별로 보면 도매 및 소매업 취업자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판매 종사자 직업의 취업자가 3월 이후 큰 폭의 감소세를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4-10> 참조). 도매 및 소매업 판매 종사자 수는 2020년 3월 이전에도 전년 동월 대비 감소했다. 2020년 1월과 2월에 도매 및 소매업 판매 종사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각각 8만 5천 명과 9만 명이 줄어들었다. 하지만 코로나 19 확산과 함께 전체 취업자 수가 감소한 3월 들어 감소 폭은 14만 8천 명 수

준으로 확대되었다. 3월 이후에도 도매 및 소매업 판매 종사자는 감소세를 지속했다. 도매 및 소매업의 직업별 취업자 변동을 보았을 때 판매 종사자와 함께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 종사자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취업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단순 노무 종사자 등의 직업에 종사하는 취업자는 코로나19의 충격을 상대적으로 덜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표 4-10> 2020년 직업별 전년 동월 대비 도매 및 소매업 취업자 수 변동

(단위 : 천 명)

구분	취업자 수								전년 동기 대비 증감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A	41	40	42	37	35	35	37	35	10	14	13	8	3	-1	-1	-4
B	221	212	202	200	206	201	211	213	-19	-23	-35	-33	-19	-26	-17	-23
C	621	618	600	606	603	590	590	586	5	-19	-36	-21	-22	-33	-44	-32
D	10	12	11	10	9	9	10	9	-5	-3	-1	-2	-3	-4	0	-3
E	2,087	2,089	2,094	2,092	2,114	2,066	2,037	2,038	-148	-117	-140	-130	-85	-120	-151	-139
F	0	0	0	0	0	0	0	0	0	-2	-3	-3	-2	0	0	0
G	106	115	118	118	112	107	108	112	-6	4	6	12	8	3	5	10
H	66	68	66	69	66	68	63	67	-4	3	3	6	-6	-5	-12	-4
I	377	381	386	373	384	379	392	384	-2	19	5	-12	0	10	13	7

주: A 관리자, B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C 사무 종사자, D 서비스 종사자, E 판매 종사자, F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G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H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I 단순 노무 종사자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제4절 숙박 및 음식점업 변동 추이 및 특성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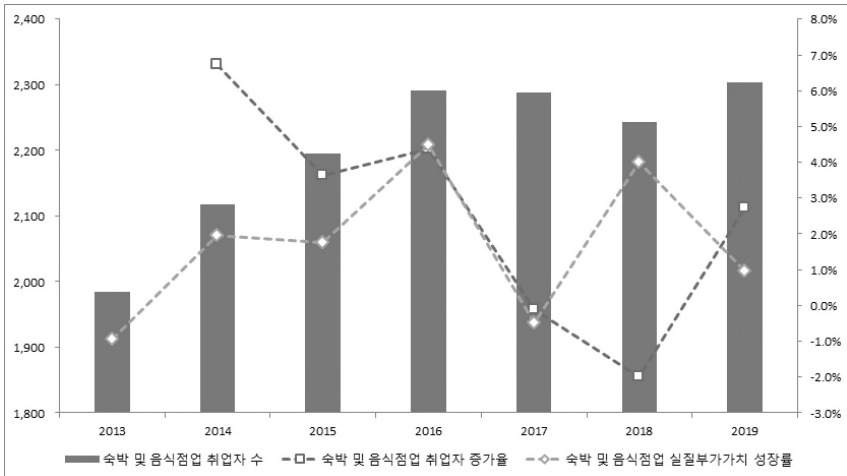
숙박 및 음식점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정의에 따르면 “일반 대중 또는 특정 회원에게 각종 형태의 숙박 시설, 캠프장 및 캠핑 시설 등을 단기적으로 제공하는 산업 활동”을 하는 숙박업과 “구내에서 직접 소비할 수 있도록 접객 시설을 갖추고 조리된 음식을 제공하는 식당, 음식점, 간이식당, 카

페, 다과점, 주점 및 음료점 등을 운영하는 활동과 독립적인 식당차를 운영하는 산업 활동”을 하는 음식점업을 포함하는 산업이다. 숙박 및 음식점업은 도매 및 소매업과 함께 전통적인 서비스업으로 구분되는 산업에 해당한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2020년 10월 숙박 및 음식점업의 취업자 수는 207만 5천 명이다.

숙박 및 음식점업 취업자 수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빠르게 증가했다 (그림 4-7 참조). 2013년 198만 4천 명이었던 숙박 및 음식점업 취업자 수는 2014년 211만 8천 명으로 6.7% 증가하였으며, 이후에도 취업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해 2016년에는 229만 1천 명까지 늘어났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숙박 및 음식점업의 실질 부가가치 역시 성장세를 지속했다. 하지만 2017년 들어 숙박 및 음식점업은 실질 부가가치가 줄어들었고 취업자 수도 전년 대비 0.1% 감소했다. 전체 취업자의 증가세가 다소 둔화하는 양상을 보였던 2018년에 숙박 및 음식점업의 취업자 수는 4만 5천 명, 2.0%가 줄어들었다.

[그림 4-7] 연도별 건설업 취업자 수 및 실질 부가가치 성장률 추이

(단위: 천 명, %)



주: 취업자 수는 좌측 축, 취업자 증가율 및 실질 부가가치 성장률은 우측 축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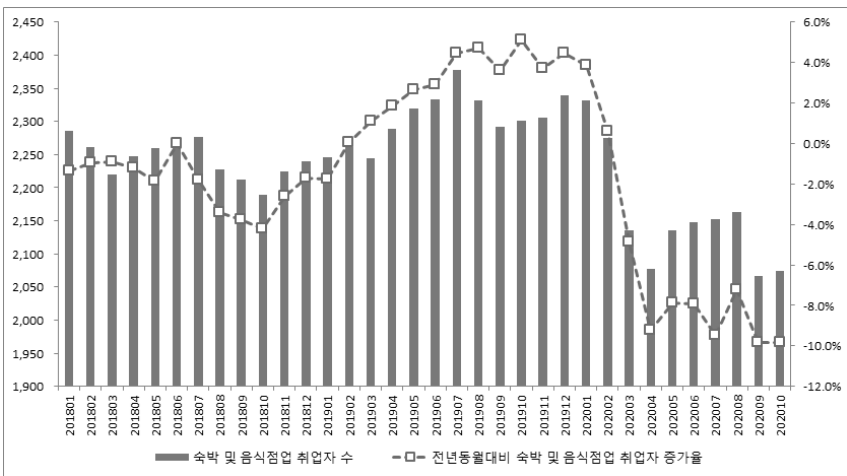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한국은행

2019년 들어 숙박 및 음식점업 취업자 수는 다시 증가했다. 2019년 숙박 및 음식점업 취업자 수는 230만 3천 명으로 전년 대비 6만 1천 명이 증가해 2.7%가 늘어났다. 이런 숙박 및 음식점업 취업자 수는 숙박 및 음식점업의 실질 부가가치 성장과 함께 증가했는데 숙박 및 음식점업 실질 부가가치는 2018년에 4.0% 성장한 후 2019년에도 1.0% 성장했다.

월별 숙박 및 음식점업 취업자 증가 추이를 통해 최근의 취업자 변동을 살펴보면 2019년 2월 이후 증가세를 지속했던 숙박 및 음식점업 취업자 수는 2020년 들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크게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4-8 참조). 숙박 및 음식점업의 취업자 수는 2020년 1월과 2월에도 증가했다. 2020년 1월에 전년 동월 대비 8만 6천 명이 증가했으며 2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1만 4천 명이 증가했다.

[그림 4-8] 월별 숙박 및 음식점업 취업자 증가 추이

(단위: 천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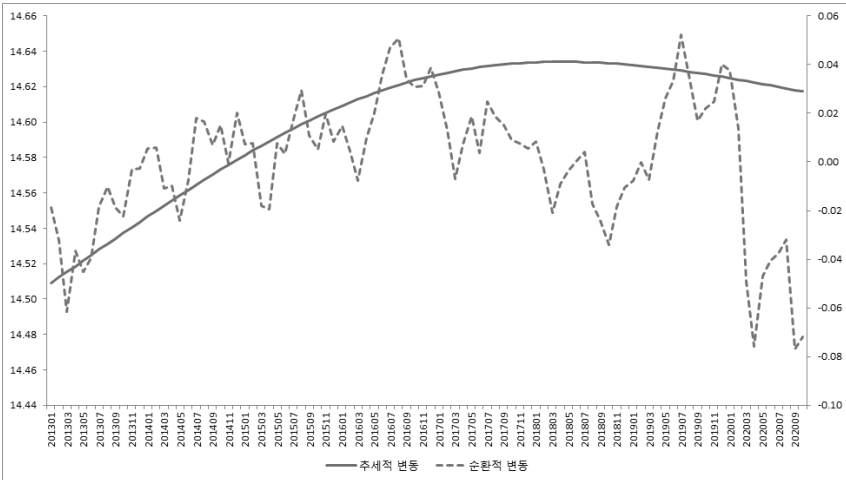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하지만 2020년 3월 들어 숙박 및 음식점업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10만 9천 명 감소했다.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숙박 및 음식점업 취업자 수가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이다. 4월 들어 감소 폭은 더욱 확대되었다. 2020년 4월

숙박 및 음식점업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21만 1천 명이 감소했으며 이후에도 상대적으로 큰 폭의 취업자 수 감소세가 지속되었다. 숙박 및 음식점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기준 산업 중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전체 취업자가 감소했던 2020년 3월부터 10월까지 월평균 취업자가 가장 많이 감소한 산업이다. 숙박 및 음식점업 취업자 수 감소세는 2020년 10월까지 계속되었는데 10월의 취업자 감소 폭은 22만 7천 명이었다.

HP 필터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숙박 및 음식점업 취업자 수는 추세적으로 점차 감소세를 보이는 가운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충격이 더해지면서 취업자가 큰 폭으로 감소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4-9 참조). 2020년 숙박 및 음식점업의 취업자는 추세적으로는 완만한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순환적 변동치는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순환적 변동치는 코로나19라는 외부 충격 요인이 숙박 및 음식점업의 고용에 얼마나 큰 충격을 주었는가를 보여준다.

[그림 4-9] 숙박 및 음식점업 취업자 추세(2013년 1월-2020년 10월)



주: 추세적 변동치는 좌측 축, 순환적 변동치는 우측 축 참조.

성별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는 여성 취업자가 더 많이 감소했다(표 4-11) 참조. 숙박 및 음식점업은 여성 취업자의 비중이 더

큰 산업이다. 2020년 10월 기준으로 보면 여성 취업자는 129만 1천 명으로 남성 취업자 78만 4천 명보다 훨씬 많다.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숙박 및 음식점업의 취업자 수 변동을 살펴보면 이처럼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 취업자가 더 많이 감소했다. 여성 취업자는 2월부터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하기 시작해 3월 이후 감소 폭이 크게 확대되었다. 숙박 및 음식점업의 남성 취업자도 감소했지만 감소 규모 면에서 여성 취업자보다는 작았다. 취업자 규모를 고려해 감소율을 보아도 전년 동월 대비 여성 취업자의 감소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표 4-11> 2020년 성별 전년 동월 대비 숙박 및 음식점업 취업자 변동

(단위: 천 명)

구분	취업자 수			전년 동기 대비 증감		
	전체	여성 취업자	남성 취업자	전체	여성 취업자	남성 취업자
1월	2,332	1,431	901	86	21	66
2월	2,275	1,395	881	14	-6	20
3월	2,135	1,289	846	-109	-115	6
4월	2,077	1,270	807	-211	-167	-44
5월	2,136	1,322	814	-183	-126	-56
6월	2,148	1,327	822	-185	-113	-72
7월	2,152	1,339	813	-225	-118	-107
8월	2,163	1,337	826	-169	-96	-73
9월	2,067	1,282	785	-225	-138	-87
10월	2,075	1,291	784	-227	-142	-84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연령대별로 보면 60세 이상 고연령층을 제외하고는 모든 연령대에서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취업자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4-12> 참조). 숙박 및 음식점업에 종사하는 20세 미만, 20세 이상 30세 미만, 30세 이상 40세 미만, 40세 이상 50세 미만, 50세 이상 60세 미만 연령대의 취업자는 모두 2020년 3월부터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으나, 도매 및 소매업 취업자 중 60세 이상 연령대 취업자는 3월 이후에도 전년 동월 대비 증가세를 지속했다.

하지만 60세 이상 연령대의 취업자 역시 2020년 1월과 2월과 비교하면 취업자 증가 폭이 축소되었다는 점에서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표 4-12> 2020년 연령대별 전년 동월 대비 숙박 및 음식점업 취업자 변동

(단위: 천 명, %)

구분	전체	20세 미만	20세 이상 30세 미만	30세 이상 40세 미만	40세 이상 50세 미만	50세 이상 60세 미만	60세 이상	
취업자 수	1월	2,332	90	538	322	405	620	358
	2월	2,275	88	524	303	395	618	347
	3월	2,135	67	475	289	398	572	333
	4월	2,077	51	480	299	374	546	327
	5월	2,136	65	515	290	372	557	337
	6월	2,148	76	499	310	372	554	337
	7월	2,152	81	489	311	371	554	347
	8월	2,163	80	495	312	365	565	346
	9월	2,067	64	476	291	357	548	330
	10월	2,075	56	473	307	353	556	328
증감	1월	86	-12	52	1	-12	14	43
	2월	14	-30	35	-12	-20	17	25
	3월	-109	-23	-10	-36	-19	-34	12
	4월	-211	-45	-27	-37	-45	-72	14
	5월	-183	-32	-16	-49	-50	-56	20
	6월	-185	-12	-32	-47	-43	-70	18
	7월	-225	-17	-54	-58	-52	-67	24
	8월	-169	-13	-41	-46	-57	-40	29
	9월	-225	-10	-80	-50	-56	-39	10
	10월	-227	-24	-81	-22	-55	-42	-3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표 4-13〉 2020년 종사상 지위별 전년 동월 대비 숙박 및 음식점업 취업자 변동

(단위: 천 명, %)

구분	전체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고용주	자영자	무급가족 종사자	
취업자 수	1월	2,332	516	729	192	324	344	227
	2월	2,275	509	703	180	324	340	220
	3월	2,135	496	641	133	309	343	211
	4월	2,077	474	610	142	305	344	203
	5월	2,136	491	636	166	305	336	203
	6월	2,148	499	616	183	306	335	209
	7월	2,152	471	640	192	304	336	209
	8월	2,163	472	645	189	311	331	216
	9월	2,067	465	605	152	301	331	212
	10월	2,075	474	609	156	299	329	208
취업자 증감	1월	86	116	-22	-41	2	18	13
	2월	14	104	-39	-56	0	3	2
	3월	-109	68	-84	-82	-21	12	-3
	4월	-211	41	-158	-76	-24	14	-8
	5월	-183	40	-136	-55	-26	5	-10
	6월	-185	36	-139	-41	-40	6	-7
	7월	-225	-12	-138	-23	-42	3	-13
	8월	-169	-11	-115	-16	-32	5	-1
	9월	-225	-28	-129	-36	-32	7	-7
	10월	-227	-17	-122	-54	-31	1	-5

주: 고용주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를, 자영자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를 의미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임금근로자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임시직과 일용직 취업자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충격을 더 많이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표 4-13〉 참조). 숙박 및 음식점업의 임시직과 일용직 취업자는 2020년 1월과 2월에도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수가 감소했지만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3월 들어 감소 폭이 확대되었으며 이후에도 감소세를 지속했다.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상용직 취업자의 경우 3월 이후에도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가 증가했다. 하지

만 취업자 증가 폭은 점차 축소되었으며 2020년 7월부터는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가 감소했다. 이는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임시직이나 일용직 등 상대적으로 고용이 불안정한 일자리의 취업자뿐만 아니라 상용직 취업자 역시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실직의 위험에 직면하게 되었음을 가리킨다.

비임금근로자 중에서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꾸준히 감소한 반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증가했다.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2020년 1월과 2월에 전년 동월 대비 증가했지만 3월에는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감소세로 전환된 이후 감소세가 10월까지 지속되었다. 코로나19 확산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를 줄인 것으로 이들 중에서는 노동시장 밖으로 나가거나 다른 임금근로 일자리를 찾는 선택을 한 사람도 있지만, 고용원을 줄여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된 이들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숙박 및 음식점업 역시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사업체에 종사하는 취업자가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에 더 취약했던 것으로 보인다(〈표 4-14〉 참조).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전체 취업자 수가 감소한 2020년 3월 이후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는 5인 미만 사업체의 취업자와 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체의 취업자가 전년 동월 대비 상대적으로 빠르게 감소한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 숙박 및 음식점업 취업자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5인 미만 사업체에 종사하는 취업자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 3월 이후 10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체, 1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체, 300인 이상 사업체에 종사하는 숙박 및 음식점업의 취업자 수도 감소했으나 상대적으로 감소 규모는 작았다.

<표 4-14> 2020년 사업체 규모별 전년 동월 대비 숙박 및 음식점업 취업자 변동
(단위: 천 명, %)

구분	전체	5인 미만	5인 이상 10인 미만	10인 이상 30인 미만	30인 이상 100인 미만	100인 이상 300인 미만	300인 이상	
취 업 자 수	1월	2,332	1,443	551	201	88	26	22
	2월	2,275	1,414	534	200	81	25	22
	3월	2,135	1,351	482	183	74	22	23
	4월	2,077	1,307	489	172	71	17	21
	5월	2,136	1,338	486	202	73	20	16
	6월	2,148	1,355	501	187	75	19	12
	7월	2,152	1,352	503	198	67	19	13
	8월	2,163	1,361	492	209	69	17	15
	9월	2,067	1,314	467	194	63	16	13
	10월	2,075	1,322	463	190	63	22	14
취 업 자 증 감	1월	86	36	18	16	25	-6	-2
	2월	14	0	-2	12	18	-4	-10
	3월	-109	-81	-31	2	11	-8	-3
	4월	-211	-159	-28	-14	11	-14	-7
	5월	-183	-136	-41	3	7	-8	-8
	6월	-185	-130	-31	-24	21	-7	-14
	7월	-225	-122	-69	-13	7	-7	-21
	8월	-169	-76	-72	-5	7	-9	-14
	9월	-225	-92	-98	-14	2	-13	-10
	10월	-227	-89	-103	-16	-4	-8	-7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직업별로 보면 숙박 및 음식점업 취업자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서비스업 종사자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4-15> 참조). 숙박 및 음식점업의 서비스 종사자 수는 2020년 1월에 전년 동월 대비 8만 3천 명이, 2월에는 4만 4천 명이 증가했으나 3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5만 명이 감소했다. 4월에는 감소 폭이 더욱 확대되어 전년 동월 대비 13만 7천 명이 감소했고 이후에도 감소세가 이어졌다. 2020년 10월에는 숙박 및 음식점업의

서비스 종사자는 전년 동월 대비 15만 9천 명 감소했다.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단순 노무 종사자 역시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5> 2020년 직업별 전년 동월 대비 숙박 및 음식점업 취업자 수 변동

(단위 : 천 명)

구분	취업자 수									전년 동기 대비 증감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A	17	17	18	18	19	22	22	20	1	-1	-1	-1	0	4	5	3
B	13	15	16	16	16	16	15	13	0	-1	-1	-1	-2	1	-2	-2
C	41	40	40	35	31	34	33	31	-13	-10	-13	-15	-19	-20	-19	-19
D	1,457	1,405	1,418	1,431	1,430	1,412	1,353	1,368	-50	-137	-152	-151	-169	-146	-165	-159
E	214	217	227	225	226	225	224	214	-17	-14	8	10	4	-8	-19	-29
F	1	1	1	1	1	1	1	1	0	0	0	0	0	0	-1	0
G	39	37	34	39	38	33	31	32	-1	-6	-11	-4	-7	-15	-16	-15
H	6	5	5	5	5	8	7	7	-3	-5	-4	-3	-4	0	0	0
I	348	340	377	378	387	412	380	389	-27	-39	-10	-21	-28	15	-7	-4

주: A 관리자, B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C 사무 종사자, D 서비스 종사자, E 판매 종사자, F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G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H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I 단순 노무 종사자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제5절 교육 서비스업 변동 추이 및 특성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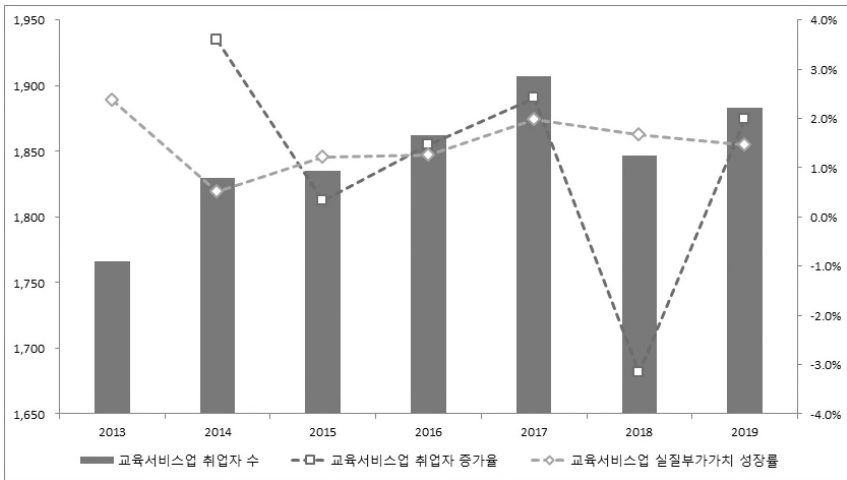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교육 서비스업은 “교육 수준에 따른 초·중·고등학교(학령 이전 유아 교육기관 포함), 중등 및 고등 교육 수준의 정규 교육기관, 특수학교, 외국인학교, 대안학교, 일반 교습학원,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등 기타 교육기관, 직원 훈련기관, 직업 및 기술훈련 학원, 성인 교육기관 및 기타 교육기관과 교육 지원 서비스업을 포함”한다. 교육 서비스업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과 함께 사회 서비스로 분류되는 산업이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교육 서비스업의 취업자 수는 2020년 10월 현

재 177만 2천 명이다.

교육 서비스업 취업자 수는 2017년까지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그림 4-10] 참조). 교육 서비스업 실질 부가가치는 2013년 이후 증가세를 지속했으며 교육 서비스업의 취업자 수 역시 2013년 176만 6천 명에서 증가세를 지속해 2017년 190만 7천 명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전체 취업자 증가세가 둔화하는 양상을 보였던 2018년 교육 서비스업 취업자 수는 2017년 대비 6만 명이 줄어 3.2%가 감소했다. 교육 서비스업의 실질 부가가치는 성장세를 지속했으나 교육 서비스업 취업자 수는 감소한 것이다. 2019년 들어 교육 서비스업 취업자 수는 다시 증가했다. 2019년에 교육 서비스업 취업자 수는 188만 3천 명으로 전년 대비 3만 6천 명, 2.0% 증가했다.

[그림 4-10] 연도별 교육 서비스업 취업자 수 및 실질 부가가치 성장률 추이

(단위: 천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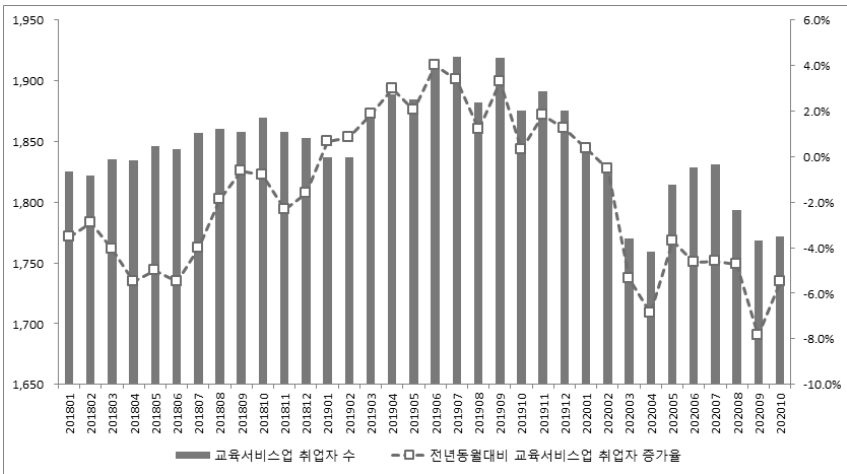
주: 취업자 수는 좌측 축, 취업자 증가율 및 실질 부가가치 성장률은 우측 축 참조.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한국은행

하지만 2020년 코로나19가 확산세를 보이면서 교육 서비스업 취업자 수는 감소세를 보였다. [그림 4-11]과 같이 교육 서비스업의 월별 취업자 증가 추이를 보면 2019년 1월 이후 교육 서비스업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증가세를 지속했으나 2020년 2월부터 감소세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대면 서비스 제공이 힘들어지면서 교육 서비스 일자리가 감소한 것이다. 교육 서비스업 취업자 수는 2월 이후에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년 동월 대비 감소세를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11] 월별 교육 서비스업 취업자 증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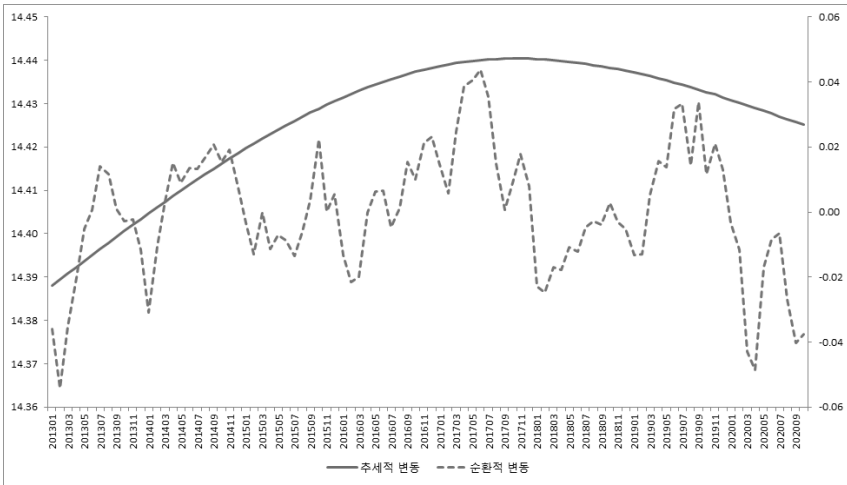
(단위: 천 명,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이러한 교육 서비스업 취업자의 변화는 추세적 측면에서도 고찰할 수 있다([그림 4-12] 참조). HP 필터를 이용해 교육 서비스업의 취업자 변동을 추세적 변동과 순환적 변동으로 구분해 살펴보면 최근 교육 서비스업의 고용 감소는 추세적 측면에서의 감소가 일부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교육 서비스업 취업자는 2017년 이후 추세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추세적인 취업자 감소세와 함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결과로 보이는 순환적 변동치 감소도 고용 감소의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이라는 단기적인 충격이 가져온 고용 감소로 2020년 교육 서비스업의 고용 감소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림 4-12] 숙박 및 음식점업 취업자 추세(2013년 1월~2020년 10월)



주: 추세적 변동치는 좌측 축, 순환적 변동치는 우측 축 참조.

<표 4-16> 2020년 성별 전년 동월 대비 교육 서비스업 취업자 변동

(단위: 천 명)

구분	취업자 수			전년 동기 대비 증감		
	전체	여성 취업자	남성 취업자	전체	여성 취업자	남성 취업자
1월	1,844	1,241	603	7	15	-8
2월	1,828	1,215	613	-10	-12	3
3월	1,770	1,176	594	-100	-70	-31
4월	1,759	1,162	597	-130	-102	-28
5월	1,814	1,203	611	-70	-63	-6
6월	1,829	1,214	615	-89	-82	-7
7월	1,831	1,223	608	-89	-66	-22
8월	1,793	1,191	603	-89	-75	-14
9월	1,768	1,186	582	-151	-104	-47
10월	1,772	1,183	589	-103	-77	-27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성별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교육 서비스업 취업자 중 여성이 더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4-16〉 참조). 남성 취업자와 여성 취업자 모두 코로나 19 확산과 함께 전년 동월 대비 감소했다. 하지만 교육 서비스업 취업자에서 남성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 취업자의 감소 폭이 상대적으로 더 컸다. 교육 서비스업 여성 취업자는 2020년 2월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가 감소했으며 이후에도 감소세를 지속한 것으로 확인된다. 취업자 규모를 고려해 감소율을 보아도 상대적으로 여성 취업자가 더 빠르게 감소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교육 서비스업의 취업자 중 20세 미만, 20세 이상 30세 미만, 30세 이상 40세 미만, 40세 이상 50세 미만 연령대에서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4-17〉 참조). 50세 미만 연령대의 교육 서비스업 취업자 수는 대체로 2020년 2월 이후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반면 50세 이상 60세 미만, 60세 이상 연령대의 교육 서비스업 취업자 수는 코로나19 확산에도 전년 동월 대비 증가했다. 교육 서비스업에서 50세 이상 60세 미만 연령대의 취업자 수는 3월과 4월에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수가 소폭 감소했으나 이후 증가세로 전환되었으며 60세 이상 연령대의 교육 서비스업 취업자 수는 5월을 제외하고는 2020년 1월 이후 전년 동월 대비 지속적으로 취업자가 증가하였다. 이는 교육 서비스업의 노동시장에서 저연령층과 중위 연령층이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을 상대적으로 크게 받았음을 나타낸다.

〈표 4-17〉 2020년 연령대별 전년 동월 대비 교육 서비스업 취업자 변동

(단위: 천 명, %)

구분	전체	20세 미만	20세 이상 30세 미만	30세 이상 40세 미만	40세 이상 50세 미만	50세 이상 60세 미만	60세 이상	
취업자 수	1월	1,844	11	329	457	555	380	113
	2월	1,828	12	312	459	547	382	116
	3월	1,770	6	282	441	545	381	116
	4월	1,759	5	294	415	544	385	117
	5월	1,814	13	301	432	555	392	121
	6월	1,829	11	311	429	557	393	128
	7월	1,831	10	311	417	555	408	131
	8월	1,793	10	301	411	540	394	138
	9월	1,768	9	288	412	535	388	135
	10월	1,772	9	301	412	528	393	129
취업자 증감	1월	7	5	16	0	-17	-1	5
	2월	-10	6	8	2	-42	5	12
	3월	-100	-4	-36	-30	-33	-5	9
	4월	-130	-9	-28	-72	-23	-2	4
	5월	-70	1	-21	-54	-11	16	-1
	6월	-89	-2	-26	-59	-20	10	8
	7월	-89	-3	-36	-63	-10	13	11
	8월	-89	-4	-40	-58	-19	15	17
	9월	-151	-5	-55	-67	-37	3	11
	10월	-103	-4	-30	-55	-31	13	3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전체 취업자의 변동과 마찬가지로 임금근로자 중에서 임시직과 일용직 취업자가 더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4-19〉 참조). 코로나19 확산 이후 교육 서비스업에서 임시직 취업자와 일용직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감소세를 지속했다. 비임금근로자 중에서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모두 2020년 2월 이후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가 감소했다. 교육 서비스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감소 폭이 더 컸다.

〈표 4-18〉 2020년 종사상 지위별 전년 동월 대비 숙박 및 음식점업 취업자 변동

(단위: 천 명, %)

구분	전체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고용주	자영자	무급가족 종사자	
취업자 수	1월	1,844	1,057	446	6	70	255	11
	2월	1,828	1,054	434	4	68	259	10
	3월	1,770	1,076	370	2	66	249	7
	4월	1,759	1,051	381	5	72	243	7
	5월	1,814	1,076	398	7	72	249	12
	6월	1,829	1,091	425	7	66	228	12
	7월	1,831	1,080	432	6	64	236	13
	8월	1,793	1,072	405	5	63	234	14
	9월	1,768	1,055	396	2	63	236	15
	10월	1,772	1,045	418	2	65	223	19
취업자 증감	1월	7	-24	52	-5	-14	-1	-1
	2월	-10	-35	42	-5	-16	8	-2
	3월	-100	-16	-45	-6	-11	-17	-6
	4월	-130	-12	-68	-3	-6	-36	-6
	5월	-70	25	-63	-1	-5	-25	-1
	6월	-89	21	-45	-3	-7	-53	-1
	7월	-89	7	-56	-10	-9	-22	2
	8월	-89	37	-93	-10	-14	-14	5
	9월	-151	5	-125	-9	-10	-17	6
	10월	-103	15	-85	-6	-5	-32	10

주: 고용주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를, 자영자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를 의미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교육 서비스업 역시 소규모 사업체의 취업자가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더 많이 감소했다(〈표 4-19〉 참조). 5인 미만 사업체와 5인 미만 10인 이상 사업체에 종사하는 교육 서비스업 취업자는 2020년 3월부터 전년 동월 대비 감소세를 지속했다.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3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체에 종사하는 교육 서비스업 취업자 역시 대체로 2020년에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300인 이상

사업체에 종사하는 교육 서비스업 취업자는 코로나19 확산에도 9월을 제외하면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증가세를 유지했다.

<표 4-19> 2020년 사업체 규모별 전년 동월 대비 교육 서비스업 취업자 변동

(단위: 천 명, %)

구분		전체	5인 미만	5인 이상 10인 미만	10인 이상 30인 미만	30인 이상 100인 미만	100인 이상 300인 미만	300인 이상
취업자 수	1월	1,844	470	154	291	643	123	163
	2월	1,828	460	155	290	645	119	159
	3월	1,770	425	149	279	633	122	162
	4월	1,759	413	153	275	618	128	171
	5월	1,814	436	150	280	648	119	181
	6월	1,829	415	162	279	663	124	185
	7월	1,831	415	163	275	669	126	184
	8월	1,793	413	155	261	664	125	176
	9월	1,768	425	151	254	652	118	168
	10월	1,772	424	166	250	638	120	175
취업자 증감	1월	7	33	-39	6	-20	9	18
	2월	-10	19	-38	9	-15	-1	16
	3월	-100	-35	-31	6	-46	-5	10
	4월	-130	-68	-35	15	-69	9	18
	5월	-70	-45	-39	17	-36	6	28
	6월	-89	-78	-20	10	-35	6	28
	7월	-89	-59	-22	-4	-26	3	19
	8월	-89	-49	-33	-19	1	4	7
	9월	-151	-44	-36	-39	-23	-7	-1
	10월	-103	-40	-13	-30	-17	-2	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직업별로 보면 교육 서비스업의 취업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에서 취업자가 많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표 4-20> 참조). 교육 서비스업의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는 2020년 1월과 2월에 전년 동

월 대비 2만 5천 명과 4만 7천 명이 감소했으나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3월 들어 전년 동월 대비 감소 폭이 11만 1천 명 수준으로 증가했다. 이후에도 감소세가 지속되었으며 2020년 9월과 10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18만 2천 명과 14만 7천 명 수준으로 감소 폭이 증대되는 양상을 보였다. 반면 교육 서비스업 취업자 직업 중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무 종사자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에도 취업자 수가 감소하지 않았다. 교육 서비스업 사무 종사자 취업자 수는 2020년 1월부터 10월까지 3월을 제외하고는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0> 2020년 직업별 전년 동월 대비 교육 서비스업 취업자 수 변동

(단위 : 천 명)

구분	취업자 수								전년 동기 대비 증감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A	48	45	45	44	45	48	48	48	5	1	1	-1	-3	4	4	3
B	1,281	1,259	1,305	1,301	1,293	1,254	1,241	1,239	-111	-154	-106	-123	-105	-125	-182	-147
C	226	235	245	249	250	247	249	251	-1	14	25	23	15	15	24	30
D	100	107	105	106	108	109	99	104	-4	3	1	-3	-6	4	-8	-2
E	1	1	1	1	1	1	0	1	-1	1	1	0	-1	-1	-1	-1
F	0	0	0	0	1	1	1	1	0	0	0	0	0	0	1	1
G	12	11	8	7	9	11	10	11	8	7	4	4	2	5	4	4
H	26	22	19	21	19	16	18	18	0	-3	-4	-3	-9	-13	-11	-6
I	76	80	86	99	105	107	101	99	3	1	8	15	17	22	19	16

주: A 관리자, B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C 사무 종사자, D 서비스 종사자, E 판매 종사자, F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G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H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I 단순 노무 종사자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제6절 소결

코로나19 확산은 생산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에 큰 충격을 주었다. 2020년 3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기준으로 보면 2008년 세계 금융위기로 고용이 감소했던 2010년 1월 이후 처음으로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가 감소했으며 이후에도 취업자 감소세가 계속되었다. 이상에서는 코로나19 확산이 우리나라 경제와 노동시장에 충격을 미친 2020년 고용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건설업과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와 함께 고용이 크게 감소한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의 고용 변동을 분석함으로써 코로나19 확산이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우선 건설업은 코로나19 확산 국면 초기에 취업자 수가 감소했다. 건설업 취업자 수는 2020년 1월 전년 동월 대비 증가했으나 2월 들어 전년 동월 대비 0.5% 감소했으며 3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1.0% 감소했다. 이후 6월까지 건설업 취업자 수는 감소 폭이 점차 증대되었다. 이런 건설업의 취업자 감소에는 코로나19 확산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전체 취업자 수가 코로나19 확산 국면에서 줄곧 전년 동월 대비 감소세를 보인 반면, 건설업 취업자 수는 2020년 9월과 10월에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하면서 다른 양상을 보였는데 이는 주거용 건물의 건설이 2분기에 이어 3분기에도 증가한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예측된다.

취업자 수 변동 양상을 보면 코로나19의 확산과 함께 건설업에서는 여성보다 남성 취업자가 더 많이 감소해 전체 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과는 다른 양상이 관측되었다. 연령대별로 보면 60세 이상 고연령층과 함께 20세 이상 30세 미만 청년층도 상대적으로 코로나19 확산의 충격을 덜 받은 것으로 보였다. 사업체 규모와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전체 취업자의 고용 변동 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고용이 불안정한 임시직과 일용직, 소규모 사업체 종사자가 코로나19 확산의 충격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취업자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가 코로나19 확산 국면에서 많이 줄어들었다. 반면 단순 노무 종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 종사자 등은 코로나19 확산 국면에서 오히려 취업자 수가 증가했다.

도매 및 소매업은 코로나19 확산 국면에서 취업자 감소 폭이 더욱 확대되

었다.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와 함께 전체 취업자가 감소한 2020년 3월 이전에도 도매 및 소매업 취업자 수는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는데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도매 및 소매업 취업자 수 감소 폭은 더욱 커졌다. 2020년 3월 도매 및 소매업 취업자 수는 352만 7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6만 8천 명 감소했으며 이후에는 감소 폭이 더욱 확대되었다. 2020년 9월과 10월 도매 및 소매업은 전년 동월 대비 각각 20만 7천 명과 18만 8천 명의 취업자가 감소했다.

도매 및 소매업의 취업자 변동 양상을 살펴보면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여성 취업자와 남성 취업자가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소 규모는 남성과 여성이 비슷했으나 감소율은 여성이 더 높았다. 연령대별로는 50세 이상 60세 미만 연령대의 취업자가 큰 감소 폭을 보였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시직 취업자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감소 폭이 컸으나 최근에는 상용직 취업자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도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체 규모별로는 소규모 사업체의 취업자가 많이 감소했으며 직업별로는 도매 및 소매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판매 종사자가 많이 감소했다.

숙박 및 음식점업은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취업자가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산업이다. 숙박 및 음식점업의 취업자는 2020년 1월과 2월에 증가했으나 3월 들어 전년 동월 대비 10만 9천 명 감소했으며 4월에는 감소 폭이 더욱 확대되었다. 숙박 및 음식점업 취업자 수 감소는 이후 2020년 10월까지 계속되었는데 10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22만 7천 명의 취업자가 감소했다.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는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여성 취업자가 더 많이 감소했다. 남성 취업자 역시 2020년 4월 이후 감소했으나 상대적으로 여성 취업자의 감소 폭이 더 컸다. 연령대별로 보면 60세 이상 연령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취업자가 감소했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임시직과 일용직 등 상대적으로 고용이 불안정한 취업자가 코로나19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20년 7월 이후 상용직 취업자 역시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수가 감소했는데 이는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는 상대적으로 고용이 안정적인 상용직 역시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 실직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졌음을 나타낸다. 사업체 규모별로는 상대적으로 소규모 사업체에서 취업자가 많이 감소했으며 직업별로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서비스 종사자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다른 산업과 달리 단순 노무 종사자 역시 감소했다는 특징을 가진다.

교육 서비스업 역시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취업자 수가 감소했다. 2019년 1월 이후 전년 동월 대비 증가세를 보였던 교육 서비스업 취업자 수는 2020년 2월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이후 코로나19 확산 국면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와 같은 교육 서비스업의 취업자 감소는 대면 서비스에 대한 수요 감소에 따른 결과로 예상된다.

교육 서비스업의 취업자 변동 특성을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코로나19 확산 국면에서 여성 취업자가 더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취업자도 감소했지만 여성 취업자의 감소 폭이 더 컸다. 연령대별로는 20세 미만, 20세 이상 30세 미만, 30세 이상 40세 미만, 40세 이상 50세 미만 연령대의 취업자는 감소했지만 50세 이상 60세 미만, 60세 이상 연령대의 취업자는 증가했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임시직과 일용직 취업자가 많이 감소했다. 다만 교육 서비스업의 경우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모두 감소했으며 오히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더 많이 감소했다는 특징을 가진다. 사업체 규모별로는 교육 서비스업 역시 소규모 사업체의 취업자가 더 많이 감소했다. 직업별로는 교육 서비스업 취업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가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5장

결 론

특정 치료제가 없는 코로나19 확산은 생활의 많은 부분을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경제성장과 생산에 큰 충격을 주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계절조정계열 기준으로 2020년 1분기와 2분기에 전기 대비 실질 국내총생산이 감소했으며 원계열 기준으로는 2020년 2분기와 3분기 전년 동기 대비 실질 국내총생산이 감소했다. 이런 경제적 충격은 노동시장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노동시장에서도 그 충격이 감지되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2020년 3월의 취업자 수는 2,660만 9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9만 5천 명 감소했다.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수가 감소한 것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취업자가 감소했던 2010년 1월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코로나19 확진자는 여전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20년 1월 20일 국내에서 처음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10월 31일까지 2만 6천 명 이상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세는 앞으로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유럽 등 주요 국가에서는 기온 하강과 함께 코로나19가 다시 빠르게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기온 하

강과 함께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코로나19 확산세 지속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노동시장에 계속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코로나19 확산 국면에서의 노동시장 변화를 살펴보고 주요 업종의 고용 변동 양상을 분석하였다. 이와 관련해 2장에서는 코로나19 확산 양상과 그에 따른 경제 상황의 변화를 살펴보는 한편, 코로나19 확산이 전체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3장에서는 국내 경제성장과 고용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 변동 양상을 고찰하였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이용해 전체 제조업의 취업자 변동 양상을 살펴보았으며 생산과 고용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7개 주요 제조업종의 고용 변동 양상에 대해 「고용보험 피보험자 DB」를 이용해 분석하였다. 4장에서는 고용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설업과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고용이 크게 감소한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등 주요 서비스업의 고용 변동 양상을 분석하였다.

우선 2장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내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해 전체 취업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국면에서 인구 특성별로는 여성과 청년층 취업자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상용직에 비해 임시직과 일용직 취업자가, 사업체 규모별로는 소규모 사업체의 취업자가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더 많이 줄어들었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고용 취약계층, 또는 고용 안정성이 약한 일자리에 종사하는 취업자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충격을 상대적으로 더 크게 받았음을 의미한다. 또한, 최근 상용직 취업자의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어 코로나19 확산세가 장기화할 경우 고용이 안정적인 일자리에 종사하는 취업자 역시 실직 위험에 직면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별로는 숙박 및 음식점업 취업자가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으며 도매 및 소매업, 교육 서비스업 등도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대면 서비스에 대한 수요 감소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데 부동산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에서도 이와 같은 이유로 최근 들어 취업자가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제조업 역시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고용이 감소했는데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수출과 생산 활동이 위축된 데 따른 결과로 예상된다. 직업별로는 다른 직업의 경우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대체로 취업자 수가 감소한 반면, 상대적으로 숙련 수준이 낮은 단순 노무 종사자는 전년 동월 대비 증가세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확산은 고용 수준뿐 아니라 노동시장 내 임금 분배 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8월 근로 형태별 부가조사 자료를 이용해 2020년 임금 분배 구조에 있어서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이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2020년 들어 전반적인 임금 불평등은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저임금층 임금근로자의 상대적 임금 수준이 하락하면서 고임금층과 저임금층 간 임금 격차는 증가했다. 또한, 남성 대비 여성 임금근로자의 임금 수준은 상승했지만, 대규모 사업체 대비 중소기업 사업체 임금근로자의 임금 수준과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수준은 2019년에 비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이 상대적으로 고용이 불안정한 취약계층 근로자의 고용 수준에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저임금 근로자, 중소기업 사업체 임금근로자,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근로자의 임금 수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3장에서는 제조업과 주요 제조 업종의 고용 변동 양상을 분석했다. 제조업은 생산과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산업으로 제조업의 고용 변동을 파악하는 것은 경제성장 및 노동시장 정책 수립에 있어 중요한 의미가 있다. 따라서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이용해 전체 제조업의 고용 변동 양상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제조업의 취업자 수는 2020년 들어 감소세를 보였다. 여기에는 2020년 이전부터 지속했던 제조업의 경기 침체도 영향을 주었지만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전 세계 제조업의 경기 침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감소했던 제조업 취업자 수는 2020년 들어서도 감소세를 지속했다.

2020년 제조업의 취업자 수 변동 양상을 분석한 결과 남성보다는 여성 취업자가 상대적으로 코로나19의 충격을 크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60세 이상 연령대에서는 취업자가 증가했지만 다른 연령대에서는 취업자가 감소했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시직과 일용직 취업자의 감소 폭이 컸으며 사업체 규모별로는 3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코로나19 확산 국면에서 취업자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 보면 제조업의

경우 단순 노무직 종사자와 함께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도 코로나19 확산 국면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무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등은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수가 감소했다.

분석 결과를 보았을 때 코로나19의 확산은 제조업 일자리 전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여성 일자리나 임시직, 일용직과 같이 고용이 불안정한 일자리 종사자가 코로나19로 인한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직업별로 보면 코로나19 확산 국면에서 중간숙련 일자리와 사무직 일자리가 감소한 반면, 저숙련 일자리와 고숙련 일자리에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취업자 감소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았다. 이와 같은 양상이 지속될 경우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 제조업의 업종별 고용 변동 양상에 대한 분석에서는 반도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주요 제조 업종에서 최근 고용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DB」를 이용한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업종은 최근 고용이 증가하였지만, 기계, 조선, 전자, 섬유, 철강, 자동차 업종은 전년 동월 대비 고용이 감소했다. 이 중 기계, 전자, 섬유 등의 업종은 최근 고용 감소세가 다소 완화되었다. 그러나 조선, 철강 업종은 고용이 여전히 감소세를 지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주요 제조 업종의 고용 감소는 2020년 이전부터 지속했던 해당 제조 업종의 경기 침체도 영향을 미쳤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수출과 생산의 위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4장에서는 코로나19 확산 국면에서 고용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건설업과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와 함께 고용이 크게 감소한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의 고용 변동을 분석함으로써 코로나19 확산이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건설업은 코로나19 확산 국면 초기 취업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 취업자 수는 2020년 1월 전년 동월 대비 증가했으나 2월 들어 전년 동월 대비 0.5% 감소했으며 3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1.0% 줄어들었다. 이후에도 건설업 취업자 수는 6월까지 감소 폭이 점차 증대되었다. 이와 같은 건설업 취업자 수 감소에는 코로나19 확산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전체 취업자 수가 코로나19 확산 국면에서

전년 동월 대비 감소세를 지속했던 반면, 건설업에서는 2020년 9월과 10월에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가 증가하는 등 다른 양상도 관측되었다.

취업자 수 변동 양상을 보면 코로나19 확산 국면에서 건설업은 여성보다 남성 취업자의 감소가 더 컸다.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건설업 취업자가 감소했던 시기에 여성 취업자는 증가했으나 남성 취업자는 많이 감소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60세 이상 고연령층과 함께 20세 이상 30세 미만 청년층도 상대적으로 코로나19 확산의 충격을 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체 규모와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전체 취업자의 고용 변동 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상대적으로 고용이 불안정한 임시직과 일용직, 소규모 사업체의 종사자가 코로나19 확산의 충격을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취업자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가 코로나19 확산 국면에서 많이 줄어들었다. 그러나 단순 노무 종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 종사자 등은 코로나19 확산 국면에서도 오히려 취업자 수가 증가했다.

도매 및 소매업은 코로나19 확산 국면에서 취업자 감소 폭이 더욱 확대되었다.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와 함께 전체 취업자가 감소한 2020년 3월 이전에도 도매 및 소매업 취업자 수는 감소세를 지속했는데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도매 및 소매업 취업자 수 감소 폭은 더욱 확대되었다. 2020년 3월 도매 및 소매업의 취업자 수는 352만 7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6만 8천 명 감소했다. 이후 감소 폭은 더욱 커졌는데 2020년 9월과 10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20만 7천 명과 18만 8천 명의 취업자가 감소했다.

도매 및 소매업의 취업자 변동 양상을 살펴보면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여성 취업자와 남성 취업자가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소 규모는 남성과 여성이 비슷했으나 감소율은 여성이 더 높았다. 연령대별로는 50세 이상 60세 미만 연령대의 취업자가 많이 줄어들었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시직 취업자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감소 폭이 컸으나 최근에는 상용직 취업자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도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업체 규모별로는 소규모 사업체의 취업자가, 직업별로는 도매 및 소매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판매 종사자가 많이 감소했다.

숙박 및 음식점업은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취업자가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산업이다. 숙박 및 음식점업 취업자는 2020년 1월과 2월 증가했으나 3월

들어 전년 동월 대비 10만 9천 명이 감소했으며 4월에는 감소 폭이 더욱 확대되었다. 숙박 및 음식점업 취업자 수는 코로나19 확산 국면에서 지속적으로 줄어들었는데 2020년 10월에도 전년 동월 대비 22만 7천 명의 취업자가 감소했다.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는 여성 취업자가 더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취업자 역시 감소했으나 여성 취업자의 감소 폭이 상대적으로 더 컸다. 연령대별로는 60세 이상 연령대를 제외하고는 모든 연령대에서 취업자가 감소했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임시직과 일용직 등 상대적으로 고용이 안정적이지 않은 취업자가 일자리를 많이 잃었다. 하지만 2020년 7월 이후 상용직 취업자 역시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수가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는데 이는 기존의 안정적인 일자리 역시 코로나19가 장기화한 영향으로 실직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졌음을 의미한다. 사업체 규모별로는 소규모 사업체에서 취업자가 많이 줄어들었다. 직업별로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서비스 종사자가 큰 폭으로 감소했으며 다른 산업과 달리 단순 노무 종사자 역시 전년 동월 대비 감소세를 지속했다.

교육 서비스업 역시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취업자 수가 줄어들었다. 2019년 1월 이후 전년 동월 대비 증가세를 보였던 교육 서비스업의 취업자 수는 2020년 2월부터 감소하기 시작했으며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취업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교육 서비스업의 취업자 감소는 대면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줄어든 결과로 판단된다.

교육 서비스업에서는 코로나19 확산 국면에서 여성 취업자가 더 많이 감소했다. 남성 취업자도 감소했지만 여성 취업자의 감소 폭이 상대적으로 더 컸다. 연령대별로는 20세 미만, 20세 이상 30세 미만, 30세 이상 40세 미만, 40세 이상 50세 미만 연령대의 취업자는 감소했지만 50세 이상 60세 미만, 60세 이상 연령대 취업자는 증가했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임시직과 일용직 취업자가 많이 감소했다. 비임금근로자 중에서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모두 감소했는데 오히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더 많이 감소했다는 특성이 있다. 사업체 규모별로는 소규모 사업체의 취업자가 더 많이 줄어들었으며 직업별로는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가 많이 감소했다.

코로나19 확산은 당분간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유럽 등과 마찬가지로 한국 역시 최근 기온 하강과 함께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의료 전문가들은 백신 개발이 생각보다 빨라진 것은 사실이지만 백신의 효과와 백신 접종 상황에 따라 백신 생산 이후에도 현재와 같은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고 보았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될 경우 이상에서 살펴본 코로나19 확산 국면에서의 노동시장 상황도 당분간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OECD(2020b), IMF(2020) 등의 전망처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인 충격은 2021년 들어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취업자가 입은 손실은 쉽게 회복되기 어렵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충격이 고용 취약계층이나 고용이 불안정한 취업자에게 더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점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자리를 잃거나 소득이 감소한 취업자의 생계를 지원하고, 이들이 다시 일자리를 얻고 임금 수준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세가 당분간 계속됨에 따라 일자리를 잃을 위험에 직면한 취업자를 찾아 이들이 노동시장에서 계속해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적극적인 정책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코로나19와 같은 충격에 대비할 수 있는 고용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과 같은 장기적인 대응 방안도 준비해야 할 것이다. 향후 코로나19와 같이 경제와 노동시장에 큰 손실을 줄 수 있는 외부 충격이 발생했을 때 그 충격으로 인해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지 않도록 돕는 제도적 방안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이에 기존의 고용보험 안전망을 더욱 확대하고 강화하는 방안과 함께 고용보험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파악해 이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마련하는 데에도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김명직·장국현(2002), 『금융시계열분석』, 제2판, 서울: 경문사.
- 김수현(2018), 『주요 제조업 고용 변동 분석』, 한국고용정보원.
- 김수현·반가운·신우진·양서우·하형석(2019), 『주요 제조업 고용 변동 요인 분석』, 한국고용정보원.
- 김수현·이시균·박진희·이상호·이혜연(2017), 『산업·지역 일자리 동학 연구』, 한국고용정보원.
- 박진희·이시균·김수현(2019), 「기업별 노동력 변동 분석: 초과 노동이동 결정요인 분석」, 『산업노동연구』, 25(1): pp. 37-70.
- 이시균(2013), 「일자리 변동 및 노동력 변동 분석」, 박진희·이시균·윤정혜, 『고용보험 DB를 활용한 노동시장 분석』, pp. 57~80, 한국고용정보원.
- 이시균·김기민(2013), 「노동력 변동(worker flows) 결정요인 분석」, 제7회 사업체 패널 학술대회.
- 이정아(2020), 「노동시장 변동 추이와 코로나19 확산」, 고용동향브리프, 2020년 3호.
- 전기택·배진경(2020), 「코로나19의 여성 노동위기 현황과 정책과제」, 『KWDI Brief』, 제58호.
- 한국고용정보원·한국산업기술진흥원(2020), 『2020 하반기 주요 업종 일자리 전망』, 한국고용정보원.
- 황선자·김수현·황수욱(2017), 『제조업 고용 현황과 활성화 정책』, 한국노총중앙연구원.
- Alda, H., Allaart, P. and Bellmann, L.(2005), “Churning and Institutions: Dutch and German Establishments Compared with Micro-level Data”, IAB Discuss. Paper 12.
- Anderson, P. M. and Meyer, B. D.(1994), “The Extent and Consequences of Job Turnover”, *Brookings Papers on Economic Activity. Microeconomics*. 1994, 177-248.
- Autor, D.H. and Reynolds, E.(2020), “The Nature of Work after the COVID Crisis: Too Few Low-Wage Jobs”, The Hamilton Project.
- Bachmann, R., Bayer, C., Merkl, C., Seth, S., Stüber, H. and Wellschmied, F.(2017), “Worker Churning and Employment Growth at the Establishment Level”, IZA, Discussion Paper, IZA Do. 11063.

- Bachmann, R., Bayer C. and Seth S.(2013), “Cyclicality of Job and Worker Flows: New Data and a New Set of Stylized Facts” , Felix Wellschmied Discussion paper, No. 7192.
- Burgess, S., Lane, J. and Stevens, D.(2001), “Churning Dynamics: an Analysis of Hires and Separations at the Employer Level” , *Labour Economics*. 8(1): 1-14.
- Davis, S.J. and Haltiwanger, J.(1999), “Gross Job Flows” , in Ashenfelter, O. C. and Card, D. (eds.) *Handbook of Labor Economics*, 3, Elsevier.
- Haltiwanger, J., Hyatt, H., and McEntarfer, E.(2015), “Cyclical Reallocation of Workers Across Employers by Firm Size and Firm Wage” , NBER Working Paper 23485.
- Haltiwanger, J. and Vodopivec, M.(2003), “Worker Flows, Job Flows and Firm Wage Policies: An Analysis of Slovenia” . *Economics of Transition*, 11(2): 253-290.
- Hodrick, R. and Prescott, E.C.(1997), “Postwar U.S. Business Cycles: An Empirical Investigation” , *Journal of Money, Credit, and Banking*. 29(1): 1-16
- Huber, P. and Smeral, K.(2006), “Measuring Worker Flows” , *Applied Economics, Taylor and Francis Journals*, 38(14): 1689-1695.
- ILO(2020), “ILO Monitor: COVID-19 and the World of Work” , Second edition, ILO.
- IMF(2020), *World Economic Outlook: A Long and Difficult Ascent*. IMF.
- Lane, J., Stevens, D. and Burgess, S.(1996), “Worker and Job Flows” , *Economics Letters*. 51(1): 109-113.
- OECD(2020a), *OECD Economic Outlook 2020*, OECD Publishing.
- OECD(2020b), *OECD Economic Outlook, Interim Report September 2020: Coronavirus (COVID-19) Living with Uncertainty*, OECD Publishing.

부록

일자리 및 노동력 변동 동학 분석

제조업의 고용 변동 양상은 일자리 변동(Job flows)과 노동력 변동(Worker flows)의 동학 개념을 바탕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에 부록에서는 일자리 및 노동력 변동의 동학 측면에서 분석 방법을 설명하고 제조업을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 소멸, 채용, 이직 등 동학 측면의 고용 변동 양상을 분석하였다. 제조업으로 분석 대상을 국한한 이유는 분석에 활용되는 자료가 「고용보험 피보험자 DB」라는 점 때문이다. 고용보험이 포괄하는 취업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제조업을 대상으로 동학적 측면에서 고용 변동 양상을 분석하였다.

일자리 변동은 일자리 창출(Job creation)과 소멸(Job destruction)로 구분해서 측정할 수 있다. 이 중 일자리 창출은 일정 기간 새롭게 만들어진 일자리의 양으로 두 시점 사이에 유지된 사업체의 팽창 혹은 사업체의 생성으로 늘어난 일자리 수를 합하여 측정한다. 일자리 소멸은 일정 기간 사라진 일자리를 의미하며 일자리 소멸량은 두 시점 사이에 일어난 사업체의 축소 또는 사업체의 소멸로 줄어든 일자리를 합하여 측정한다(김수현 외, 2017).

일자리 창출량과 소멸량의 차를 통해 순 일자리 증가량을 계산할 수 있다.

이런 순 일자리 증가량은 일정 기간 고용량의 순 변동량으로 고용 변동의 결과에 해당한다. 또한 일자리 창출량과 소멸량의 합을 통해 일자리 재배치량(Job reallocation)을 측정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서도 일자리가 얼마나 만들어지고 줄어들었는지, 일자리 변동의 총량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김수현 외, 2017).

<표 부록-1> 일자리 변동 주요 개념

주요 개념	정 의
일자리 창출량	두 시점 사이에 지속된 사업체의 팽창 혹은 사업체의 생성으로 늘어난 일자리 수의 합
일자리 소멸량	두 시점 사이에 지속된 사업체의 축소 혹은 사업체의 소멸로 감소한 일자리 수의 합
순 일자리 증가량	일자리 창출량에서 일자리 소멸량을 뺀 값
일자리 재배치량	일자리 창출량과 일자리 소멸량을 합한 값

노동력의 변동은 사업체에서 일자리의 생성과 소멸이 아닌, 개별 근로자의 일자리 간 이동을 통해 측정된다는 점에서 일자리 변동과 구분된다. 노동력 변동은 크게 채용과 이직으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는 노동이동을 측정하는 방법(Turnover measure)을 통해 노동력의 변동 규모를 측정하는데 이는 두 시점 간 노동력의 양 변화를 통해 노동력 변동량을 측정하는 재배치 방법과 달리, 일정 기간 발생하는 채용과 이직의 총합을 노동력 변동으로 정의해 그 규모를 추산한다(Alda et al., 2005; Anderson and Meyer, 1994; Bachmann et al., 2013; Bachmann et al., 2017; Burgess et al., 2001; Davis and Haltiwanger, 1999; Haltiwanger, Hyatt and McEntarfer, 2015; Haltiwanger and Vodopivec, 2003; Huber and Smeral, 2006; Lane, Stevens and Burgess, 1996; 김수현, 2018).

노동이동의 측정 방법은 초과 노동이동(Churning flows) 규모를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초과 노동이동은 전체 노동력 변동 중 일자리 재배치를 제외한 노동이동을 의미한다. 이는 일자리 변동과 관련이 없는 노동력의 이동

으로 기존 일자리에서 발생하는 채용과 이직을 의미하는 대체 채용과 대체 이직을 통해 측정되기도 한다. 대체 채용은 전체 채용량에서 일자리 창출량을 제외하는 방법을 통해, 대체 이직은 전체 이직량에서 일자리 소멸에 따른 이직을 제외하는 방법을 통해 계산한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 없는 채용에 해당하는 대체 채용과 일자리 소멸과 관련 없는 대체 이직의 합으로 초과 노동이동의 규모를 측정할 수 있다(김수현 외, 2017; 박진희·이시균·김수현, 2019; 이시균, 2013; 이시균·김기민, 2013).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begin{aligned} \text{초과 노동이동} &= \text{대체 채용} + \text{대체 이직} \\ &= \text{채용} - \text{일자리 창출} + \text{이직} - \text{일자리 소멸} \\ &= (\text{채용} + \text{이직}) - (\text{일자리 창출} + \text{일자리 소멸}) \\ &= \text{노동력 변동} - \text{일자리 재배치} \end{aligned}$$

이런 초과 노동이동은 기존 일자리를 두고 노동력 이동만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일자리 불안정성을 반영한다고 해석되기도 한다(김수현 외, 2017).

노동력 변동의 측정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DB」를 이용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DB」는 일정 기간 개별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이력을 모두 파악할 수 있어 채용과 이직의 규모를 측정할 수 있다. 사업체 단위에서 동학적인 고용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DB」가 거의 유일하다.

사업체 i 에서 일자리 창출(JC)은 두 시점 간 팽창 혹은 사업체에서 생성된 채용과 이직의 차이로 측정된다. 그리고 일자리 변동량(JF)은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소멸의 합으로 구한다.

$$JC_t = \sum_{i \in S^+} (H_{it} - S_{it})$$

$$JD_t = - \sum_{i \in S^-} (H_{it} - S_{it})$$

$$JF_t = JC_t + JD_t$$

여기서 S^+ 는 사업체의 팽창과 생성 사업체를 의미하고 S^- 는 사업체의 축소와 소멸을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방식으로 일자리 소멸(JD)은 사업체가 소멸하거나 축소되는 사업체에서 발생하는 채용과 이직의 차이로 측정한다. 다음으로 t 기에서 전체 노동력의 변동(WF)은 다음과 같이 측정한다.

$$WF_t = - \sum_i (H_{it} + S_{it})$$

초과 노동이동(CH)은 다음과 같이 측정한다.

$$CH_t = - \sum_i (H_{it} + S_{it}) - JC_t - JD_t$$

순 고용 증가분은 아래 식과 같이 측정된 일자리 창출, 소멸과 채용, 이직을 통해 구할 수 있다.

$$\Delta E = JC_t - JD_t = \sum_i (H_{it} - S_{it})$$

이렇게 구한 일자리 창출량, 소멸량, 채용량, 이직량, 초과 노동이동 규모 등은 종사자 수를 분모로 하여 다시 일자리 창출률, 일자리 소멸률, 채용률, 이직률, 초과 노동이동률로 나타낼 수 있다. 이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규모 대비 일자리와 노동력 변동 수준을 가리키는 것으로 국가 간, 산업 간 고용 변동 수준 비교 연구에 주로 활용된다.

<표 부록-2>는 이상의 방법을 통해 분석한 제조업의 일자리 및 노동력 변동 현황이다. 제조업에서는 2008년부터 2019년까지 469만 4천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졌고 382만 3천 개의 일자리가 소멸하였다. 그리고 1,521만 8천 명이 채용되었고 1,434만 7천 명이 이직해 총 2만 9,565건의 노동력 변동이 발생했다. 그 결과 87만 1천 명의 고용이 순증가했으며 해당 기간의 초과 노동이동은 2,104만 8천 건이 발생하였다.

〈표 부록-2〉 연도별 제조업의 일자리 및 노동력 변동 추이

(단위: 천 명)

연도	일자리 변동			노동력 변동			일자리 노동력 순증가	대체 채용 (이직)	초과 노동 이동
	창출	소멸	일자리 재배치	채용	이직	노동력 변동량			
2008	348	313	660	1,100	1,065	2,165	35	753	1,505
2009	354	304	658	1,072	1,023	2,094	49	718	1,436
2010	429	250	679	1,290	1,111	2,401	179	861	1,722
2011	419	287	705	1,321	1,189	2,511	132	903	1,805
2012	448	339	787	1,348	1,240	2,588	108	900	1,801
2013	416	296	713	1,333	1,214	2,547	120	917	1,834
2014	410	318	728	1,341	1,250	2,591	92	931	1,863
2015	411	337	748	1,359	1,286	2,645	73	948	1,896
2016	391	354	745	1,350	1,314	2,664	37	959	1,919
2017	377	350	726	1,308	1,281	2,588	27	931	1,862
2018	371	352	722	1,255	1,237	2,492	19	885	1,770
2019	323	322	645	1,140	1,140	2,280	1	818	1,635

자료: 「고용보험 피보험자 DB」

「고용보험 피보험자 DB」를 이용해 일자리 및 노동력 변동 양상을 살펴 보면 2008년부터 2019년까지 계속해서 제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증가했다. 이는 앞서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이용한 분석과는 차이가 있다. 3장의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통해 제조업의 고용 변동을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5년까지는 제조업 취업자가 증가했지만 2016년부터 제조업의 취업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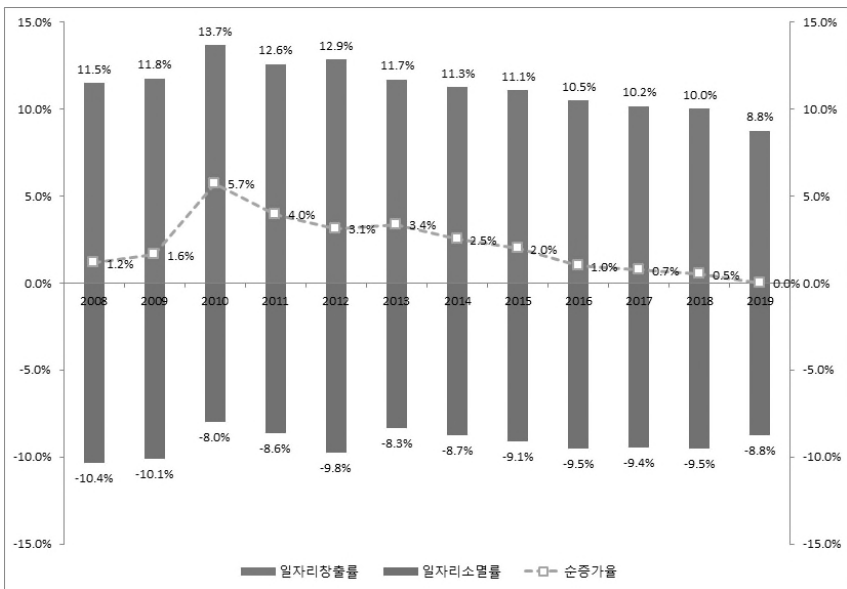
이와 같은 차이는 일자리 및 노동력의 변동을 분석할 때 고용보험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분석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자영업자나 비정규직 등은 상당수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기 때문에 고용 변동 측면에서 다른 양상이 관측되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고용보험 피보험자 DB」를 이용한 일자리 및 노동력의 변동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2015년 이후 고용 증가세가 빠르게 둔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2010년 제조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일자리 창출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17만 9천 명이 순증가했으며 이후에도 증가세를 지속하다가 2015년 이후 순증가 규모가 크게 하락했다. 이는 일자리 소멸량이 많이 증가한 측면도 있지만, 일자리 창출량이 40만 개 미만으로 줄어든 것이 중요한 이유이다. 2016년 이후에도 제조업의 일자리 순증가 규모는 점차 줄어들어 2019년에는 1천 명 수준까지 감소했다. 2019년의 이와 같은 일자리 순증가 규모의 축소는 일자리 창출량이 크게 줄어든 데 따른 결과로 제조업의 일자리 증가를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부록-1] 제조업 일자리 창출률, 소멸률, 순증가율

(단위: %)



자료: 「고용보험 피보험자 DB」

이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를 분모로 하여 추산한 [그림 부록-1]의 일자리 창출률과 소멸률, 순증가율에서도 관측된다. 제조업의 일자리 창출률은 금융위기 직후 크게 증가하지만 이후 꾸준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그 결과 일자리의 순증가율 역시 감소하고 있다. 일자리 재배치량과 일자리 변동량이 감소하는 경향도 관측되었는데 이는 제조업의 노동시장에서 역동성이 축소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처럼 동학적 측면에서의 일자리 및 노동력 변동의 역동성이 축소되고 신규 일자리의 창출률이 감소세를 계속한다면 제조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순감소하게 될 것이다.

아래 <표 부록-3>, <표 부록-4>, <표 부록-5>, <표 부록-6>, <표 부록-7>, <표 부록-8>, <표 부록-9>는 3장에서 분석한 기계, 조선, 전자, 섬유, 철강, 반도체, 자동차 등 주요 제조 업종의 일자리 및 노동력의 변동 추이이다. 해당 표는 3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변동이 일자리 창출 및 소멸이라는 일자리 동학적 측면과 채용 및 이직이라는 노동력의 변동 측면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표 부록-3> 연도별 기계 업종 일자리 및 노동력 변동 추이

(단위: 천 명)

연도	일자리 변동			노동력 변동			일자리 노동력 순증가	대체 채용 (이직)	초과 노동 이동
	창출	소멸	일자리 재배치	채용	이직	노동력 변동량			
2008	84	64	148	252	231	483	21	167	335
2009	73	69	142	227	222	449	5	153	307
2010	97	54	151	283	240	523	44	186	372
2011	100	63	163	299	262	561	37	199	399
2012	100	76	176	295	271	566	24	195	390
2013	103	71	174	310	278	588	32	207	414
2014	104	74	179	322	292	615	30	218	436
2015	103	82	185	320	299	619	20	217	434
2016	103	84	187	323	303	626	20	219	439
2017	102	81	183	327	307	634	21	226	451
2018	93	86	179	308	300	609	8	215	430
2019	81	84	165	277	280	558	-3	197	393

자료: 「고용보험 피보험자 DB」

〈표 부록-4〉 연도별 조선 업종 일자리 및 노동력 변동 추이

(단위: 천 명)

연도	일자리 변동			노동력 변동			일자리 노동력 순증가	대체 채용 (이직)	초과 노동 이동
	창출	소멸	일자리 재배치	채용	이직	노동력 변동량			
2008	36	14	50	100	77	177	22	63	127
2009	28	23	51	92	86	178	6	63	127
2010	21	27	48	80	86	166	-6	59	119
2011	26	21	47	92	86	178	5	65	131
2012	32	21	54	103	92	195	11	71	141
2013	31	25	56	116	109	225	7	85	169
2014	36	24	60	137	124	260	13	100	201
2015	38	32	69	153	147	300	6	116	231
2016	24	53	77	129	157	285	-28	104	208
2017	13	53	66	81	121	201	-40	67	135
2018	18	22	40	59	62	121	-3	40	81
2019	18	14	32	61	57	118	4	43	86

자료: 「고용보험 피보험자 DB」

〈표 부록-5〉 연도별 전자 업종 일자리 및 노동력 변동 추이

(단위: 천 명)

연도	일자리 변동			노동력 변동			일자리 노동력 순증가	대체 채용 (이직)	초과 노동 이동
	창출	소멸	일자리 재배치	채용	이직	노동력 변동량			
2008	61	71	132	202	212	414	-10	141	282
2009	76	57	133	207	189	396	19	131	263
2010	93	46	139	261	214	476	47	169	337
2011	80	59	139	249	228	477	21	169	338
2012	100	83	182	267	250	516	17	167	334
2013	75	53	128	240	218	458	22	165	330
2014	64	64	128	217	218	435	0	153	307
2015	60	64	124	207	211	418	-4	147	294
2016	57	63	120	206	212	418	-6	149	298
2017	66	50	115	222	206	428	16	156	312
2018	61	67	128	205	212	418	-7	145	289
2019	53	55	108	186	187	373	-2	133	265

자료: 「고용보험 피보험자 DB」

<표 부록-6> 연도별 섬유 업종 일자리 및 노동력 변동 추이

(단위: 천 명)

연도	일자리 변동			노동력 변동			일자리 노동력 순증가	대체 채용 (이직)	초과 노동 이동
	창출	소멸	일자리 재배치	채용	이직	노동력 변동량			
2008	21	27	48	71	77	149	-6	51	101
2009	23	20	43	74	70	144	3	50	101
2010	26	18	43	82	74	157	8	57	113
2011	26	20	46	84	78	162	6	58	116
2012	26	24	50	82	80	162	2	56	112
2013	25	21	46	79	75	154	4	54	109
2014	24	23	48	77	76	153	1	53	105
2015	24	24	48	76	75	151	0	52	103
2016	24	22	45	76	74	149	2	52	104
2017	20	25	45	68	73	141	-5	48	96
2018	22	29	51	68	75	144	-7	46	92
2019	18	24	42	59	65	124	-6	41	82

자료: 「고용보험 피보험자 DB」

<표 부록-7> 연도별 철강 업종 일자리 및 노동력 변동 추이

(단위: 천 명)

연도	일자리 변동			노동력 변동			일자리 노동력 순증가	대체 채용 (이직)	초과 노동 이동
	창출	소멸	일자리 재배치	채용	이직	노동력 변동량			
2008	11	9	21	33	31	64	2	22	44
2009	11	8	19	31	29	59	2	20	40
2010	14	6	20	39	32	71	8	26	52
2011	13	7	20	40	34	73	6	27	53
2012	12	9	22	39	36	75	3	27	54
2013	9	6	15	31	28	59	2	22	44
2014	7	6	13	26	26	52	1	19	39
2015	7	8	15	25	26	51	-1	18	36
2016	6	7	12	22	24	46	-1	17	33
2017	5	5	10	21	21	42	0	16	32
2018	5	6	12	20	21	42	-1	15	30
2019	5	6	11	18	19	37	-1	13	26

자료: 「고용보험 피보험자 DB」

〈표 부록-8〉 연도별 반도체 업종 일자리 및 노동력 변동 추이

(단위: 천 명)

연도	일자리 변동			노동력 변동			일자리 노동력 순증가	대체 채용 (이직)	초과 노동 이동
	창출	소멸	일자리 재배치	채용	이직	노동력 변동량			
2008	8	10	17	29	32	61	-2	22	44
2009	10	10	20	29	29	58	0	19	38
2010	22	5	27	51	33	85	18	29	58
2011	12	7	19	39	34	72	5	26	53
2012	12	11	23	37	36	73	2	25	50
2013	10	10	19	33	33	66	0	23	46
2014	11	10	20	33	32	66	1	23	45
2015	10	8	17	31	30	61	2	22	43
2016	11	9	20	32	31	63	2	22	43
2017	15	6	22	42	33	75	9	26	53
2018	14	6	20	41	34	75	7	28	55
2019	11	8	18	34	31	66	3	24	47

자료: 「고용보험 피보험자 DB」

〈표 부록-9〉 연도별 자동차 업종 일자리 및 노동력 변동 추이

(단위: 천 명)

연도	일자리 변동			노동력 변동			일자리 노동력 순증가	대체 채용 (이직)	초과 노동 이동
	창출	소멸	일자리 재배치	채용	이직	노동력 변동량			
2008	21	25	46	78	83	161	-5	58	115
2009	22	27	49	75	80	155	-5	53	105
2010	36	16	51	108	89	197	20	73	145
2011	36	17	53	118	99	217	19	82	164
2012	34	22	56	114	102	216	11	80	160
2013	32	19	52	105	92	197	13	73	145
2014	33	20	52	106	93	198	13	73	146
2015	31	24	55	105	98	203	7	74	148
2016	28	20	49	101	93	194	8	73	146
2017	26	24	50	98	96	194	2	72	144
2018	25	31	56	92	98	190	-5	67	134
2019	21	29	49	79	88	167	-8	59	118

자료: 「고용보험 피보험자 DB」

집필진 김수현 (한국고용정보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과 주요 업종 고용 변동 분석

인 쇄 2020년 12월 31일
발 행 2020년 12월 31일
발 행 인 나영돈
발 행 처 한국고용정보원
27740 충북 음성군 맹동면 태정로 6
☎ 1577-7114
홈페이지 www.keis.or.kr
조판 및 인쇄 (주)현대아트컴
☎ 02-2278-4482

• 본 보고서의 내용은 한국고용정보원의 사전 승인 없이 전재 및 역재할 수 없습니다.
ISBN